

# 오순절 은사 운동의 역사와 정체

월슨 유인 지음  
정동수 옮김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에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신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he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오순절 은사 운동의 역사와 정체

월슨 유인 지음  
정동수 옮김

1판 1쇄 / 2023년 5월 1일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mailto:webmaster@KeepBible.com)

정가 : 6,000원

본서에 있는 성경 구절은 2021년도에 우리말로 출간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마제스티 에디션>(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에서 모두 인용했습니다.

# 목 차



## 오순절 은사 운동의 피리 부는 사나이

일러두기 .....	5
저자 서문 .....	6
역자 서문 .....	8
제1장 마귀의 지상 왕국 .....	13
제2장 오순절 운동과 신비주의 .....	19
제3장 은사 운동과 천주교의 연합 .....	28
제4장 은사 운동과 종교 통합 .....	40
제5장 마귀의 거짓 복음 .....	58
제6장 마귀의 음악 .....	67
제7장 하나님의 부르심 .....	81
부 언 .....	86
참고 문헌 .....	89
부록 1 입신 .....	92
부록 2 방언과 표적 .....	95
부록 3 웰빙 목사의 혼동의 세계 .....	120
부록 4 사도행전 바로 이해하기 .....	128
부록 5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던 것들 .....	142
부록 6 카톨릭 영성에 중독된 한국 교회 .....	14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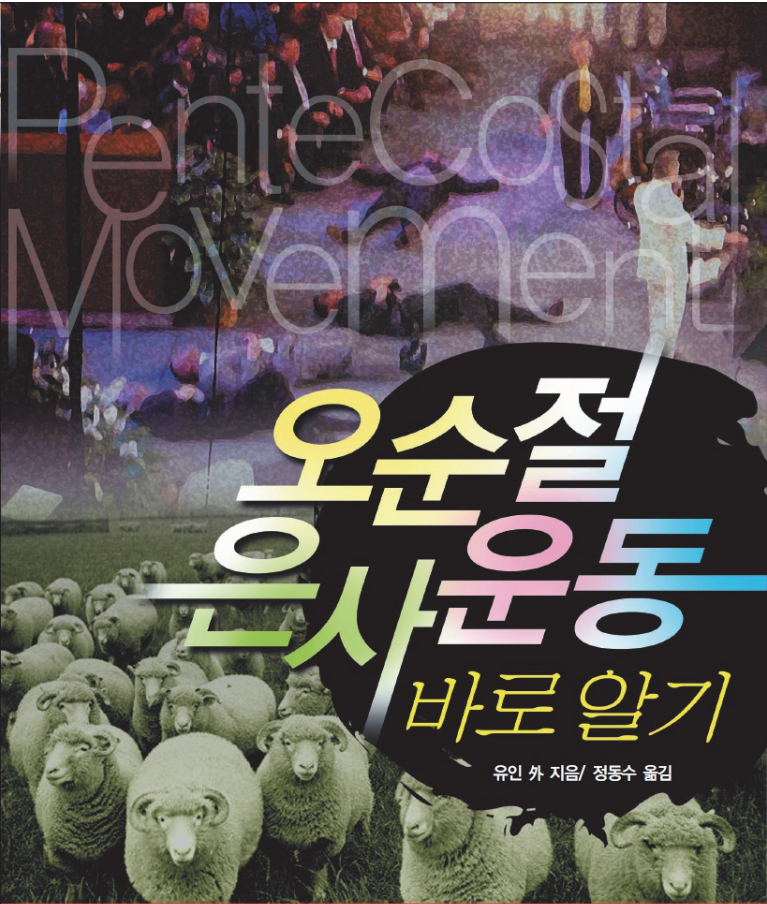
정신을 차리라. 깨어 있으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울부짖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믿음에 굳게 서서 그를 대적하라.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겪는 줄 너희가 아느니라(벧전5:8-9)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지음  
정동수 옮김

  
그리스도  
예수안에



유인 외 지음 / 정동수 옮김

**아주사 빈야드 토론토 펜사콜라...**

**웃음부흥 방언 치유 안수 영성훈련 알파코스 G12까지...**

오순절 은사 운동의 실체를 성경적으로 보여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안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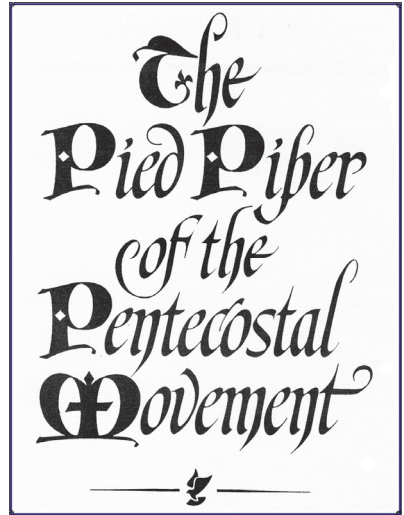
이 책자는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의 1부와 뒤의 몇몇 부록을 발췌한 것이다. 이 책자에서 언급되었으나 뒤에 없는 부록이나 자료는 원래 책에 들어 있다. 마지막 때 종교 일치 및 통합의 매개체로 이용되고 있는 오순절 은사 운동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는 분들은 460쪽 분량의 책을 참조하기 바란다. 뒤표지의 QR 코드를 찍으면 이 책을 포함해서 다양한 책들을 모두 무료 PDF로 다운받을 수 있다.

# 일러두기

본서는 윌슨 유인(Wilson Ewin) 목사가 지은 「오순절 운동의 피리 부는 사나이」(*The Pied Piper of the Pentecostal Movement*, 1986,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 소재 성경침례교회 출판사)를 완역한 것이다.

1923년에 태어난 유인 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카톨릭적인 캐나다의 퀘벡주에서 천주교인들을 대상으로 목회를 하다 죽음의 위기까지 맛보았고 미국의 성경침례교회에서 시무하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 유인 목사는 오순절 은사 운동이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종교 일치 통합 운동과 어떤 관계가 있으며 특히 오순절 운동에서의 천주교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보여 준다.

이 책은 오순절 체험을 갖고 있고 따라서 오순절 은사 운동의 일원이 된 분들을 위해 저술되었다.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오순절 은사 운동의 모든 점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또한 그런 것들 중 몇몇에 대해서는 반대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어쨌든 여러분은 오순절주의의 경험이 성령님의 사역이라고 믿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여러분이 역사적 혹은 전통적 오순절 교단에 속했든지, 최근의 '은사주의' 교회에 속해 있든지 혹은 오순절 경험을 갖고 있으나 지금은 그런 교회에 다니지 않고 홀로 있든지 간에 저자는 사랑과 동정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입각한 사실들만을 이 책에서 보여 주려 한다. 주 예수님의 은혜와 진리가 여러분 모두에게 충만히 넘치기를 원한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요일4:1).

## 저자 서문

이 책은 의무감 때문에 저술되었다. 예전에 대언자 예레미야는 재앙과 파멸이 나타나므로 나팔을 불라는 명령을 이스라엘에게 주었다(렘6:1). 마찬가지로 에스겔은 이스라엘 집의 파수꾼이 되어 나팔 소리를 내라는 명령을 받았다(겔33:1).

신약 시대에 하나님의 종들은 밤낮 눈물로써 모든 이들을 경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다(행20:31).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이제 끝이 나고 있다. 이미 예언된 대로 ‘위험한 때’가 지금 우리에게 닥쳐오고 있으며 비관과 슬픔의 구름이 혼돈과 배반이라는 지상의 무대를 덮으려 하고 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성경의 예언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성도들은 이처럼 ‘위험한 때’의 두드러진 특징들 중 하나가 바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정치/경제/종교적 제국의 형성임을 알고 있다. 간단히 말해 사탄이 ‘모든 족속들과 언어들과 국가들에 대해 권력을 행사하는 것이 허락되는 때에 온 세상은 그의 왕국의 무서운 수렁 속으로 빠지게 될 것이다(계13:7).

이런 때에 성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이 같은 체제의 종교적 요소일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일 세계 종교가 정치적 체제와 협력하며 사탄의 위력에 의해 큰 힘을 받게 될 것을 보여 준다. 또 그 종교 체제가 그것을 반대하는 이들을 제거할 것이며 그 지도자인 적그리스도가 사람들이 생각해 볼 수도 없을 정도로 놀라운 기적 등을 통해 온 세상을 속일 것이다. 사탄의 영적 거미줄은 온 인류를 감싸서 그들을 단일 세계 정부의 노예로 만들 것이고 그때에는 어떤 이도 짐승의 표가 없이는 사거나 팔수가 없게 된다(계13:11-18).

그러나 슬프게도 현재 일어나고 있는 기독교의 배도 장면들을 조정하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사탄 마귀라는 사실을 알리려는 이들이 매우 적다. 이런 상황 속에서 단일 세계 종교의 형성이 지금 우리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고 큰 의미를 지닌 종교적 사건들이 사도 요한에게 주어진 예언의 그림들을 완성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 같은 일을 주도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오순절주의’ 혹은 ‘오순절 은사 운동’이라 불리는 움직임, 즉 ‘저 거룩하지 못한 영’(unholy spirit)에 의해 주도되고 있는 운동이다.

「오순절 운동의 피리 부는 사나이」(*Pied Piper of the Pentecostal Movement*)라는 제목의 이 책은 참으로 중요한 시점에 저술되었다. 오순절주의의 주장, 영향, 존재는 이제 전 세계적인 것이 되어 버렸다. 이 운동 추종자들의 보고서를 보면, 그 안에 동참하는 자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며 급성장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오순절 운동의 존재를 반대하는 사람들의 숫자는 점점 감소하고 있고 이들은 이 운동이 이미 자신의 영역에까지 침투해 들어옴에 따라 점점 더 많이 걱정을 하고 있다. 그 결과 여기저기서 도와달라는 요청이 끊임없이 쇄도하고 있다.

불행하게도 오순절 운동에 참가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은 책들의 대다수는 단순히 학구적 차원에서 오순절주의를 조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시 말해 그들은 매우 현실성 없는 이야기들만 하고 있으며 병 고치는 것, 방언하는 것 그리고 오순절주의와 관련된 다른 현상들이 이 시대에도 적용되는지 여부 등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다. 물론 이런 것들도 중요하다. 그러나 이 책은 그런 것들과는 전혀 다르다.

이 책은 오순절주의의 영적인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 주며 그 결과가 무엇인가를 현실적으로 보여 준다. 또한 이 책에는 이 운동과 관련된 이름들과 그룹들 그리고 사건들이 모든 의심을 제거해 줄 수 있을 정도로 솔직하게 언급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어느 것이 옳은가에 대해 독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명백하게 주어져 있다. 이제 우리는 신비주의, 종교통합주의, 복음 성가, 록 음악의 네 분야를 실제적인 명확성과 평범한 언어에 의거하여 재검토해야만 한다. 우리는 그것들이 옳은가 그른가를 성경적으로 판단해야만 한다.

사실 이런 판단은 검은색과 흰색이 그 중간색인 회색에 의해 대체된 현실에서 그리 쉽지 않으며 매우 특이하다. 우리 주변의 사회 전체가 인본주의적인 것은 무엇이든지 허용하고 동정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며 ‘사랑’, ‘일치’, ‘긍정적 사고’ 등의 깃발 아래 함께 움직여 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런 판단을 내린다는 것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나는 이 책을 저술하도록 내게 동기를 주시고 진행 과정 속에서 필요한 지혜를 주신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 싶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얻게 될 도움, 안도감, 용기, 복된 소망 등에 대한 영광과 존귀가 오직 그분께만 드러지기를 원한다.

이 글을 위해 수고해 주신 분들이 많이 있다. 특히 이 책의 출간에 결정적인 역할을 해 준 특별한 사람이 있다. 예수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기 전에는 로마 카톨릭교도였으나, 많은 이들이 로마 카톨릭교회라는 미궁 속에서 빠져 나오게 될 때 그들에게 영적 거듭남이 일어나는 것을 직접 눈으로 체험했던 그녀는 이 책이 저술되는 과정 속에서 내게 참으로 귀중한 충고를 해 주었으며 이 일이 끝까지 이루어지도록 기도했다. 그 사람은 바로 내 아내인 트루디이다.

끝으로 역시 예전에 천주교인이었으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이 된 윌튼(Dick Wilton)에게 감사를 드린다. 그는 이 책에 있는 그림들을 만드느라 수없이 많은 시간을 들였다. 윌튼 형제는 전 인류를 위해 이 책 안에 자신의 모든 것을 쏟아 부었다.

윌슨 유인(Wilson Ewin) 목사  
미국 뉴햄프셔주, 내슈아  
성경침례교회

## 역사 서문

역사는 말세에 마귀가 어떤 계략으로 기독교를 붕괴시키려는가를 보여 주기 위해 여러 가지 증거를 담은 이 글을 출간하게 되었다. 지난 20여 년간 기독교 내에서는 참으로 많은 운동과 사상이 출현했다. 특히 눈에 띈 현상은 ‘단일 세계 종교’ 구현을 위한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 운동이었고 이를 위해 긍정적 사고, 프레스 디아스, 폐제 공동체, 몬테소리 교육, 로올라의 영성 훈련 그리고 ‘약속 이행자 운동’(Promise Keepers, 국내에서는 아버지 학교로 알려짐), 알파 코스, G12, 신(新)사도 운동 등 여러 가지 운동, 수단, 기법이 개발되어 소개되었다. 그 결과 “교회 성장을 이루며 서로 사랑하자.”는 교회 연합 일치 운동가들의 그럴듯한 구호 아래 많은 크리스천들이 속아 넘어가 무지 속으로 빨려 들어가는 일이 발생했다.

이런 와중에 1994년 3월 29일 미국의 복음주의 지도자들과 카톨릭교회의 지도자들이 함께 모여 「복음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이 함께 한다」(*Evangelicals and Catholics Together*; 이하 ECT)는 문서에 서명함으로써 근본적으로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뒤엎으려는 시도를 했다.<sup>1)</sup> 여기에는 내로라하는 기독교 지도자들인 CCC의 빌 브라이트, 템플턴상을 수상한 찰스 콜슨, 700 Club의 팻 로버트슨, 「하나님을 아는 지식」의 저자 제임스 패커 등이 대거 참여했다. 한편 1999년 10월 31일, 천주교와 루터교는 기본적인 교리에서 서로 같음을 온 세상에 천명함으로써 ‘단일 세계 종교’의 실현이 눈앞에 이르렀음을 실감하게 해 주었다.

또한 오랄 로버츠, 짐 베이커, 지미 스웨가트, 존 워버, 베니 힌, 존 킬패트릭, 스티브 힐, 니키 검블 등 각종 표적과 이적을 보여 주며 사람들을 현혹하는 무리가 생겨나기 시작했다. 이들의 관심사 역시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이지만 이들은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피부에 와닿는 기법들을 사용하여 사람들을 유혹한다는 점에서 더 위험하다 할 수 있다. 이들은 대중 최면 같은 기법을 사용하여 일반 사람들의 관심사, 즉 병과 가난과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 등을 약속했고 그 결과 수많은 성도들과 심지어 목회자들도 이들의 유혹에 빠지게 되었다.

이런 무리들 중 최근에 가장 많이 입에 오르내리는 자들은 바로 빈야드 운동을 하며 소위 ‘토론토 축복’이라는 이상한 축복을 약속하는 무리들과 펜사콜라 부흥을 외치는 자들 그리고 알파 코스를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같은 축복과 부흥의 골자는 ‘웃는 것’, ‘소리 지르는 것’, ‘몸을 떠는 것’, ‘넘어지는 것’, ‘비명을 지르는 것’, ‘날카로운

1) 여기에 대해서는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릭 존스 저, 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소리로 외치는 것', '씩씩거리는 것', '나귀 소리를 내는 것', '사자처럼 부르짖는 것', '꼬꼬꼬꼬 암탉 소리를 내는 것', '개처럼 짖는 것', '꿀꿀꿀꿀 돼지 소리를 내는 것', '아말감 이빨을 금이빨로 바꾸는 것' 등과 같은 경험이다.

지난 몇 해 동안 국내에서도 이런 현상에 대해 듣게 된 목회자들이 교회 성장을 위해 이런 인위적인 방법이라도 사용해서 사람들을 모아 성공해야겠다는 꿈을 안고 비행기를 타고 캐나다의 토론토와 미국의 펜사콜라까지 다녀왔다. 또한 교계 제1의 잡지 등에서도 이 현상이 매우 성경적인 것처럼 크게 다루었고, 이 운동의 창시자인 윈버(John Wimber)를 매우 동경하며 미국 워싱턴에서 이런 형태의 예배를 주도하는 한인 목사 등을 소개하는 글을 내놓았다. 토론토에 직접 다녀온 어떤 유명한 목사는 그 잡지에 실린 경험 수기에서 이 현상이 과연 하나님의 것인지, 마귀의 것인지 더 두고 봐야 한다는 중도적 입장을 표명했다. 목사가 올바른 말을 해야 할 때 하지 못한다면 과연 하나님의 종이랄 수 있을까?

이렇게 국내에서 빈야드 운동, 펜사콜라 부흥, 알파 코스, G12 운동 등이 확산하는 동안 이것이 비성경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는 글은 거의 출간되지 않았다. 얽힌 데 얽힌 격으로 「성령의 권능이 임할 때」라는 책이 한 기독교 출판사에 의해 출간되었다. 이 책의 내용은 한마디로 '성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것'<sup>2)</sup>은 좋은 현상이며 그렇게 되면 위에서 언급했듯이 사자처럼 부르짖거나, 개처럼 짖거나 혹은 자제할 수 없이 웃는 것 등이 생긴다는 것이다. 또한 이 모든 것이 성령님의 일이므로 교회가 그대로 이것을 수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조심해야 할 것은 이 책의 저자인 맥너트가 마치 목사인 것처럼 되어 있으나 실상은 미국 천주교의 도미니칸파 사제(司祭)라는 점이다. 맥너트는 미국 천주교 은사 운동에 이 같은 기현상을 도입한 장본인이다. 그런데 이런 천주교 사제의 글을 프로테스탄트 신학교의 대학원장이 번역하고 내로라하는 교계의 지도자들이 앞다투어 책 뒤에 추천서를 써 주는 우스운 - 그러나 웃을 수도 없는 - 현상이 생기게 되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예큐메니컬 종교 일치야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은 그런 지도자들의 이름이 있으므로 안심하고 그 글을 읽지 않겠는가?

마르틴 루터가 목숨을 내놓고 오직 믿음으로 투쟁하던 단체가 로마 카톨릭 체제가 아니던가? 찰스 스펀전, 요한 웨슬레, 드와이트 무디, 마틴 로이드 존스가 그렇게 간절히 호소하며 절대로 되돌아가서는 안 된다고 외치던 집단이 바로 천주교가 아니던가? 화체설과 유아 세례 교리로 수많은 크리스천들을 죽인 단체가 바로 천주교가 아니던가? 지금도 남미나 필리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할 때 선교사들에게 가장 많은 박해를 가하는 단체가 바로 천주교가 아닌가? 과연 로마 교황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있는가?

1960년대의 제2 바티칸 공회 이후 마치 천주교가 변한 것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그 체제는 사람이 만들어 놓은 행위 중심의 제도를 따라 행하며 성경과는 정반대가

---

2) 한국에서는 이것을 입신이라고 한다. 자세한 것은 부록 1을 참조하기 바란다.

되는 ‘믿음 + 행위’라는 구원 교리를 가르치고 있다. 더욱이 그들은 현재 교회 내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다원주의’나 ‘전 세계 종교 통합’을 주도해 나가고 있다. 이제 한국 교계에도 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 곧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된다. 1984년도에 교황이 다녀간 후에 천주교인들의 숫자가 2배나 늘고 기독교인의 숫자는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이 시점에서 성경대로 믿는 성도들은 경각심을 가져야만 할 것이다.

한편 ‘토론토 축복 현상’이 점점 더 문제를 일으키며 성도들뿐만 아니라 세속 사람들로 부터도 지탄을 받게 되자 이 현상을 일으켰던 워버의 빈야드 펠로우십 연합회는 문제의 토론토 공항 빈야드 교회를 신속하게 자신들의 연합체에서 추방한다는 선언을 했다(1995년 12월 10일 「로스앤젤레스타임스」). 다시 말해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성령의 운동이라고 확신해서 극구 칭찬하며 대대적으로 선전해 왔던 ‘토론토 현상’을 자기들 모임에서 추방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것으로 문제가 끝난단 말인가? 결코 아니다! 우리는 과연 이 신비주의 현상에 능력을 부여 주었던 ‘그 영’(靈, the spirit)이 어떤 영인가 살펴보아야만 한다. 동시에 우리는 토론토에서 일했던 그 영이 바로 워버의 빈야드 연합회를 주도해 온 영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비록 그들이 토론토 교회를 축출했다 하더라도 워버의 교회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나 ‘토론토 현상’과 대동소이한 것이다.

아니나 다를까 빈야드 운동을 지배하던 영(靈)은 이번에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로 옮겨가서 등지를 틀었다. 1990년 중반에 ‘펜사콜라 부흥’은 ‘토론토 축복’보다 더 큰 위세를 자랑하면서 각종 신비한 현상을 산출해 냈으며 이것이 참된 부흥임을 입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거짓 주장을 내놓아 사람들을 현혹시켰다. 이 기회를 놓칠새라 교회 성장에 눈이 어두운 한국 교회 목사들이 발 빠르게 펜사콜라로 집결하였고 또 펜사콜라 팀을 초청하여 대규모 집회를 갖기도 했다. 이런 것을 보면서 순진한 성도들은 우르르 거기로 몰려가 부흥의 불길에 휩싸이고자 애를 쓰고 있다.

그 이후로 빈야드 운동을 주도하는 ‘그 영’(靈)은 영국 성공회의 니키 검블과 같은 사제들을 동원하여 알파 코스라는 이름으로 성경 공부 같은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주말마다 사람들을 모아 저질의 성경 공부와 소위 성령 체험이라는 것을 체험하게 하고 있다. 최근 들어 국내에서는 알파 코스와 G12 등의 프로그램이 교회 성장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인식되어 무차별적으로 진행되고 있고 성령 터널, 아말감 이빨이 금이빨로 변하는 소동 등과 더불어 무지한 성도들을 수렁으로 몰아넣고 있다.

이런 혼돈의 시점에서 역자는 무엇인가 올바른 것을 전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이 글을 쓰게 되었다. 진실을 밝히려는 사람이 거의 없기에 공학을 전공하는 한 연구자가 박사 학위 논문을 쓰듯이 서론, 본론, 결론, 참고 문헌, 부록을 갖춘 연구 보고서 형태의 글을 쓰게 되었다. 본서는 반(反)로마 카톨릭 천주교, 반오순절 은사주의, 반에큐메니컬 종교 통합 운동의 관점에서 저술되었으며 총 주제는 다음의 한마디로 요약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은가?

공학을 하는 사람은 반드시 실제 현상을 관찰한 뒤 교과서에 따라 그것을 분석하고 이것에 근거하여 결론을 내린다. 따라서 이 책에서 역자는 신실한 것으로 인정받는 성경 신자들이 보고한 사실과 실제 현상만을 기록했고 성경이라는 교과서에 비교해서 얻은 결론만을 제시했다. 또한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미국 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편집한 「오순절 은사 운동 백과사전」<sup>3)</sup>에 있는 내용도 필요한 곳에 넣거나 부록에 첨가했다.

먼저 한 가지 밝혀 두어야 할 것은 역자가 기독교 내의 어떤 특정 교단이나 교회를 반박하려고 이 글을 출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역자의 진실을 보여 주고 성경으로 되돌아가야만 한다는 점을 강조하려는 것이 이 책의 발행 목적이다. 특히 역자는 오순절 교단에 속한 이들을 조롱하거나 반박하려고 이 글을 쓰지 않았다. 그들 역시 이 운동을 주도하는 ‘그 영’(靈)에 의해 큰 피해를 보고 있는 당사자들이다. 많은 경우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열심은 참으로 보통 사람들이 따라가기 어렵다. 우리는 참으로 그들의 열정과 동기를 존중한다. 다만 우리는 그들의 다수가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떠나 사람의 말과 표적에 의지하려는 것이 틀렸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형제들아, 내가 이스라엘을 위해 마음에 소원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노니 이것은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그들에 대해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가지고 있으나 그것은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를 세우려고 힘쓰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는 믿는 모든 자에게 의가 되시기 위해 율법의 끝마침이 되시느니라(롬10:1-4).

지금은 한두 교회나 한두 지도자의 잘잘못을 가릴 때가 아니며 믿는 자 모두가 눈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돌아가야 할 때이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라고 외쳤던 호세아 대언자의 눈물어린 호소가 바로 이 글의 출간에 관련된 모든 이들의 외침임을 부디 독자들께서 기억해 주시기 바란다.

끝으로 이 책은 역자가 1994년에 번역/출간한 「은사 운동 이대로 좋은가」(도서출판 예향), 1995년에 번역/출간한 「피리 부는 사나이」(도서출판 예향)와 1996년에 번역/출간한 「빈야드 운동의 실체」(도서출판 생명의 샘) 그리고 1999년에 번역/출간한 「오순절 표적 부흥의 실체」(도서출판 두루마리)라는 책들을 다시 정리하고 그 이후에 벌어진 알파 코스에 대한 내용과 오순절 은사주의 역사와 오류에 대한 내용을 추가하여 새로이 만든 책이다.

앞으로도 짐승의 웃음소리와 마룻바닥에 사람들을 쓰러뜨리며 사람의 육신을 만족시

---

3)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S. M. Burgess, G. B. McGee 저, 1988, Zondervan 출판사」. 이 책은 제목이 의도한 대로 오순절 은사주의에 관한 모든 것을 담고 있다. 최근에 이 책은 다음의 책으로 갱신되었다. 「New International Dictionary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Movements」, S. M. Burgess, E. M. van der Maas, Ed van der Maas 저, 2002, 2003년, Zondervan 출판사. 최근에는 사이넨이 지은 책도 나왔다. 「Century Of The Holy Spirit 100 Years Of Pentecostal And Charismatic Renewal, 1901-2001」, V. Synan.

켜 주는 각종 기괴한 일들을 동반하는 오순절주의의 현상들은 계속해서 전 세계적으로 이곳저곳에서 발생할 것이다. 특히 21세기에는 이런 현상들이 온 세계에 만연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역자의 예언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바이다. 부디 성경을 그대로 믿기 바란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과 우리가 그분께로 함께 모이는 것에 의거하여 이제 우리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는 영으로나 말로나 혹은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이 왔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불안해하지 말라. 아무도 어떤 방법으로도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먼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저 죄의 사람 곧 멸망의 아들이 드러나지 아니하면 그 날이 오지 아니하리라. 그는 대적하는 자요, 또 하나님이라 불리거나 혹은 경배받는 모든 것 위로 자기를 높이는 자로서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상전 안에 앉아 자기가 하나님인 것을 스스로 보이느니라.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런 까닭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그들이 거짓말을 믿게 하시리니 이것은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그들이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살후2:1-4, 9-12).

앞으로 이런 형태의 부흥이 어디에서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든지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그것을 주도하는 ‘그 영’(靈)이 100여 년 전 미국 로스앤젤레스의 ‘아주사 거리’에서 오순절 부흥을 일으킨 영이며, ‘토론토 축복’을 일으킨 영이요, ‘펜사콜라 부흥’을 일으킨 오류의 영이며, 알파 코스를 지도하는 영이요, 천주교회와의 종교 일치 통합을 추구하는 부정한 영이라는 점이다. 오순절 은사 운동과 더불어 천주교의 실상을 아는 일이 대단히 중요하다.<sup>4)</sup>

우리 믿는 성도들의 창조자, 구원자, 재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친 세상 속에서도 곳곳이 믿음을 지키고 있는 적은 수의 형제, 자매들에게 큰 평안과 강건함을 주실 것을 기도드리며 모든 영광을 오직 그분 한 분께만 드린다.<sup>5)</sup>



2009년 10월  
인천에서  
정동수

4) 이를 위해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천주교의 유래」(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성경 문제, 천주교, 은사주의, 창조와 진화, 뉴에이지 등에 대해 자세히 알기 원하는 독자는 위의 QR 코드를 찍어서 다음 웹사이트의 무료 자료들을 이용하기 바란다([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5) 2023년도 미디어 선교의 일환으로 사랑침례교회 형제자매님들이 헌신적으로 교정 및 교열을 해서 책을 빛나게 해 주었다.

## 제1장

# 마귀의 지상 왕국

### 사격 개시!

1942년 7월 3일 오후 5시 54분, 이 무서운 명령이 영국 전함 ‘레졸루션’, ‘후드’ 그리고 ‘밸리언트’ 호의 포격 대원들에게 내려졌다. 그때로부터 정확히 12분이 지난 뒤 프랑스 전함 ‘브레타그’가 폭발되었고 ‘던커크’는 치명적인 상처를 입었으며 ‘프로벤스’는 급속도로 침몰하기 시작했다.

이같이 무서운 명령을 내리면서 영국 해군의 소머빌 제독은 몇 시간 전에 영국 수상 윈스턴 처칠이 자기에게 말했던 것을 실제로 수행하였다. 제2차 세계 대전 당시 영국 수상이던 처칠은 “당신은 지금 영국 해군 제독이 직면해 왔던 임무 중 가장 힘들며 논쟁거리가 될 임무를 눈앞에 두고 있소”라고 소머빌 제독에게 말했다(「그들의 전성기」(*Their Finest Hour*), 윈스턴 처칠, p. 235).

그 당시 프랑스는 나치 독일의 점령하에 있었고 배신한 비시 정부는 프랑스 해군의 대부분을 독일에게 넘겨주었다. 영국은 이처럼 치명적인 위기 상황을 그대로 두지 않았고 처칠 수상은 역사적이며 매우 논란이 될 만한 결단을 내렸다. 그리하여 매우 역설적으로 오란(Oran)에 주둔하던 위협적인 프랑스 군함들이 같은 연합국 군대인 영국군에 의해 완전히 폭발되어야만 했다.

오늘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경 신자들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맞고 있다. 성경적 기독교 군대는 점점 미약해지고 있고 그 안의 많은 부분들이 적군의 손에 들어가고 있다. 이처럼 감소 추세에 있는 크리스천 군대는 이제 별로 유효하지 않은 결정을 내려야만 할 처지에 놓여 있다. 그들은 전에 그리스도를 따르던 군사들 중 많은 수가 현재는 적군들과 연합하고 있다는 사실을 간단히 무시해 버릴 수 있다. 물론 그들은 새로이 도래하고 있는 위협들에 대해 적군과 연합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들에게 경고를 해 주어야만 한다. 끝으로, 그들은 아직도 자신들의 손에 남아 있는 것들을 보존하기 위해 예전에 자신들과 한편이었던 이들을 권고하여 오류에서 되돌아서게 해야만 한다. 그리스도의 군대에 속한 많은 이들이 아직도 결단을 내리지 못한 채 방황하고 있다.

한편 적그리스도의 군대들은 전 세계를 장악하기 위한 ‘대살육’을 이루기 위해 전력투구하고 있으며 치밀한 작전 계획을 짜고 있다. 단일 세계 정부 및 종교 체제의 맨 위에는 이것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한 인물이 존재한다. 이 글에서 우리는 그를 ‘피리

부는 사나이'(The Pied Piper)라고 부를 것이다.)<sup>1)</sup>



1) '피리 부는 사나이'는 독일 전설에 나오는 가상의 인물로서 하멜른 마을의 쥐를 퇴치하였으나 약속한 보수를 받지 못하자 마을 어린이들을 피리 소리로 피어내 산속에 숨겨 버렸다고 한다. 이 글에서는 교인들을 무지로 이끌며 자신을 따르도록 만드는 그 인물, 즉 마귀를 비유적으로 '피리 부는 사나이'라고 부르고 있다.

이미 그의 계획은 상당히 진행되었다. ‘약속의 복음’이라 불리는 마르크스주의는 지금까지 세계 여러 국가들에 의해서 수용되었고 그것을 수용한 국민들은 거의 노예 상태로 지내고 있다. 반면에 자유주의 국가들은 무관심과 도덕성의 타락 등으로 인해 자멸하고 있다. 이런 것들 외에도 유물론 철학 혹은 세속적 인본주의 등이 극도로 기승을 부리고 있고 사람들이 무언가 새로운 것들을 추구하도록 만들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새로운 무엇’은 ‘국제적 공산주의’ 혹은 ‘사회적 공산주의’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제 자신이 승리하고 있음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한 가지 문제가 남아 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종교이다. 어떻게 그가 초자연적인 것을 믿으려 하는 전 세계의 많은 대중을 통제할 것인가? 그의 단일 세계 정부 체제하에서 반드시 존재해야만 하는 조화와 일치를 이루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종교를 통제하는 것이다.

### 피리 부는 사나이의 해결책

‘피리 부는 사나이’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도 이미 발견한 것처럼 보인다. 그는 이미 자신이 걸치고 있던 정치적 망토를 벗어 버렸고 이제는 종교적 권위자의 모습을 취하기 시작했다. 이 같은 계약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 이유는 사람이 창조된 이래로 그가 종교라는 분야에서 늘 이 방법으로 성공해 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번의 수행 과제는 지금까지의 것들과는 좀 다르다. 그 이유는 이번에는 그가 반드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 성도들 속으로 침투해 들어가야만 하기 때문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1820년대에 영국에서 ‘신비주의’를 시작했다. 이런 신비주의를 추종하던 자들 중 얼마가 미국으로 이주해 갔고 그곳에서 새로운 초자연적 경험주의의 뿌리를 내렸다. 그것이 바로 ‘20세기 초반의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이다.

‘피리 부는 사나이’는 미국 캔자스주의 토페카와 텍사스주의 휴스턴에 기지를 설립했다. 이곳들로부터 1906년부터 1909년 사이의 소위 ‘아주사 거리 부흥’(Azusa Street Revival)이 나오게 되었다. ‘오순절 운동’은 이곳에서부터 미국 전역으로 폭발적으로 퍼져 나갔고 그 뒤 전 세계에 파급되었다. 그전까지만 해도 오순절 운동은 자신의 교파 내부에서만 존재했지 다른 교파들에게는 아무런 영향도 주지 못했다.

그러나 1960년대가 시작되면서 오순절 운동은 급작스럽게 방향을 전환하였다. 그 운동은 자신의 교파 경계선을 넘어서서 비오순절 교단들에게까지 침투해 들어가기 시작했다. 그 결과 거의 모든 개신교회들 내에 오순절 조직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

1967년도에 오순절 운동은 급기야 로마 카톨릭교회 내부에까지도 침투해 들어갔다. 그 뒤 오순절 운동을 주도하는 ‘그 영’(靈, the spirit)은 그리스 정교회와 빌리 그래함 연합체 같은 복음주의의 방어벽마저도 무너뜨렸다. 마침내 오순절 운동은 세계 교회 협의회(World Council of Churches, WCC)를 완전히 정복해 버렸다.

이제 오순절주의는 자신의 병력들을 현대화하였고 고도의 무기들과 장비들을 확립해 놓았다. 그 군단은 말쑥 많았던 짐 베이커의 피티엘(PTL)로부터 예수 축제(Jesus Festivals)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역사적인 오순절 교파로부터 순복음 실업인 협회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오순절주의를 선전하는 TV와 라디오 방송 프로그램들은 지방 방송국과 위성 중계를 통해 24시간 내내 송출되고 있다. 피티엘(PTL), 씨엔비(CNB), 크리스천 록뮤직 방송(Rock Christian Network), 삼위일체 방송 등의 강력한 방송 매체에 의해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실로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 시청되고 있다.

비록 오순절 운동 안에 있는 그룹들과 이름들은 수없이 많지만 그들은 모두 똑같은 모습을 하고 있다. 방언을 하고 기적들을 갈구하며 영 안에서 그리고 예언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소위 입신이라 불리는 현상) 같은 공통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다양한 배경을 갖고 있는 오순절주의자들은 모두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아주사 거리'가 자신들이 공통적으로 공유하는 영적인 메카(즉 종교의 발생지)라고 부른다. 「아주사 거리」(*Azusa Street*)라는 책의 저자이며 멜로디라인 크리스천 센터의 목사인 윌커슨(Ralph Wilkerson)은 그 책의 서문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 책의 독자들을 위해 생생하게 기록된 '아주사 부흥'이라는 역사적 사실은 현시대 은사 운동의 매우 심오하며 비슷한 성격들을 위한 기반을 확립해 주었다... 이제 전통적 그룹들과 은사주의 그룹들의 많은 지도자들이 '아주사 부흥'의 현장을 종교적 역사 유물로 지정해야 한다는 데 동의하고 있다.

물론 오순절 은사주의 경험을 주장하는 그룹들 중 어느 그룹도 자신들이 '아주사 경험'을 만들어 냈던 '그 영'(靈)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고 한 적은 단 한 번도 없다. 역사적, 전통적 은사주의 그룹들 혹은 다른 어떤 형태를 띤 오늘날의 오순절 그룹들 중 어느 그룹도 다른 그룹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았다고 확실히 말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들이 내부적으로 서로 싸운다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겉으로 전쟁 포고를 하지는 않는다. 오늘날 오순절 그룹에 속한 모든 이들은 1906년 아주사 거리에 분명히 있었던 '능력의 집'(Power house)이 역사적 사실이며 자신들이 그대에 있었던 '동일한 영'(靈)을 존경하며 숭배한다고 주장한다.

'피리 부는 사나이'를 경건하게 대항하는 일은 반드시 지속되어야만 한다. 우리는 먼저 이런 것들을 구별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들을 살펴봐야만 하며 이 책의 나머지 부분은 전적으로 그런 것들을 다룰 것이다. 처칠 수상은 그런 일을 '영국 정부의 첩보 사역'이라고 불렀다. 반면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같은 것을 '분별'이라고 부른다. 솔로몬 왕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그러므로 주의 백성을 재판하도록 주의 종에게 명철한 마음을 주사 내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같이 큰 주의 이 백성을 누가 재판할 수 있나이까? 하니라.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매 주께서 그 말을 기쁘게 여기셨으므로(왕상3:9-10)





짐머맨 목사는 제14회 오순절 세계 대회에서 주연사로 강연했다. 1977년에 그는 벨기에의 수에넨스(Leo Joseph Suenens) 추기경과 함께 연합과 일치를 보여 주기 위해 캔자스시 티 대회에서 50,000명의 오순절주의자들 앞에 섰다.

## 분리하는 문제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운동을 전혀 분별하지 못하고 그것에 대항하지도 않는다는 사실이다. 원래 하나님의 백성들은 정확하며 공적인 언어로 그것에 대항했다. 그러나 오늘날 그 같은 입장은 은유, 수용, 중립 심지어 완전 동화 등을 이유로 점차 퇴색되어 가고 있다.

오늘날의 신학적/강해적 비평에서 발견되는 이 같은 변화를 목격하면서 사이넨(Vinson Synan)은 1983년에 다음과 같이 썼다.

전체 기독교가 성경의 근거 위에서 오순절주의의 주장들을 합당한 이슈로 다루려는 시도는 1960년 이후에 소위 '신(新)오순절 운동'이라는 것이 대두되면서 시작되었다. 이것은 오순절 운동의 비평학적 연구에 있어서 가장 최근의 경향이며 따라서 신학적으로 다가오는 시대가 어떻게 잘 표현해 준다(「마지막 날들에」(*In The Latter Days*), p. 81).

역사학자인 사이넨은 이미 오래전에 그 같은 경향을 예의 주시하며 관찰해 왔다. 1975년에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반(反)오순절 운동의 논쟁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이제는 많은 경우에 어떤 책이나 문서가 오순절주의를 반대하고 있는지 알아내는 것도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변화는 '신(新)오순절주의'가 얻게 된 어떤 새로운 존경심이나 혹은 모든 이상한 사상들을 온건히 수용하려는 태도로부터 나오게 되었다(「오순절 은사 운동의 기원에 대해」(*Aspects of Pentecostal-Charismatic Origins*), p. 111).

‘분별’ 그 자체만으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으며 결국 패배할 수밖에 없다. 그것은 반드시 ‘분리’라는 것에 연결되어야만 힘을 발휘할 수 있다.

1942년, 오란에 주둔하고 있었던 프랑스 해군 함정들이 폭파되기에 앞서 영국과 프랑스 장군들 사이에 수많은 논의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진정한 문제는 프랑스 해군을 나치 독일군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프랑스의 겐소울 장군은 독일의 명령하에 점령된 프랑스 함대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그는 분리에 대해 논의하는 것 자체를 거부했다. 그때에 처칠 수상으로부터 소머빌 제독에게 강력한 전갈이 왔다.

프랑스 전함들은 반드시 우리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당신이 해 지기 전에 그것들을 침몰시켜야 합니다(「그들의 전성기」(Their Finest Hour), p. 236).

분리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처칠 수상의 명령보다 훨씬 더 명백하다. 그분께서는 아브라함을 그의 본토 친척으로부터 분리하셨고 후에는 이스라엘을 이집트로부터 분리하셨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 살게 된 이스라엘 민족의 분리는 이미 그곳에서 살고 있던 다른 민족들을 제거하는 것을 의미했다.

이스라엘의 왕정 시대에는 13번의 비극적인 징벌이 이스라엘 위에 내렸다. 그때마다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스라엘이 악의 모양, 악의 도구, 악한 무리와 국가들로부터 분리하는 것이었다. 신약 성경도 성도들이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야만 함을 명백하게 가르친다. ‘비극적 교회’였던 고린도교회를 가리키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썼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공평하지 않게 멍에를 같이 메지 말라. 의가 불의와 무슨 사귀음을 갖겠느냐? 빛이 어둠과 무슨 친교를 나누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무슨 일치를 보겠느냐? 혹은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무슨 몫을 나누겠느냐? 하나님의 성전이 우상들과 무슨 합의를 보겠느냐? 너희는 살아 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니라.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안에 거하고 그들 안에서 거닐며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니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고후 6:14-18).

오순절 운동이 계속해서 모습을 드러내면서 ‘피리 부는 사나이’는 기독교인들의 ‘분리’라는 드라마를 예의 주시하고 있다. 성도들은 이미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가지고 있으므로 신속히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아합 왕 시절의 긴장감 도는 순간에 대언자<sup>2)</sup> 엘리야가 이스라엘에게 물었던 그 질문이 지금 이 순간에도 참으로 적합한 것 같다.

엘리야가 온 백성에게 가서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두 의견 사이에서 머뭇거리려 하느냐? 만일 **주**께서 하나님이면 그분을 따르라. 그러나 만일 바알이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하였으나 백성이 그에게 한마디도 응답하지 아니하므로(왕상18:21)

---

2) 원래 ‘Prophecy’ 혹은 ‘Prophet’은 남의 말을 받아 대신 전한다는 뜻의 ‘대언하다’, ‘대언자’로 번역되어야 한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이것들을 대개 ‘예언하다’, ‘선지자’로 번역하여 이것들이 마치 앞날을 예측하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만들어 은사주의를 부추긴 측면이 있다. 그러나 이것들은 반드시 ‘대언하다’, ‘대언자’로 번역되고 그렇게 이해되어야 한다.

## 제2장

# 오순절 운동과 신비주의

### 음란한 세대

기적들! 그들은 신비한 어떤 것들로부터 무엇인가를 원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선생님께서서 나오는 표적을 보기 원하나이다.”(마12:38) 이처럼 우리 귀에 익숙한 요구가 우리 구원자 예수님의 귀에까지 들렸던 것이다. 지난 수천 년 동안 그분께서는 사람의 가슴속에 깊이 존재하고 있는 이런 욕망들을 보고 계셨다.

신비한 초능력을 직접 보려는 욕망은 언제나 사람들을 마술로 이끌었다. 야곱의 후손들은 이집트에 그런 신비한 일들이 매우 많음을 보고 현혹되었다. 이집트 왕 파라오(바로)의 마술사들이 놀라운 기적을 일으키는 능력은, 특히 이런 것들이 이집트의 신들(gods)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을 때, 유대인들의 가슴속에 깊은 감명을 주었다.

그러나 이런 신비주의를 추구해 보려는 그들의 욕망은 결국 이집트 탈출 뒤 시나이산에서 큰 재난을 불러일으켰다. 그들은 아론에게 이집트 신의 보이는 형상인 금송아지를 만들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방신들이 보여 주는 신비한 능력과 그들의 임재를 바라는 깊은 갈망은 결코 그들을 떠나지 않았다.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의 삶이 시작된 지 채 200년이 되기도 전에 그들은 또다시 과거 자기들의 조상들이 갈망해 오던 것의 희생물이 되고 말았다. 초자연적 능력을 보려는 욕망은 결국 이스라엘 국가의 몰락을 가져오고 말았다. 그들은 그 같은 사악함 속에 폭 빠져들게 되었고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우상 숭배로 가득한 땅 바빌론으로 추방하셨다.

그때로부터 약 500여 년의 세월이 흘러갔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를 구속하실 때가 되었다. 바로 그때에 고대로부터 그들이 갈망해 오던 욕구가 갑자기 되살아났다. 다시 말해 그들은 어떤 신비하면서도 알려지지 않은 비밀이 자기들 눈앞에서 벌어지기를 고대했던 것이다. 또한 그 같은 신비는 그들의 육신의 오감(五感)을 통해 뚜렷이 드러나야만 했다. 확실히 그 신비는 손으로 만져지며 눈에 드러나는 형태를 통해 인지될 수 있어야만 했다.

이같이 정당화된 요구에 대해 우리 주님께서서는 다음과 같이 단호하게 말씀하셨다.

그분께서 그들에게 응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대언자 요나의 표적 외에는 내가 아무 표적도 그 세대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요나가 밤낮으로 사흘 동안 고래 배 속에 있었던 것같이 그렇게 사람의 아들도 밤낮으로 사흘 동안 땅의 심장부에 있으리라(마12:39-40).

이 구절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표적’이란 단어를 사용하신 것은 참으로 의미심장하다. 그것은 그리스어 ‘세메이온’(Semeion)을 번역한 것으로 ‘표시’ 혹은 ‘드러남’ 등을 의미한다. 바인 박사(Dr. W. E. Vine)는 신약 성경 단어 강해 사전에서 이 단어를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이 단어는 신성의 권세나 권능의 표시로서 일어난 기적적인 일들의 표적, 마크, 드러남, 표시 등을 의미한다. 예들 들어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사도들 역시 예수님처럼 유대인들로부터 똑같은 요구를 받았음을 보여 준다.

비록 예수님께서 자신의 교회의 초기 사역 기간에 기적들을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을 사도들에게 주셨지만 이 같은 것들은 곧바로 없어지기 시작했다. 그 이유는 ‘믿음’과 ‘보는 것’이 공존하는 것이 비생산적이라는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분은 보지 않고 믿는 믿음을 원하셨다(히11:6). 성경은 믿음이 눈에 보이는 초자연적인 능력과 함께 병행되었을 때 항상 쉽게 시들게 되고 부패하게 됨을 보여 준다. 사도 바울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히11:1)라고 말해 주었듯이 믿음은 반드시 홀로 서야만 한다.

그런데 또 다른 일이 벌어졌다. 사탄이 초자연적이며 신비한 생산품으로 가득한 자신의 시장바구니를 갖고 되돌아온 것이다. 그래서 고대로부터 이슈가 되어 왔던 욕망, 즉 눈에 보이는 초능력에 대한 인류의 욕망이 되살아났다. 그것은 먼저 고린도에 있었던 ‘불행한 교회’ 안에서 생겨났고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한다.”라고 경고해야만 함을 느꼈다(고전1:22). 사실 이때 사도 바울은 초능력의 증거를 요구하는 인류의 욕망에 관한 불행한 역사를 회고했던 것이다.

### 자석과 같은 신비주의

그리스의 남부 도시 고린도에서는 이상한 형태의 무아지경에 이르는 현상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복음 전파를 돕기 위해 예수님의 승천 이후 첫 번째 오순절에 주어졌던 원래의 방언, 즉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었던 타 지방의 말(타 언어)은 이미 사라져 버렸다. 그것 대신에 알아들을 수도 없고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이상한 모조품 방언’이 들어서게 되었다. 사도 바울의 의심은 또 다른 사실로 인해 더 증폭되었다. 정상적으로 성경을 가르치던 것이 이상하고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대체되었기 때문이다. 결과적으로 건전한 교리는 무시되었고 오류들이 기승을 부리며 경건한 질서가 없어지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신비주의가 고린도 교회 안에서 득세하게 되었고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만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고전14:32-33).

여기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혼란’(confusion)은 말 그대로 ‘소용돌이’ 혹은 ‘확고히 서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이 같은 혼란이 생긴 까닭은 고린도 교회의 어떤 성도들이

‘알지 못하는 타 언어’(unknown tongue)를 하는 동안 ‘이상한 영’의 지배하에 있었기 때문이었다. 다시 말해 그들의 영은 그들의 지배하에 있지 않았고 결론적으로 그들은 어떤 누군가에 의해 조종을 받았다. 사도 바울이 경고했듯이, 그것은 예수님의 방법이 아니었다. 명백하게도 이교도들의 신비주의가 고린도 교회를 침투했던 것이다.

실제적으로 볼 때 고린도 교회의 문제는 사람들의 피동성으로 인해 생기게 되었다.<sup>1)</sup> 그곳 성도들 가운데 일부는 분명히 명상 등을 통해 자신들을 전적으로 무기력한 상태에 빠지게 만들었다. 웹스터의 「신 20세기 영어 사전」은 피동적인 상태를 다음과 같이 묘사한다.

신비주의자들 중에는 혼이나 다른 지적 기관들의 활동을 중지하도록 하는 사람들이 있다.

창조 이후로 인류를 기만해 온 ‘인간 영혼의 원수’인 마귀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 얼마에게 아무런 저항 없이 들어갈 수 있었다. 왜냐하면 그들이 신비주의라는 소용돌이를 스스로 택했기 때문이었다.

「웹스터 사전」에서 신비주의는 ‘인간의 어떤 이성을 통하지 않고 명상(사색)과 사랑을 통해 신과의 접촉을 이룰 수 있다고 믿는 믿음’으로 정의되어 있다. 사도 바울은 이미 고린도 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그러면 어찌해야 하겠느냐? 내가 영과 함께 기도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기도하며 내가 영과 함께 노래하고 또한 이해하면서 노래하리라(고전14:15).

이러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신자들은 이해를 무시하는 신비주의의 길을 선택했고 그 결과 대언자들의 영은 더 이상 대언자들에 의해 통제를 받지 못했다.

고린도전서 1장은 신비주의의 토대를 잘 보여 준다. 신비주의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더 이상 홀로 영광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즉 “나는 바울에게 속한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다.”, “나는 게바에게 속한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는 곳에서 짝뚫다.

어느 누구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달리신 그분을 제외하고는 너희 가운데서 어떤 것도 알려 하지 않기로 결심했다.”는 바울 사도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심지어 그들은 “아무도 이미 놓인 기초, 즉 예수 그리스도라는 기초 외의 다른 기초를 놓을 수 없다.”는 사도의 권면도 무시하고 말았다. 왜 그랬을까?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신비주의라는 또 다른 기초 위에 자신들의 집을 짓고 있었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의 초자연적인 능력에 대해 자랑스러워했고 사도 바울을 경멸했다. 그때에 사도 바울은 더욱더 강력한 말로 그들에게 경고했다.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

1) 입신, 방언과 표적, 축사, 관상 기도 등의 신비주의는 사람들이 정신을 잃게 하고 스스로를 통제하지 않게 하는 피동성을 항상 이용한다. 사람이 능동적으로 이성적으로 사고를 하면 신비주의는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이것은 부록에 자세히 설명되어 있다.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고후11:13-15).

## 사탄이 교회에 침투하다

사탄의 손에서 고린도 교회를 구해 내려는 노력의 마지막 일환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권위를 재확인하려 했다. 이를 위해 그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들과 계시들을 자신의 적들의 것들과 비교했다. 물론 이렇게 하면서 바울은 스스로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좋지 못함을 인정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자랑하는 것이 물론 내게 유익하지 아니하지만 내가 주의 환상들과 계시들로 나가리라... 내가 사랑함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나에게 시켰느니라.”(고후12:1, 11)고 고백했다.

바울은 “뱀이 자기의 간교함으로 이브를 속인 것같이”라고 말함으로써(고후11:3) 자신이 두려워하는 바가 무엇인가를 확증했다.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뱀에 의한 ‘다른 예수’와 ‘다른 영’ 그리고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이를 분별한 사도 바울은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였는가를 시험해 보았다(요일4:1). 그는 눈으로 초능력을 확인해 보려는, 고대로부터 내려온 인류의 욕망이 바로 ‘신비주의’이며 그것이 고린도 교회에 파급되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리고 그는 그 광경 뒤의 희미한 그림자 속에 사탄이라는 존재가 우뚝 서 있음을 보게 되었다.

드디어 ‘사람의 영혼의 원수’인 마귀는 교회 속으로 침투해 들어왔다. 주후 2세기경에는 ‘새로운 예수’와 ‘새로운 영’을 따르는 이들이 많이 생겨났다. 역사학자 칼벤(Lars P. Qualben)은 「기독교회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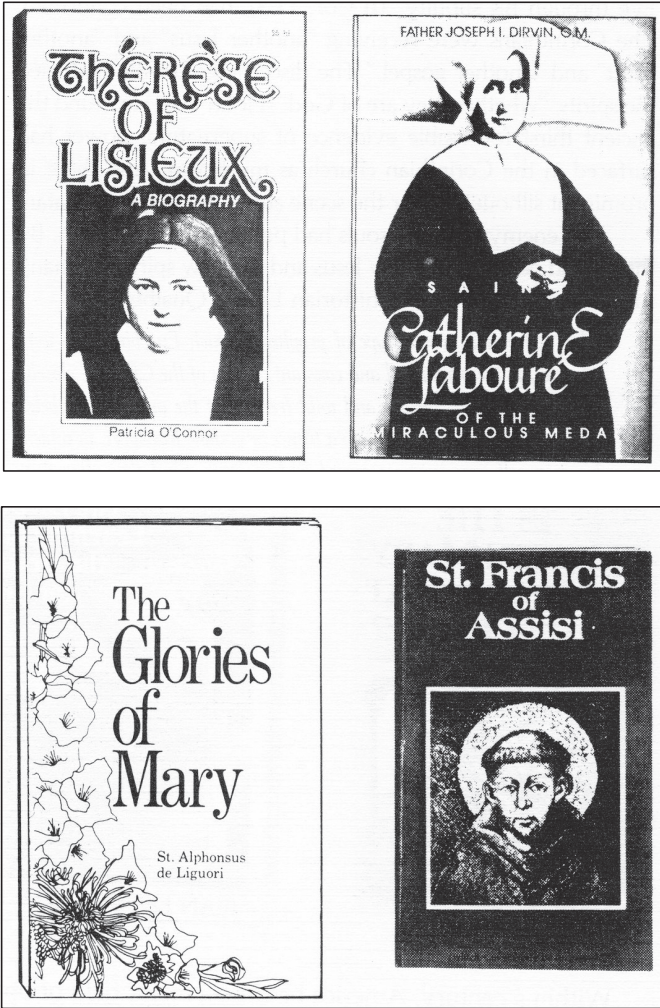
그들은 새로운 형태의 예언을 도입했다. 유세비우스는 그것이 전통적으로 지속되어 왔던 교회의 규례들과 상치하며, 황홀경 속의 이상이나 키벨레(Cybele) 제사장들의 광적인 행태들과 비슷하다고 말한다.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완전히 사로잡아 자신들을 통해 말하게 될 때 무아지경에 빠져들어가 의식이 사라지고 마음은 완전히 피동적이 된다고 주장했다. 유세비우스는 이 같은 황홀경 속에서 어떤 몬타니스트 예언자들이 ‘중얼중얼거리며 이상한 소리들을 내기 시작했다’고 말한다. 사실 이런 것들은 19세기의 어빙주의자들과 그 뒤 유사한 형태의 회중들이 행하던 ‘살라살라...’ 혹은 ‘랄라라라...’와 비슷했다.

그때로부터 수 세기가 지났고 로마 카톨릭교회가 전 세계의 종교를 장악하기 시작했다. 천주교의 수녀원들과 수도원들은 자신들의 초자연적 경험들을 기록하느라 일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들로 가득 차게 되었다. 그들은 이상(환상)을 보았고 이상한 말들을 했으며 수없이 많은 계시를 받았다. 그들은 다름 아닌 신비주의자들로서 명상을 통해서 자신들이 남들보다 우월한 ‘영성’(spirituality)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다.<sup>2)</sup>

카톨릭 신비주의에 깊이 빠진 사람들 중 유명한 사람들로서는 기적 메달의 가타리나 라브레, 리지외의 테레사, 아시시의 프란시스, 끌레르보의 베르나르, 예수회의 창시자로서 「영성 훈련」(*Spiritual exercise*) 교재를 만든 이냐시오(이그나티우스) 로욜라,

2) 요즘 국내에 소개되고 있는 많은 경건 서적들이 실제로 카톨릭 작품이다. 부록 24에 실린 ‘카톨릭 영성에 중독된 한국 교회’를 참조하기 바란다.

프란시스 사비에르, 노리치의 수녀 줄리안 등이 있다. 알폰소 드 리구오리는 그가 기록한 계시들로 인해 바티칸으로부터 ‘교회의 박사’란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 그가 지은 「마리아의 영광」이란 책만큼 반(反)기독교 책은 이 세상에 없을 것이다.<sup>3)</sup>



로마 카톨릭 신비주의 책들

- 〈리지외의 테레사〉, 〈가타리나 라브레〉
- 〈마리아의 영광〉, 〈아시시의 프란시스〉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천주교의 유래」(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경건치 못하며 초자연적인 현상들을 갈구하는 것이 고대로부터 늘 사람들 사이에 있어 왔지만, 이런 것을 추구하는 운동의 현대적 기원은 1819년 영국에서 일어난 에드워드 어빙(Edward Irving)의 목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스코틀랜드 장로교인이며 유능한 설교자였던 어빙은 자신의 성공으로 인해 자만하게 되었다.



로마 카톨릭 신비주의, 오순절주의 책들

〈메추고리에의 동정녀 마리아〉, 〈수도원 문화에 대한 연구〉  
 〈에드워드 어빙의 생애〉, 〈오순절의 뿌리 아주사 거리〉



마치 사탄이 타락했던 것처럼 어빙도 개인의 교만을 통해 똑같은 멸망의 길에 들어섬으로써 영적 비극을 맛보았다. 1828년 드디어 어빙은 ‘그 영(靈, spirit)에 의해’ 초능력과 초자연적 경험의 영역으로 빠져들어 갔다. 인간의 타락이라는 교리를 거부하면서 그는 황홀경, 이상, 방언, 신비한 일들, 무질서, 감정주의, 계시 그리고 오늘날의 오순절 운동의 이단 교리들을 추구하고 받아들이며 다른 이들에게 가르쳤다.<sup>4)</sup>

그때로부터 채 1세기가 지나지 않아서 미국은 오순절 운동의 대 활극장이 되어 버렸다. 1895년에 일어난 벤자민 어윈의 ‘불 침례 성결교회’는 미국 서부로 퍼져 나갔다. 캔자스주 토페가에 있었던 파르함(Charles Parham)의 성경 학교는 1900년에 ‘오순절 운동’의 중심지가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1906년의 ‘아주사 거리’ 현상으로 발전되었고 그때부터 오늘날의 전 세계적인 오순절 은사 운동이 나오게 되었다.

두말할 필요도 없이, 성도들을 유혹해 온 ‘피리 부는 사나이’는 자신의 초능력으로 놀랄 만한 성공을 이루게 되었다. 현시대 오순절 운동의 성장은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이다. 오순절주의에서 가장 존경을 받는 역사학자인 사이넨은 1985년 ‘오순절 연구 협회’ 모임에서 연사로 초청되었고, 그 모임에서 「기독교 세계 백과사전」의 저자인 바렛(David Barrett)이 만든 보고서를 인용했다. 그 보고서는 1985년도 현재 오순절 교도들의 숫자가 1억 6천 8백만 명이며 20세기 끝에 가서는 4억 4천만 명을 넘게 될 것이라고 기록했다.

그러나 그러한 예상이 모두 이루어지고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오순절 은사주의 지도자들은 무서운 진실 앞에 정면으로 서야만 할 것이다. 바로 그날은 오순절 운동이 아무리 순수해도 결국 신비주의였다는 사실을 드러낼 것이다. 지금까지 세상은 오랄 로버츠(Oral Roberts)로부터 짐 베이커(Jim Bakker)에 이르기까지, 미주리주로부터 극동 지방에 이르기까지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이상들, 계시들, 음성들, 기적들 그리고 다른 초자연적 현상들을 동반하는 신비주의의 장면들을 보아 왔다.

이런 것들은 상상에서 나오는 꾸민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적인 것들이다. 지금까지 이 책을 읽어 온 독자들은 오순절 운동을 이끌고 가는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더 듣게 됨에 따라 신비주의의 참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더 확실히 깨닫게 될 것이다.

---

4) 원래 책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의 부록 ‘오순절 운동의 역사적 고찰’을 참조하기 바란다.

## A VISION

GIVEN BY GOD TO JIMMY SWAGGART

About 9:15 a.m. on the morning of July 1, 1985, I was praying, and seeking God, asking His guidance and direction.

I had been praying about fifteen minutes when His presence started to envelope me. I sensed greatly the moving of the Holy Spirit, and then I started to see what the Lord was trying to portray to me. I believe it was a vision that I saw. I cannot tell what type of vision, but I suppose that's not important at the time. This is what God portrayed to me.

I saw spread out before me, as far as the eye could see in all directions, great fields of cotton. The cotton was ready to be harvested, and I've never seen such an abundant crop. The limbs were literally bending over under the weight of the full-blown balls that had opened completely. It seemed like each stalk was one gigantic ball of cotton.

I stood looking at it, literally transfixed by the sight before my eyes. When I was a boy I had remembered seeing a field of cotton that would probably harvest two to three bales to the acre, but this field would seem to harvest far beyond that.

As I mentioned, I stood surveying this scene, and my attention was directed to my left. And as I turned to look, I saw something that was a fearful sight. The heavens were literally billowing with black angry clouds, right over the horizon. Jagged forks of lightning were playing through the heavens. The clouds were the ugliest and blackest that I've ever seen in all of my life. They seemed to be boiling and rolling, and were heading straight towards the thousands and thousands of acres of

### 하나님이 스웨가트에게 준 환상

1985년 7월 1일 아침 9시 15분경. 나는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며 기도를 드리고 있었다. 약 15분 정도 기도했을 때 나는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의 움직임을 느꼈고 어떤 꿈같은 것을 보았다. 그 꿈 속에서 큰 목화밭이 펼쳐졌고 목화들이 무르익어 수확을 기다리고 있었다. 그 광경을 보다가 왼쪽을 보니 시커먼 구름이 하늘을 덮고 있었고 이쪽의 목화밭을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내가 뒤를 돌아보니 거기에는 목화 따는 기계들이 몇 대 있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빨리 서둘러라. 폭풍우가 다가오니 수확하지 못한 목화들은 모두 상실될 것이다. 콤바인들을 동원해라.'

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나는 마지막 때의 수확을 거두어들이기 위해 다른 어떤 사역도 지정한 적이 없으며 오직 이 사역(즉 자기 사역)만 지정했다. 그러니 너는 반드시 TV를 통해 그것을 해야만 한다. 그것만이 단시일에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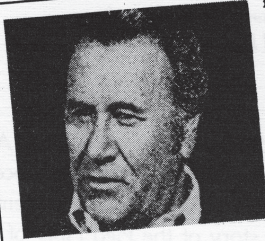
'너는 가능한 한 세계 모든 나라에 방송을 해야만 한다.'

그 영(靈)은 자신이 이미 자물쇠에 열쇠를 넣고 돌려놓았으니 이제 남은 것은 그(스웨가트)가 문을 여는 것뿐이라고 말했다.

'나는(하나님) 온 세상의 교회들이 그들 주변 사람들을 담당하도록 사명을 주었다. 그런데 오직 이(스웨가트) 사역은 전 세계 사람들을 상대로 한 것이다. 그리고 TV만이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THE BOSTON GLOBE

SATURDAY, NOVEMBER 1, 1980



**ROBERTS**

Evangelist Oral Roberts' self-proclaimed encounter with a 900-foot Jesus apparently has paid off in a big way. Roberts had sent out a fund-raising letter for his new hospital which told of his meeting the giant Jesus, who assured Roberts that the hospital would be built. A spokesman for Roberts in Tulsa, Okla. said almost \$5 million has been raised so far in response to the letter.



Demos Shakarian

*Our Vision*

*Our vision for the Fellowship is based upon a series of prophetic messages given over a period of time and confirmed by a literal vision from God.*

*In the vision, untold masses of men from every continent and nation, of all races and diverse culture and costume, once spiritually dead, are now alive. Delivered and set free, they are filled with the power of God's Holy Spirit, faces radiant with glory, hands raised and voices lifting their praises to heaven.*

*We see a vast global movement of laymen comprised of millions of men being used mightily by God to bring this last great harvest through the outpouring of God's Holy Spirit before the return of our Lord Jesus Christ.*

*Demos Shakarian's vision. He founded the Full Gospel Business Men's Fellowship International in 1950 under the guidance of Oral Roberts. The purpose was to extend Pentecostalism outside of its churches.*

자신이 300미터 높이의 거인 예수를 만났다고 주장하는 오랄 로버츠

그는 자신의 새 병원 건축 기금을 위한 호소 편지에서 그 거인 예수가 병원이 완공될 것을 자기에게 확신시켜 주었다고 주장했다. 그의 대변인은 그 편지로 인해 오백만 달러가 모였다고 말하였다.

샤카리안의 꿈

그는 로버츠의 지도하에 1950년에 순복음 실업인 협회를 창설했다. 그것의 목적은 오순절 교회 안팎의 교회들에게 오순절주의를 파급시키는 것이었다.

## 은사 운동과 천주교의 연합

교리 면에서 볼 때 오순절 운동은 교리적 편차가 무한대이며 엉망진창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이 운동은 통일성을 유지해 왔다. 그것이 가능했던 이유는 그 안에 어떤 공통분모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이 운동은 오순절 경험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경험들은 초기의 ‘성령 침례’ 혹은 종종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sup>1)</sup>으로 불리는 현상을 포함한다. 그리고 이런 경험들은 대개 타 언어(방언)와 함께 생기며 그 안에는 또한 ‘황홀경에 빠지는 것’, ‘입신하는 것’, ‘이상과 환상을 보는 것’, ‘몸을 구르는 것’ 등도 있다. 이로 인한 공통분모는 서로 다른 교리로 인한 차이점들을 모두 하나로 만들어 버렸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서로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고 서로 다른 교파에 속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모두 공통성을 띠고 있다.

### 새로운 이름

오순절주의를 하나의 운동으로 구별해 주는 이런 특징들은 지금도 전혀 변하지 않았다. 그것들은 200여 년 전 에드워드 어빙 시대에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하나도 변하지 않은 채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 반면에 오순절주의 안에서 사용되는 명칭, 계략, 행동 방법 등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했다.

오순절 은사주의에는 먼저 새로운 이름이 붙기 시작하였다. 1950년까지만 해도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주의’(Pentecostalism)란 말에 대해 큰 반감을 가지고 있었으므로 ‘은사주의’(Charismatic)라는 말이 ‘오순절주의’를 쉽게 파급시킬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선택되고 사용되었다. 그 당시 하나님의 성회 감리사였던 짐머맨(Thomas Zimmerman)은 1983년 1월 7일자 「크리스챤너티 투데이」에서 “자신이 ‘은사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서는 기뻐했지만 ‘전통적 오순절 은사주의자’라고 불리는 것은 싫어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이 너무나 진부했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속임수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정체를 알아차리지 못하게 되었고 그 결과 그들은 큰 성공을 거두게 되었으며 ‘전통적 오순절주의’는 새로우며 색다른 ‘은사 운동’과는 별개의 것으로 취급받게 되었다. 이런 악의에 찬 속임수는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

그 뒤 전략상 큰 변화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때까지만 해도 오순절 운동은 비오순절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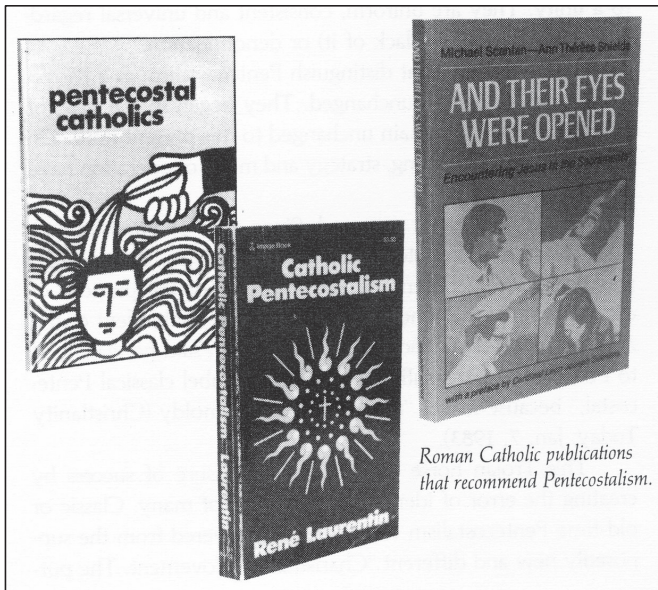
1) 정신을 잃고 뒤로 넘어지는 현상으로 한국에서는 대개 ‘입신’이라고도 부른다. 그러나 실제로 이것은 쓰러뜨리는 현상이다. 자세한 것은 부록을 참조하기 바란다.

교도들과의 분리 노선을 취해 왔다. 그런데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 이 같은 분리 노선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게 되었다. 현재 이 운동은 원래의 오순절주의의 본고장을 훨씬 넘어선 영역으로 침범해 들어오고 있다. 심지어 배도한 로마 카톨릭교회와 그리스 정교회, 성공회, 루터 교회 등도 오순절 경험들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자신들의 교리는 전혀 바꾸지 않고 말이다. 현재 화해와 일치와 형제 사랑이라는 달콤한 난류가 오순절 은사주의의 바다의 이곳저곳에서 흘러넘치고 있다.

### 오순절 운동, 천주교에 들어가다

오순절 운동의 천주교 침투와 그 안에서의 성장은 1966년에 시작되었다. 그 이후로 바티칸에 충성을 다하는 신도들이 오순절 책들을 많이 읽고 있다. 월커슨이 저술한 「십자가와 칼날이 튀어나오는 나이프」(*The Cross and the Switchblade*)라는 책과 셰릴이 지은 「그들은 다른 방언으로 말한다」(*They Speak With Other Tongues*)라는 책은 전 세계 카톨릭 그룹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뒤 많은 천주교인들이 오순절 경험을 구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천주교인들은 자신들 스스로 오순절 운동의 그 영(靈)을 받아 보려고 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여러 달을 기다린 후에 마침내 그들은 단 하나의 대안으로 남은 것을 선택했다. 경험을 갈구하던 신실한 천주교인들은 마침내 천주교회 밖에서 도움을 구하기로 결심을 했다. 그 도움은 결국 전통적 오순절주의자들로부터 나오게 되었고 오코너 신부는 「오순절 운동」이라는 책에서 그 이야기를 다음과 같이 말해 준다.



오순절주의를 추천하는 천주교 책들

〈오순절 카톨릭교도들〉, 〈카톨릭 오순절주의〉, 〈그들의 눈이 열렸다〉

어떤 사람이 은사 경험이 많은 레이 불라드(Ray Bullard)라는 이름의 남자를 알게 되었다. 그는 곧 불라드에게 전화를 했고 그다음 주에 그 그룹은 불라드의 집에서 열리는 기도회에 참석해도 좋다는 허가를 받았다. 그 당시 불라드는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사우스 밴드 지부 회장이었다. 그는 또한 사우스 밴드에 있는 하나님의 성회에 속한 갈보리 회막 교회의 집사였고 거기에서 큰 활동을 하고 있었다... 불라드는 자신의 집 지하실에서 주중 기도회를 인도해 오고 있었다... 이 기도회는 1967년 3월 13일 월요일 저녁, 신기한 눈초리로 그의 집에 갔던 9명의 천주교인들이 놀랄 만한 일을 성취하게 해 주었다.

불라드 자신도 대학교에 다니는 지성인들을 그런 자리에서 만난다는 사실로 인해 어느 정도 어리둥절하고 있었다. 그들이 일으킬지도 모를 반대를 해결하기 위해 그는 몇몇 유명한 오순절주의 목사들을 초청했다. 목사들 중 한 명이 성령의 은사들에 대해 말했고 다른 이가 몇몇 질문들에 대해 답변을 했다. 그 뒤 그곳에 있었던 20여 명의 오순절주의 교도들은 노트르담 그룹 주위로 모여들었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다. 물론 그들은 방언으로 기도했고 순식간에 하나, 둘, 셋, ..., 일곱, 여덟, 노트르담 그룹 사람들도 방언으로 기도를 시작했다.

그 이후로 바티칸의 충성된 교도들 가운데 수백만 명의 카톨릭 오순절주의자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들은 오순절 경험뿐만 아니라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과 교리에 대한 충성심이 매우 뛰어나므로 다른 이들과 쉽게 구별된다. 마르틴 루터의 종교 개혁을 타파하기 위해서 열린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의 트렌트 공회'가 규정한 중세 천주교회의 이상이 여전히 그들의 가슴속에 그대로 남아 있다. 제2 바티칸 공회의 4명의 중재자들 중 하나인 수에넨스 추기경은 그 운동을 '새로운 오순절'이라고 부른다.

### 공통 능력과 종교 일치 통합

이제는 천주교 오순절주의자들도 전통적 오순절주의가 주장하는 능력들을 공유하고 있다. 물론 그들은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도 초능력은 행한다. 또한 천주교 오순절주의자들은 오랄 로버츠, 캐트린 쿨먼, 렉스 험바드, 에이미 맥퍼슨, 두 플레시스 그리고 오순절주의의 다른 슈퍼스타들의 능력을 오히려 능가하고 있다. 그들 간에 존재하는 커다란 교리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초교파적인 그룹들은 공통적인 연대감과 영적 능력을 공유한다.

다양한 교파와 무리로 구성된 오순절 교도들 가운데는 놀랄 만한 조화가 존재하고 있다. 순복음 실업인 협회는 극렬한 천주교 사제들을 연사로 초청하는데 그 이유는 단지 그들이 오순절 경험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1981년에 있었던 순복음 실업인 협회 세계 회의에서 브라운 신부는 기조연설을 했다.

미국에서 나오는 「카리스마」(*Charisma*)라는 월간 잡지는 천주교인들이 아닌 오순절주의자들을 대변한다. 한편 천주교 오순절주의자들을 대변하는 오순절 잡지로는 「뉴코 베넌트」(*New Covenant*)가 있다. 그러나 사실 그 둘 간의 차이는 거의 없다.

오순절주의가 카톨릭교회에 침투해 들어왔을 때 바티칸의 에큐메니컬 사역(종교 통합 운동)의 비서로 일했으며 또 예수회의 회원인 비(Augustin Bea) 추기경은 큰

흥미를 갖고 은사 운동의 자취를 연구하였다. 그리고 그는 곧 오순절주의가 종교를 통합하려는 바티칸의 시도에 새로운 에너지를 불어넣어 줄 수 있음을 간파했다. 그 뒤 순복음 실업인 협회가 오순절 체험이라는 단 하나의 이유 때문에 철저한 천주교인들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로 받아들이는 것을 보며 그는 매우 흡족해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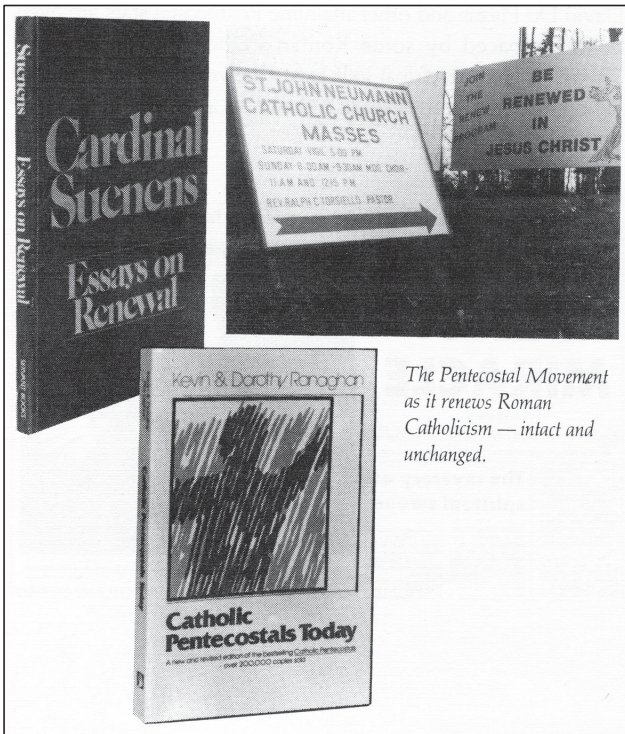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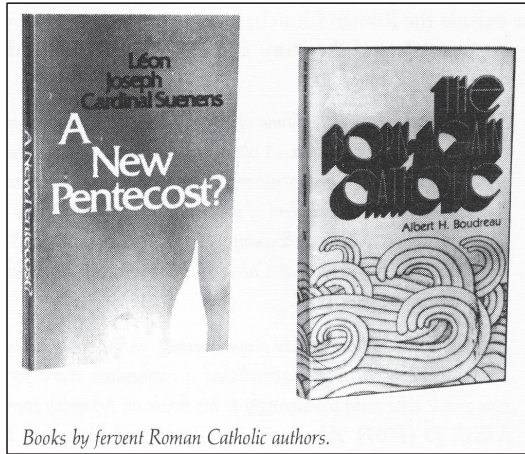
### 상호 간의 조화와 혼합 작전

대규모 스타디움들은 일치를 외치는 소리로 울렁거리게 되었고 1986년과 1987년에 루이지애나주 뉴올리언스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려는 계획들이 틀을 잡아갔다. 한편,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를 부르짖는 책들이 전 세계의 여러 교파들에 속한, 열의에 찬 오순절주의자들의 손에 계속해서 쏟아부어지고 있다.

지난 몇 년 동안 바티칸 실권자들과 오순절주의 지도자들 사이에 여러 차례 모임이 진행되었다. 이 같은 모임에 늘 참석했던 수에넨스 추기경은 1977년에 캔자스시티에서 열렸던 회의에서 연설을 했다. 그와 짐머맨(하나님의 성회), 패터슨(그리스도 안의 하나님의 교회), 버넷 주교(성공회)는 수많은 대중 앞에 함께 서서 유례없는 일치 쇼를 보여 주었다(「위력적인 강과 같이」(*Like a Mighty River*)).

1985년 11월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들은 메릴랜드주 게이서스버그에서 사흘간의 집회를 가졌으며 오순절 성결교회의 부감리사였던 사이언 박사가 그 만찬 집회의 연사로 초빙되었다. 그 모임의 의장은 캘리포니아주 애나하임에 있는 멜로디랜드 학교의 총장을 지냈고 지금은 크리스천방송네트워크(CBN)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는 윌리엄스 박사였다. 그 모임에서 천주교회의 호켄 신부는 오순절 연구 협회 회장으로 지명되었다. 카톨릭 수도승인 레클릭 신부와 마틴 신부가 그 모임에서 연설을 했다.

종교 통합 일치 운동이 전개되는 과정은 흔들흔들거리면서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다. 그리고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전 세계적인 종교 연합체에 대한 바티칸의 꿈이 실현될 때, 오순절주의자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이런 것이 실현될 수 있는 도구로 자신들이 사용된 것에 대한 책망을 받게 될 것이다.



열렬한 카톨릭 저자들의 책들

〈새로운 오순절〉, 〈중생한 카톨릭교도〉

오순절 운동은 카톨릭주의를 새로 태어나게 하고 있다.

수에넨스 추기경의 〈부흥에 대한 에세이〉(윗줄 왼쪽), 〈카톨릭주의의 거듭남에 대한 프로그램 광고〉(윗줄 오른쪽), 〈오늘날의 카톨릭 오순절주의자들〉(아랫줄)





Roman Catholic miracle-producing priests.

로마 카톨릭교회에서 기적을 일으키는 신부들

〈병 고치는 능력〉, 〈성령으로 불붙이지〉

〈병 고치는 소명〉, 〈병 고침〉



Full Gospel Business Men's Fellowship 1981. Convention with President Demos Shakarian and Roman Catholic priest Braun. Father Braun's feature message 'Mashed Potatoes - Total Unity' was wildly applaude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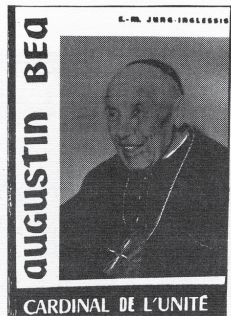


Interchange: Old-time Pentecostalist David du Plessis on the front cover of Roman Catholicism's New Covenant magazine. Mother Angelica appears on Charisma, a Pentecostal Movement monthl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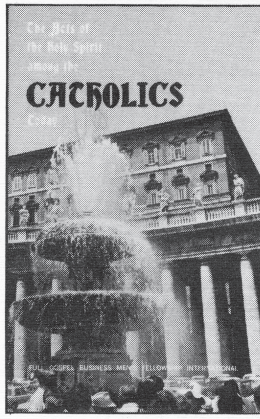
### 1981년도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모습

의장인 샤커리안과 브라운 신부가 함께 회동했다. 이 모임에서 브라운 신부는 '전적인 일치를 위해 감자를 으개지라는 제목의 기초연설을 통해 큰 박수갈채를 받았다.

개신교 은사 잡지인 '카리스마'에는 카톨릭교회의 앤젤리카 수녀가 표지에 실려 있고 로마 카톨릭 은사 잡지인 '뉴코벤넌트'에는 오순절주의자인 두 플레시스의 사진이 표지에 실려 있다.



*Jesuit Augustin Bea reports on progressing unity between Pentecostalism and Catholicism.*



*The Full Gospel Business Men's Fellowship claims in the above book these doctrines: purgatory, prayers to saints, sacramental grace, penance, good works for salvation, indulgences, mortal sins and that believing Roman Catholics are born-again.*

# Our Mission Together

*Dr. Vinson Synan believes that Pentecostals and Catholic charismatics and Protestant charismatics are called to stand together.*

**an interview with Dr. Vinson Synan**



the oldest Pentecostal denominations.

Dr. Synan had learned about the Catholic charismatic renewal several years before and had discussed it briefly in his book *The Holiness-Pentecostal Movement in the United States*, published in 1971. But at heart he couldn't quite believe that Roman Catholics were really experiencing the same Holy Spirit he knew. When he was growing up Catholics had called Pentecostals "holy rollers," and Pentecostals had considered Catholics somewhere in a class with rattlesnakes and Communists. He wasn't quite sure what to expect of people who called themselves "Catholic Pentecostals."

Synan later wrote in his book *Charismatic Bridges*. "I hurried to the building and was flabbergasted to see over 10,000 already gathered for the informal meeting. . . .

"The tongues, prophecies, scriptures, homilies, and choruses came forth with such power and conviction that I was quite literally overwhelmed. They were singing 'our' songs and exercising 'our' gifts. It was more than I could take. A kind of cultural and theological shock sent me running to a rest room, where for about 15 minutes I was unable to do anything more than weep."

From that moment Vinson Synan has been a constant voice of encouragement and support

위의 왼쪽 책: 예수회 회원인 비는 오순절주의와 카톨릭 사이의 일치가 진행됨을 보고하였다. 위의 오른쪽 책에서 순복을 실업인 협회는 다음과 같은 교리들을 주장한다: 연옥, 성인들에 대한 기도, 성사를 통한 은혜, 선한 행위에 의한 구원, 면죄부, 대죄(즉 구원을 잃어버리는 큰 죄) 등.

우리의 공동 사역: 사이언 박사는 오순절주의자들과 카톨릭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프로테스탄트 은사주의자들이 함께 일하도록 부름을 받았다고 믿는다.

# CALL TO UNITY



## PTL CLUB

...A man slowly walked onto a stage. Happily he approached his boss.  
As a cheering crowd announced his presence, the man held out a piece of paper—a match was lit, cameras flashed and applause filled the TV studio.  
As the Heritage USA's mortgage ignited into flame, the boss slowly looked up into the camera...and smiled.

The PTL Club May Now Be Seen On WMUR-TV At 6 A.M. Monday - Friday

Page 8

Vicki Jamison Returns To Television  
Page 10



Congress '82 Scheduled  
Page 4



Billy Graham Coming In '82  
Page 5

*Publications (on this page and next) calling for unity of Catholic and Protestant Pentecostals.*

20 The Boston Herald Sunday, December 2, 1984

**Boston area's charismatic Catholics are guided by faith that God will heal**

## PRAYING FOR A MIRACLE

By JOE HEANEY

TRUCK driver Nick LaColla of North Quincy was a fallen-away Catholic who hadn't been to church in 20 years. Never picked up a Bible.

But something happened to change all that. To make him and his

50-year-old wife, Pat, mother of five children, devout, charismatic Christians. Something the LaCollas call miraculou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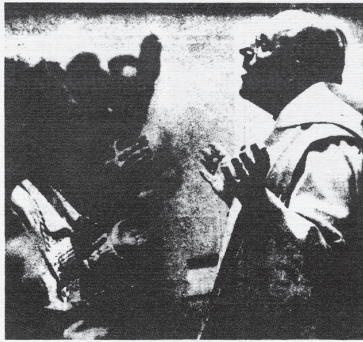
Through hard-core prayer to Jesus, the LaCollas say serious illness was cured and a troubled marriage turned strong and loving.

"We had almost given up," says Nick LaColla, 32, "but we both gained a lot of faith when we needed it. I never miss church

### The mystery of spiritual swo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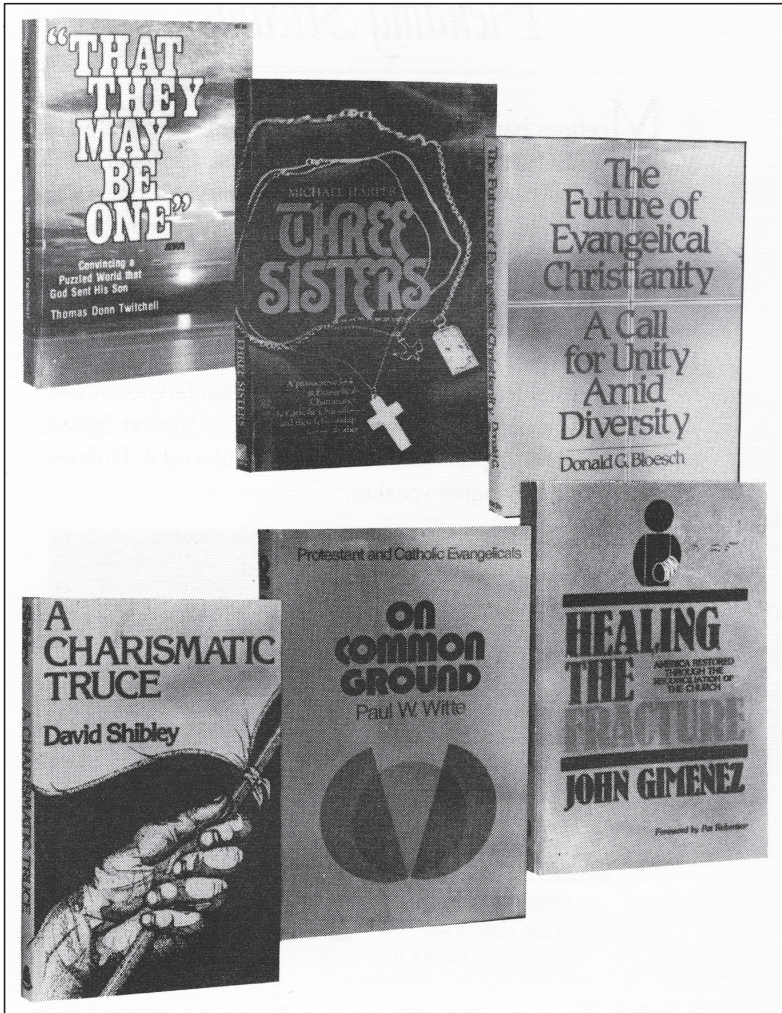
WHAT makes charismatic renewal wor-shipers swoon—or in the words of the Arch-bishop, be "slain (or overcome)" by the Holy Spirit? Do they enter a trance-like state of bewilderment or ecstasy; undergo a

(the director of charis-matic renewal ser-vices for the Arch-diocese of Boston, "We are seeking a stricter psychological definition. "We are also told it is an experience that occurs when people



THE Rev. Thomas A. DiLorenzo leads the faithful in prayer at a charismatic Catholic service at Sacred Heart church in Quincy. (Staff Photo by William Pado) diocese of Boston) pro- "We provide the val meeting and a cause Janet Black has

로마 카톨릭교도들과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일치를 호소하는 선전물  
매시추세츠주 보스턴 근방의 은사주의 카톨릭교도들이 하나님께서 고쳐 주신  
다는 믿음을 갖고서 기적을 위해 기도하고 있다.



로마 카톨릭 종교 일치 책들

1.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
2. <세 자매>(이반젤리네(복음주의자), 카리스마(오순절주의자), 로마(로마 카톨릭 은사주의자))
3. <복음주의 기독교의 미래>
4. <은사주의로 인한 휴전>
5. <공통분모 위에 있는 프로테스탄트 및 카톨릭 복음주의자들>
6. <금 간 것을 치유하며>

Dr. Vinson Synan. At the November, 1985 meeting of th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Synan outlined the coordination of Pentecostals with their Roman Catholic counterparts. He is now Chairman of the 1986 New Orleans Congress. Dr. Kevin Ranaghan, a Catholic, is a member of his committee. Roman Catholic priests John Bertolucci and Tom Forest are featured as speakers with Oral Roberts and Paul Yonggi Cho.



Father Peter Hocken and Rodman Williams. The priest from Mother of God Community, Gaithersburg, MD, was named 1986 President of th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Rodman Williams is professor at CBN University, Virgini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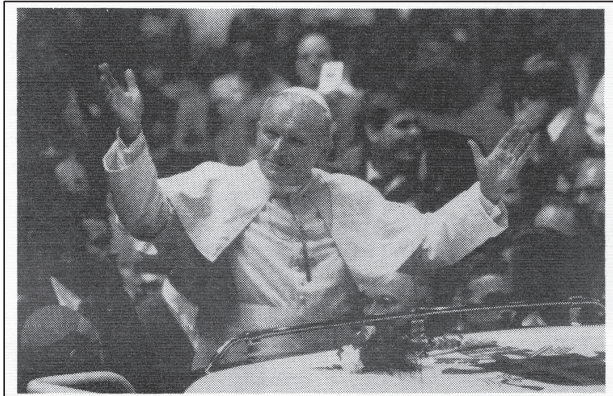
Father Jean Leclercq, an authority on the mysticism of medieval monastic culture speaks to th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on the topic "Spiritual Experiences."



Father Francis Martin addressing the Society for Pentecostal Studies.

1985년 11월 오순절 연구회 모임에서 사이언 박사는 오순절주의자들과 로마 카톨릭 은사주의자들 간의 연합에 대한 개요를 설명했다. 그는 1986년 뉴올리언스 회의의 의장직을 맡았다. 카톨릭교도인 라나간 박사는 그 위원회의 위원이다. 베르톨루에시 신부와 포레스트 신부는 오랄 로버츠 등과 함께 그 모임의 연사로 초빙되었다.

호켄 신부는 메릴랜드주의 게이서스버그에 있는 '하나님의 어머니 공동체'에서 왔으며 1986년에 오순절 연구회의 회장으로 선임되었다. 윌리엄스는 크리스천방송네트워크(CBN) 대학의 교수이다. 아래 왼쪽: 중세 수도승 문화의 신비주의에 대해 정통한 레클릭 신부가 '영성 체험'이라는 제목하에 오순절 연구회에서 강연하고 있다. 아래 오른쪽: 마틴 신부가 오순절 연구회에서 강연을 하고 있다.



*For 12 centuries papal Rome has planned and worked to impose church rule over mankind. Pressure has come through navies, armies (including the Nazi regime), torture and the stake. All have failed. Then in 1963, Pope John XXIII put in motion a Vatican II Council device for world religious unity. It was a vital step in a final thrust for success — the strategy of ecumenism. And the Holy See awaits with open arms and complete satisfaction as the Pentecostal Movement hastens that impending hour of disastrous triumph and vicious control.*

지난 12세기 동안 로마 카톨릭교회는 인류에게 로마 교회의 법을 강제로 따르게 하려 했다. 이를 위해 히틀러의 나치 정권을 포함한 군사력, 고문, 화형 등을 통한 압력이 사용되었으나 이것들은 모두 실패했다. 그러던 중 1963년에 교황 요한 23세는 세계 종교 통합을 위해 제2 비티칸 공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에큐메니즘(종교 일치)을 주도해 왔다. 오순절 은사 운동이, 그들이 오랫동안 갈구해 오던 인류 장악을 촉진하고 있으므로 교황청은 양손을 벌린 채 만족스러워 하며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 제4장

# 은사 운동과 종교 통합

이번 회의의 장소로 로마를 택했다는 사실은 여러분이 교황청에 중심을 두며 믿음과 사랑의 카톨릭 연합 안에 뿌리를 둔다는 것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특별한 표시입니다.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제4차 은사 운동 지도자들의 국제회의에서 위와 같이 말하였다. 1981년 5월 4일부터 9일 사이에 로마에서 개최된 이 모임에는 전 세계 은사 부흥 운동의 대표자 523명이 참석했다. 그 모임의 목적은 무엇이였을까? 다름 아닌 종교 일치 및 통합을 위한 명분과 정의를 얻기 위함이었다.

위의 연설은 바티칸 정원과 소위 루르드 지방의 '복 받은 동정녀'의 유물들이 있는 곳에서 행해졌다. 거기에서 교황은 은사 부흥을 위해 다음의 방법들을 제시했다.

이 원칙 중의 첫째는 권위 있는 믿음에 관한 교리에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이 교리와 모순되는 것은 무엇이든 성령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둘째로 여러분은 참된 교리라는 빵을 떼어 나눔으로써 영적 양분을 위한 단단한 음식물을 제공하는 데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셋째, 부흥의 지도자로서 여러분은 주교들과 신뢰와 협력의 띠를 매는 일에 솔선수범해야 합니다. 끝으로 여러분이 우리의 분리된 형제자매들(기독교인들)도 함께 나누고 있는 성령의 많은 은사를 체험했으므로, 성령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통합에 대한 욕망 안에서 그리고 에큐메니즘이라는 중대한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안에서 여러분이 성장하고 있다는 것이 여러분을 위한 특별한 기쁨이 될 것임을 나는 확신합니다.

국제 카톨릭 은사 부흥 운동 기구의 미국 협회 회원인 랄프 마틴은 전체 회원을 대표하여 교황의 말에 응답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 마음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과 하나님에 대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이 교회사 속에서 이 시대에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 당신을 보내셨다는 사실에 대한 감사라고 나는 생각합니다. 당신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과 힘을 가져다줄 것입니다... 거룩하신 아버지여[교황에게], 쉬울 때나 어려울 때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 주신 당신께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당신이 우리에게 해 주신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것을 모두 받아들이겠습니다.

여기 모인 모든 사람들과 세계 방방곡곡으로부터 온 부흥사들을 대신해서 나는 당신에 대한 우리의 충성과 사랑을 맹세하기 원하오며 또한 우리 교구 및 교회 내의 기도



집단들과 단체들이 당신을 섬기고 있음을 알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 말을 하고 난 뒤 마틴은 한 발짝 앞으로 다가가서 자신이 거룩한 아버지라고 말할 교황 앞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가 그렇게 하기 전에 교황은 그의 어깨를 잡고 격렬하게 그를 끌어안았다. 이 일에 대해 포레스트 사제는 이렇게 말했다.

그는 실제로 랄프를 강하게 끌어안았으며 심지어 모든 사진 기자들과 취재진들에게 더 잘 볼 수 있도록 가까이 오라고 손짓했다. 그것은 그가 우리를 지지한다는 몸짓을 하고 싶어 했음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그것이 제대로 보도되기를 바라는 것 같았다.

그 뒤 마틴은 대표단을 대신하여 전통적인 충성의 표시로서 무릎을 꿇고 교황의 반지에 입을 맞추었다.

### 일치의 목적

마틴의 행동은 온 세계에 퍼져 있는 로마 카톨릭 은사 운동가들이 종교 일치라는 명분에 헌신하겠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 준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연합이다. 이것은 케빈 라나간의 말속에도 잘 나타나 있다.

은사 부흥 운동은 카톨릭교회에 속해 있으며 그것은 카톨릭교회 안에 있는 카톨릭교회의 운동이다.

라나간은 미국 카톨릭 은사 부흥 운동의 국내 봉사 위원회의 실무 기관 책임자이며 미시간주 그랜드래피즈의 부주교 요셉 맥킨리가 그 위원회의 의장이다.

카톨릭 은사 운동을 대표하는 잡지인 「뉴코베난트」(*New Covenant*)의 1981년 8월호에서 라나간은 그것에 덧붙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의 서로 다른 부분들에서 다소 구별되는 은사 부흥 운동이 있다는 사실이 그들 사이에 불일치가 있다는 표시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서로 다른 교회에서 은사 운동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 토대 위에서 만난다는 사실로 인해 이 은사 부흥 운동이 교회 밖에 있다고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카톨릭교회 안에 있으며 카톨릭교회가 계시와 구원의 방법들을 충분히 지니고 있음을 믿는다. 우리는 성경과 [카톨릭]교회의 가르침과 의식과 성례전 그리고 우리의 영적 전통을 위해 헌신하고 있다. 우리는 카톨릭교회의 수많은 은총의 통로를 통해 교회의 형제자매들이 계속해서 영적 식량을 공급받지 못하게 되면 영이 시들고 말라 버릴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 우리는 바로 이런 관점에서 그리고 마리아와 성인들의 무리들 속에서 우리 자신의 개인적 은사 경험을 생각해 보게 된다. 안내자이자 모델인 그 성인들과 함께 우리는 20세기 후반의 안개와 혼돈 속에서 진리와 사랑의 햇불로서 서기를 바란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 생활의 범위이다. 우리의 믿음 생활이 그것을 다 포함하지 못한다고 말하는 것은 일치의 관점이나 신학적인 관점에서 불명예스러운 일일 것이다.

## 흡수 과정

로마 카톨릭교회의 조직 밖에 있는 은사주의자들은 어떤가? 이전에 그들은 오순절주의자라는 이름을 지녔으나 이제 이 칭호는 단순히 은사주의자라는 말의 동의어가 되고 말았다. 카톨릭교회와 그 안의 은사주의 지도자들이 정의한 '로마 카톨릭 은사 통합'에 대한 그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과거 10년 동안 그들과 오순절 은사주의자들과의 동맹 관계는 매우 분명한 대답을 우리에게 제공한다.

지난 10년간 카톨릭과 비카톨릭 오순절 운동가들은 수차례 회합을 통해 서로 연합되었다. 이런 움직임들은 집이나 혹은 지역 운동장과 강당에서의 작은 모임에서부터 시작되었다. 그 뒤 노트르담에서 있었던 '프뉴마 72'와 같은 대중 집회가 시작되었다. 이런 경향은 로마 카톨릭교회 성직자들인 프랜시스 맥너트, 짐 페리, 존 베르톨루에시, 존 랜돌 등이 비카톨릭계 연사들인 언 백스터, 포트 로더데일에 있는 교회 성장 사역의 밥 머포드, 데이비드 두 플레시스, 토마스 트위첼, 루스 카터 스테이플튼 여사 등과 함께 팀을 이뤄 애틀랜티시티에서 개최한 큰 집회 같은 것으로 변하게 되었다.

그 뒤 은사 운동의 제1차 국제 집회가 캔자스시티에서 열렸다. 이 집회에 대해 「크리스천인콰이어러」(*Christian Inquirer*)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약 50,000명의 은사주의자들 - 로마 카톨릭, 루터교, 침례교와 성공회와 메노나이트 그리고 장로교와 감리교 또 교파가 없는 기독교인들 - 이 '주 예수의 주님 되심 안에서 일치'라는 주제 하에 1977년 9월에 모임을 가졌다. 준비 위원회 위원장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케빈 라나간이었고 핵심 연사는 레오 수에넨스 추기경이었다. 남침례교의 루스 카터 스테이플튼은 '이 운동에서 가장 중요한 것 가운데 하나는 모두가 교파의 장벽을 헐어 버리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말했다(「Cherry Hill Courier-Post」, 1977년 7월 23일).

그 이후에도 종교 일치 운동의 추진력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1980년 9월 28일에는 30만 명의 카리스마 운동가들이 워싱턴의 '예수 대회'(Jesus Rally)에 참석하기 위해 모여들었다. 그것은 비카톨릭 오순절 운동가들과 카톨릭 카리스마 운동가들의 협력이 낳은 결과이었다. 팻 로버트슨, 기독교방송네트워크의 랙스 험바드, 내일의 대성당(수정 교회)의 로버트 솔러 박사와 PTL의 제임스 로빈슨과 짐 베이커 등과 같은 '전파 교회'(TV 교회)의 빛나는 별들은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제들인 존 베르톨루에시와 존 랜돌, 마이클 스캔론 등과 함께 연설을 했다.

이 거대한 집회의 공동 대표에는 국영 종교 방송국의 최고 책임자인 벤 암스트롱 박사, 연예인 팻 분, 연합 감리교 아워의 니키 크루즈, 쇼 프로 진행자인 허버트 보우도인 박사, 미스터 펜테코스트인 데이비드 두 플레시스, 나사렛교회의 비서실장인 에드거 존슨 박사, 로고스 저널 발행인인 돈 말라쿱, 미국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의장인 데모스 샤카리안, 하나님의 성회 최고 감독인 토마스 짐머맨 박사 그리고 다른 많은 사람들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침내 1981년이 지나갔고 그 해에는 세계 곳곳에서 '81 예수 대회'가 계획되었으며 각 집회는 로마 카톨릭과 비카톨릭 은사 일치의 모델이 되었다. 이러한 사실은 같은

해 6월 5일부터 7일 사이에 독일의 베를린에서 열린 ‘예수 대회’에서 잘 드러났다. 미국의 뉴욕주 및 뉴저지주 지역의 ‘예수 81 대회’ 의장은 천주교 사제인 제임스 페리였다. 펜실베이니아주 집회에서는 로마 카톨릭 연사인 래리 톱크착과 교부 밥 맥도갈 사제가 나왔다. 그리고 집회가 열릴 때에는 매일 미사를 드렸으며 31명의 비카톨릭 카리스마주의자들이 연설하고 자신들의 달란트를 나누었다.

###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연합

오순절 카리스마 통합을 주도하는 영(靈)의 정체는 부흥 운동에 가담한 오순절 저술가들에 의해 더욱 확실히 드러나게 되었다. 이 저술가들의 숫자는 매우 많았으며 그들의 작품은 전 세계 대부분의 기독교 서점에 꼭 차 있다. 그들이 주장하는 이야기는 언제나 카톨릭과 비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의 조화와 일치에 관한 것이다. 계속해서 그리고 숨김없이 모임의 옵서버들과 참석자들은 이 결합이 필요할 뿐 아니라 시급하다는 말을 듣게 된다. 비카톨릭 오순절 운동 저술가들은 모두 한 가지 두드러진 특징, 즉 ‘로마 카톨릭주의와의 결합’ 혹은 종종 ‘로마 교회와의 결합’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

마이클 하퍼 목사는 이전에 런던에 있는 올 소울즈 랭함 플레이스의 부목사였다. 매우 유명한 성공회 오순절 운동가인 그는 부흥 잡지의 편집자이자 영국 복음주의 교회 협의회의 구성원이며 멜로디랜드 신학교의 평의원이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교회는 먼저 하나가 되어야 한다. 예수가 일치되지 못한 교회를 위해 재림하신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가 복음화되지 못한 세계로 오신다고 생각하는 것만큼이나 있을 수 없는 일이다(「Christian Life」, 1978년 8월).

상점과 잡지와 여러 가지 방송 등을 포함하는 로고스 단체는 하퍼 목사의 신간 서적인 「세 자매」(*The Three Sisters*)를 소개해 주었다. 이 자매들의 이름은 이반젤리네(복음주의자), 카리스마(오순절주의자) 그리고 로마(로마 카톨릭 은사주의자)이다. 이 책의 주요 내용에 대해 저자는 다음과 같이 서술했다.

나는 세 자매들이 서로 화해하기를 간절히 바란다 고백하지 않을 수 없다. 나는 또한 그들이 솔직히 그리스도 및 성령 안에서 결합되어 서로 배우고 겸손히 상대방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바란다 고 말하지 않을 수 없다(p. 11)... 우리는 모두 궁극적으로 일치한다. 우리의 다리는 본래대로 유지될 필요가 있고 우리의 접촉은 지속되어야 한다(p. 47)... 카톨릭교도들과 프로테스탄트들은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발견했다. 그들은 강하다는 점에서가 아니라 인간적인 약점을 지녔다는 점에서 서로 만났다. 그들은 의식적인 자유와 기쁨을 함께 나눴다. 함께 노래 부르면서 그들은 다시 분리시키기 어려운 ‘새로운 하나 됨’ 속으로 녹아 들어갔다.

그들은 자신들이 무지하다는 점에서도 함께 짐을 나눠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로마 카톨릭교회도, 프로테스탄트 교회도 은사에 대해 별로 많이 알지 못했을 때에 성령 안에서의 새로운 자유의 은사 체험으로 나왔다. 그러므로 그들은 20세기의 은사주의 기독교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함께 배워야만 했다.

주의 만찬 자리에서는 그들이 함께 하는 것을 주저했다. 심지어 여기에서도 비공식적인 (그리고 때때로는 공식적으로 재가된) 성찬 예배나 미사가 개최되었다. 로마 카톨릭교도와 프로테스탄트 은사 기독교인들 간의 지배적인 분위기는 이처럼 성찬식을 공동 관리하고 그런 집회에서 서로를 헌신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다는 것이었다(pp. 104-105).

## 400년간의 불일치

‘로고스 인터내셔널’이라는 출판사는 오순절 일치 운동의 주요한 구성 요소 중의 하나이다. 그들은 주로 책을 출판함으로써 영향력을 행사하며 그들의 책들은 비카톨릭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의 배가 향해할 방향을 지시하고 결정해 준다. 1979년에 로고스는 「그들이 하나가 되도록」(*That They Maybe One*)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저자인 토마스 트위첼은 연합 장로교 목사였으나 ‘새 생명 운동 - 오순절 연합’을 시작하기 위해 사표를 냈다. 카톨릭교회의 사제인 존 랜돌은 머리말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이 책을 쉽사리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나는 성령이 여기에서 강한 메시지를 말씀하고 계시다는 확신을 받았다... 트위첼은 이 시대를 앞서가는 예언자이다.

그러면 그의 예언은 무엇인가? 그것은 프로테스탄트들과 로마 카톨릭교회의 오순절 은사주의적 결합이 곧 실현되리라는 것이다. 트위첼 목사는 “우리 이전에는 지금처럼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될 수 있는 잠재력이 존재한 적이 없었다.”라고 기록했다. 1975년에 애틀랜틱시티 회의에 참가해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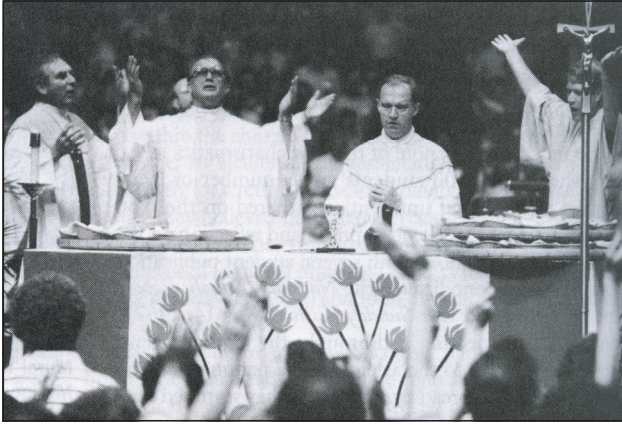
[침례교 출신의] 스테이플튼의 연설이 끝나자 베르톨루에서 사제가 교회들의 치유를 간구하는 기도를 계속했다. 프로테스탄트들은 서 있도록 요청을 받았고 그들 옆에 있던 카톨릭교도들은 프로테스탄트 형제자매들에게 과거 400년 이상 카톨릭교회가 행한 고통과 해악에 대한 죄들의 용서를 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 이날 밤은 우리 모두를 위한 밤이었고, 400년 이상 계속된 카톨릭과 프로테스탄트 사이의 불신과 고통과 분열을 주님이 치유해 주기로 결정하신 시간이었다... 그날 밤에 주님은 우리 조상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는 성령의 은사로 한 가족이 되었다.

그다음 날의 미사 행렬은 큰 장관이었다. 300명의 사제들이 ‘영광의 왕’(The King of Glory)으로 불리는 곳에 들어오자 그 행사는 매우 즐거운 잔치로 변하게 되었다. 십자가를 짊어진 사람은 텅 빈 나무 십자가 - 부활의 십자가 - 를 들고 들어와서는 마치 다음과 같이 말하려는 것 같았다.

우리는 너희 오순절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또한 우리는 미사 예식 속에서 너희가 우리 교회{카톨릭교회}의 권위에 순종하고 있음을 너희 스스로 시인하는 것에 대해 감사드린다(pp. 137-138).

트위첼은 다음과 같은 권고로 끝을 맺었다.

우리의 지도자들과 목자들 그리고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그리스도의 몸이 하나가 되도록 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야만 한다(p. 216).



로마 카톨릭 은사 운동



성공회와 루터교의 은사 운동

## 최고 지도자

오순절/로마 카톨릭 결합에서 가장 두드러진 집단은 미국 순복음 기독교 실업인들의 국제적인 친선 모임인 '순복음 실업인 협회'(The Full Gospel Business Men's Fellowship International)이다. 그들의 간행물인 「로고스」(*Logos*)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1950년 이후 카리스마 운동에서 일어난 것들은 이렇게 저렇게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활동으로 추적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로고스 인터내셔널 펠로우십은 댄 말라쿠이 순복음 실업인들과 함께 활동하던 시기에 생겨났다. 오늘날 유명한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은 - 그중에는 팻 로버트슨, 헤랄드 브레데슨, 짐 베이커, 폴 크로치 그리고 오랄 로버츠, 렉스 힘바드, 존 세릴 등 -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지부 회의나 연회에서 일찍이 연설을 맡았었다. 또한 이 조직은 카톨릭 카리스마 운동을 불러일으키는 데에도 관여했다(1981. 3. 14).

지난 30년간 순복음 실업인 협회는 오순절/로마 카톨릭 카리스마 친교와 일치를 위해 일했다. 실제로 지금 형성되고 있는 모든 지역 모임과 대중 집회는 오순절/로마 카톨릭 카리스마 일치를 환호하는 장면을 보여 준다. 이 모든 집회들 중 절정을 이룬 것은 [1981년] 6월 30일부터 7월 4일까지 필라델피아 시민 센터에서 열린 모임이었다. 그곳에는 2만 명 이상의 오순절 운동가들과 카톨릭 카리스마적 지도자들이 제28차 세계 집회에 참석하려고 모여들었다.

이 집회의 슬로건은 '장벽이 아니라 다리'였다.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공식 간행물인 「보이스」(*Voice*) 9월호에 제시된 대로 분명히 그 집회의 목적은 카톨릭교회와의 일치를 수립하는 것이었다. 「보이스」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실업인 협회와 로마 카톨릭 신자들 사이의 길고 의미심장한 관계는 필라델피아의 대주교이자 추기경이 보낸 대표자의 인사 속에서, 브라운 사제의 주요 연사로서의 역할 속에서 그리고 필라델피아 지역 카톨릭 평신도들이 인상적으로 많이 참석했다는 점에서 매우 새롭게 표현되었다. 브라운 사제가 카톨릭/프로테스탄트의 분열의 겹질을 벗고 서로 화해하자는 내용의 '짓이긴 감자'에 관해 연설하자 박수갈채가 터져 나왔다.

그 뒤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월간지인 「보이스」의 1981년 11월호가 나왔다. 이 잡지는 「놀라운 교황 요한 바오로 23세」(*Amazing John XXIII*)라는 책에 대한 광고로 가득 찼다. 이 잡지는 교황 요한을 하나님의 참 아들로 묘사하며 저자의 말을 빌려 “틀림없이 요한은 성도, 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화된 하나님의 성도이다.”라고 말한다(p. 9). 교황을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라고 보는 사상이 그 글 전체를 통해 흐르고 있다. 한 곳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는 그는 땅에서의 마지막 순간을 자기가 늘 살아온 방식대로 하나님의 아들의 자유 안에서 살았다(p. 108).

순복음 실업인 협회도 이런 확신을 가졌으며 이 기구는 온 세상의 모든 기독교 신자들이 교황에 대해 그와 같은 태도를 갖기를 바라고 있다.

도대체 누가 교황 요한 23세를 가리켜 성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가? 작가인 라테니우스가 그렇게 말했다. 그러면 라테니우스 박사는 누구인가? 그는 바티칸 출판국의 일원이었으며 교황 요한 23세와 바로 6세 밑에서 일했던 사람이다. 그는 지금도 로마 카톨릭교도이며 교황권을 비롯한 카톨릭계 안에서 이리저리 활보하며 다니는 사람이다. 그런데 놀랍게도 라테니우스 박사는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잡지인 「유럽 보이스」의 편집자이다. 그러므로 이 잡지 「보이스」는 교회의 일치치를 위한 바티칸의 생각과 정책을 대변하고 있다. 이 편집자는 교황들 중 한 사람에 대한 일반적인 카톨릭교도들의 평가, 즉 그가 성인이라는 평가를 내렸을 뿐이다.

물론 사람들은 “요한 23세가 언제 다시 태어났으며 어떻게 태어났는가?”하고 물을 것이다. 이 책은 그 점에 대해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다. 그 대신 이 책은 교황이 거쳤던 ‘어린 아이, 학생, 대학생, 사제 그리고 채플린(지도 신부), 외교가 혹은 주교와 교황의 단계들’에 대해서만 말한다. 이 기간 중에 그는 늘 하나님의 어린아이였는데 그 이유는 그가 유아 세례를 받았기 때문이었다.

우리는 교황 요한 23세가 바티칸 공회를 소집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그가 이 공회를 개최한 목적은 온 종교계를 하나의 달걀, 즉 로마 카톨릭교회 아래로 결합시키려는 것이었다. 그가 세운 계획의 상세한 내용들은 「제2 바티칸 공회 문서」에 들어 있다. 요한 23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에큐메니컬 공회의 가장 큰 관심은 기독교 교리의 거룩한 침전물을 더 효과적으로 보호하고 가르쳐야 한다는 것이다(p. 713).

그는 이 공회 기간 중에 죽었으며, 자신의 임종 시까지도 전혀 변화되지 않고 그대로 보존된 중세 로마 카톨릭교회를 글자 그대로 믿고 보존하며 실천하려 했다.

교황 요한의 임종에 대해서는 바티칸 직원들이 매시간 기록을 했다. 그 기록은 폴 드레이푸스의 「요한 23세」라는 책 안에 들어 있다. 프랑스에서 발행된 486쪽의 이 책은 손에 묵주를 들고 마리아와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며 그들의 동상에 눈을 맞춘 채 죽어 가고 있는 교황의 모습을 보여 준다. 그의 대리 고백자인 카바그나 몬시뇰(고위 성직자) 역시 성인들에게 죽는 자를 위한 기도를 드렸다. 미사를 드린 뒤 그는 성체(빵 조각)를 집어 들면서 대리 고백자에게 말했다 “주님과 함께 내 곁에 서라.” 그 뒤 그는 “내가 주교와 교황으로 죽도록 도우소서.”라고 외쳤다. 드레이프스는 이 외침이 바로 “교권과 성도들을 세워 주기 위한 것이었다.”라고 말했다(p. 398).

이제 순복음 실업인 협회는 바티칸의 종교통합주의, 즉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일치치를 위한 협력 도구가 되어 버렸다. 순복음 실업인 협회의 집회와 세계 대회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열리는 오순절 은사 그룹의 모임에서 로마 카톨릭 자료들 및 인물들이 계속해서 인용되고 읽히고 수용됨으로써 필라델피아에서 그들을 승인하며 나왔던 박수갈채는 좀 더 커지게 될 것이다.



## 공통적인 교황 단일 체제

교황 교회와 하나가 되려는 것이 오순절 운동 지도자들에 의해 선명하게 표출되어 왔다. 초특급 영성으로 유명했던 캐트린 쿨만은 1972년 10월 11일 바오로 교황과 면담을 했다. 그녀는 “내가 교황과 만났을 때 거기에는 일치가 있었다. 그에게는 통역자가 있었지만 사실 우리 사이에는 통역자가 필요 없었다.”라고 말했다. 렉스 험바드도 역시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를 방문했다. 그는 1980년 3월호 「앤써」(Answer)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우리가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되자 나는 우리의 사명이 하나라는 것을 점점 더 확실히 느끼게 되었다. 즉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 주 안에서 형제들의 손을 증대하는 것, 왕국을 위해 온 세상을 얻는 것, 예수께서 나누라고 한 메시지를 나누는 것 등이다.

또한 「로고스」(Logo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아마도 지금까지의 은사 부흥 운동 속에서 데이비드 두 플레시스만큼 영적 부흥이 은사주의적이어야 하고 종교통합주의적이어야 함을 확신시켜 준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1981년 1-2월호).

바로 그 잡지에서 두 플레시스(David Du Plessis)는 오순절/로마 카톨릭 일치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인류의 구원과 일치를 위해서 교회는 초기 사도들 시대의 첫 번째 오순절에 교회에 내렸던 복을 받아야만 한다.

그런데 두 플레시스는 사실 적은 규모의 그런 일치를 경험하게 되었다. 그것은 20,000명의 은사주의자들이 카톨릭교회 내의 은사 부흥 회의를 위해 1975년에 바티칸에 모였을 때 성 베드로 성당에서 일어났다. 두 플레시스는 그 경험을 이렇게 말한다.

바오로 교황이 보좌로 갔고 미사가 진행되는 동안 성령과 함께 하는 찬양이 있었는데 그것은 참으로 부드럽고 존경심을 내포하고 있었으며 참으로 그 자리에 잘 맞는 것이었다. 그것은 참으로 오순절 예배였고 오순절 현상이었으며 명백한 오순절 축복이었다. 우리는 모두 오순절 기적이 일어나게 해 달라고 기도했지만, 아무도 새 오순절이 그렇게 풍부하게 적극적으로 나타나라고 기대하지 않았다.

나는 그 밤에 모든 오순절 운동에서 세 가지 경향이 작용하고 있음을 인식했다. 고전적인 오순절주의자들이 있었고 신(新)오순절주의자들과 카톨릭 오순절주의자들이 있었다. 그리고 이 경향들은 협력과 친교 속에서 점점 하나로 모여지고 있었다. ‘영광이 있으라!’ 나는 나 자신에게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어둠 속에 대고 크게 외쳤다. ‘데이비드, 너는 지금 참 초교파적 종교통합주의자이다!’ ‘그렇다!’고 나는 스스로에게 중얼거렸다. 나는 완벽한 종교 통합 - 민족들의 전체 가족들을 포함하는 통합 - 만을 인정할 것이다(「A Man Called Mr. Pentecost」, pp. 238-244).

두 플레시스는 스스로 앞에서 요구된 질문에 대답했다. 로마 카톨릭주의와의 결합에 관한 오순절주의자들의 입장은 무엇인가? 그들의 대변자이자 ‘미스터 펜테코스트’라는

이름을 지닌 이 사람은 그 질문의 대답이 ‘완전한 종교 통합’이라고 말한다. 그러면 ‘완전한 종교 통합’이란 무엇인가? 당신은 이미 그 대답을 들었다. 그것은 로마 교회의 수장이 제4차 국제회의에 참석한 523명의 카리스마적 대표자들과 만났을 때 이미 말했던 그대로이다. ‘완전한 종교 통합’이란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완전한 일치이며 절대적인 의미에서 로마 카톨릭교회와 하나가 됨을 의미한다.

## 승인의 침묵

이들과 의견을 달리하는 오순절주의자들의 소리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아무 데도 없다! 사실상 그들의 침묵은 오히려 우리의 귀를 멍멍하게 만들고 있다! 집회와 회의와 잡지와 책들은 한결같이 염려의 목소리나 기록 없이 로마 교회와의 전체적이고 절대적인 결합을 큰 복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의 광경은 전체적으로 불길한 고요함, 즉 하늘의 천사들조차 ‘죽은 것 같은 침묵’이라 일컬을 수 있는 음침한 고요함만을 보여 준다.

또 다른 무서운 침묵이 있다. 그것은 카톨릭주의의 카리스마 부흥 운동의 스타디움에서 나온다. 왜 그 안에는 사도들의 진리로부터 자신들의 교회가 이탈하는 것에 대해 저항하는 외침이 하나도 없는가? 로마 천주교는 지금도 여전히 ‘물세례에 의해 죄인이 중생한다’(다시 태어난다)는 거짓 교리를 고수하고 있다. 그들의 구원은 선행과 일곱 성사 성례전에 따른 은총과 개인의 희생과 공적 제도로 말미암는다. 그들에게는 개인적인 영혼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

속죄는 금식과 참회와 기도와 면죄부를 통해 이뤄진다. 영혼의 구속은 여전히 연옥의 틀 안에서 완성된다. 그들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기도하고 그녀는 그리스도와 함께 인류를 구원하시는 분으로 숭배를 받는다. 마리아는 여전히 로마 교회의 하늘의 여왕이다(렘44장을 보라). 카톨릭교회 성인들은 중보자라는 칭호를 받는다. 유품과 동상과 성인 숭배가 여전히 인정되고 있다.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죄로 인한 미사에서 빵 조각으로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매시간 희생물로 바쳐진다. 성찬의 빵 조각은 하늘의 참 하나님으로 숭배를 받는다. 그리스도와 그분이 흘린 피에 의한 구원은 여전히 공식적으로나 개인적으로 거부되고 있다.<sup>1)</sup>

그 안에서는 반대나 불일치의 중얼거림 혹은 불만족의 속삭임이 전혀 들리지 않는다. 죽은 것 같은 무언의 동의 속에서 은사주의 지도자들과 수천만의 추종자들은 이 같은 교리들과 공회의 가르침에 집착하고 있다. 이런 가르침들은 초기 사도 교회에서는 알려진 적도 없었고 그때로부터 수 세기가 지난 뒤에야 비로소 나타났다. 이런 비성경적 연합에서는 8억 5천만 명의 카톨릭교도들에게 이런 잘못된 것들을 경고해 주는 경종도 없었고 사람이 만든 이 종교 체제에 대한 경고도 없었다. 그 대신에 비성경적이며 기독교에서 배도한 제도가 아직도 조용히 본래의 모습 그대로 남아 있다.

이 같은 현상은 미래에도 유지될 것이다. 실제로 변화하려는 생각 자체를 제거하려는 것은 오순절 카리스마 회의를 환영하는 자리에서 현 교황에 의해 재확인되었다. 그는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출판사 그리스도예수안에)를 참조하기 바란다.

다음과 같이 말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로 말미암은 필연성 때문에 중세 트렌트 공회의 가르침은 여전히 효력이 있으며 그것은 카톨릭교회 안에서 영원히 효력을 발휘하리라는 사실을 명심하라! 초자연적으로 이해된 타인의 면죄를 위한 사랑은 (이 면죄들은 죄와 화해의 성례전에 대한 확신과 함께 내생 특히 연옥에 대한 신앙과 함께 그리고 신비스러운 몸의 공격들이 나타나는 것, 즉 ‘성인들의 통공’과 연결되어 있다. ‘성인들의 통공’이란 곧 이미 죽은 성인들이 땅에 있는 카톨릭교도들을 대신해서 빌어준다는 것이다) 진정한 카톨릭 정신의 포괄적인 표시이다(「Papal Address to the Holy See’s Priest Penitentiaries」, The Catholic Register, 1981년 2월 28일).

마침내 사탄은 비카톨릭 오순절 운동권과 역사적 로마 카톨릭교회를 결합하는 데 성공했다. 이 놀라운 위업은 실제적이며 매우 강력한 영에 의해 이루어졌다. 이 영은 사도들이 죽은 뒤 수 세기가 지나서 로마 카톨릭교회라는 혼합체를 태동시킨 영으로 결코 새로운 영이 아니다. 그 뒤 이 영은 이 시간까지도 로마 카톨릭주의를 교육하고 발전시키고 통제하고 그것에 영감을 주고 나아갈 방향을 지시해 주고 이용해 왔다. 오늘날 이 영은 오순절주의에 도달해서 그 속으로 스며들어 갔으며, 지금은 오순절주의의 자녀들을 그들의 본래의 집인 로마 카톨릭주의로 데려가고 있다.

### 다시 태어남(거듭남)과 어둠

“다시 태어난다.”라는 어구는 오순절/은사주의가 늘 외치는 소리이다. 모든 은사 운동은 성경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또다시 태어났다’는 그들의 주장이 실제로 합법적인가? 바꿔 말하면 은사 체험은 진짜인가? 아니면 그것은 거짓 영의 산물인가?

하나님의 말씀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에서 난 것이며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벧전1:23)*

다시 태어난다(거듭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진리이며 인간을 하나님의 말씀과 결합시켜 주는 것이다. 따라서 다시 태어난 사람은 누구나 다 진리와 결합되어 있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성도들이 진리를 믿고 진리를 사랑하고 진리를 위해 싸우고 사람들을 진리로 이끌며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도록 하신다.

성경에서 말하는 다시 태어남(거듭남)은 빛과 어둠을 구별하고 어둠과 반대되는 빛을 믿고 어둠에서 나와 어둠을 피하는 사람을 만들어 낸다. 성도는 자신의 주님처럼 어둠을 미워해야 한다(히1:9 참조). 다시 태어남의 첫 열매, 즉 성도의 첫 사랑은 ‘불법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진리를 기뻐하는 것’(고전13:6)이다.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온전히 진리, 즉 하나님의 말씀에 거하게 된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오순절 은사주의 안에서의 ‘거듭남’의 경험은 실제로 거의 진리에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진리를 사랑하고 강조하는 대신에 카리스마 운동은 성경 교리, 즉 진리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반대한다. 더구나 오순절/은사 집단들

은 가장 나쁜 형태의 어둠이며 영적 실수 집단인 로마 카톨릭주의와 친교를 나눈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나 그분 곧 진리의 영께서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분은 스스로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무엇이든지 자기가 듣는 것만을 말씀하시며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너희에게 보이시리라(요16:13).

다시 태어남(거듭남)을 주장하는 영(靈)이 진리에 대해 별로 혹은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더구나 이 영이 사람들을 어둠이나 실수로 이끌 때 그것의 정체에 관한 모든 의심은 제거된다. 그것은 바로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것이 바로 현시대 오순절 은사주의의 실제적인 이미지이다. 오순절 은사 운동이 진리에 대한 사랑을 보이지 않고, 사람들을 오도하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과 친교를 맺도록 이끌므로 그것은 어둠의 영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 뒤집힌 거룩함

살아 계신 하나님의 영은 ‘거룩함의 영’이다. 전체 신구약 성경은 이런 사실을 여러 면에서 증언해 주고 있다. 이스라엘과 다른 민족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이런 원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고통을 당했다. 하나님의 영은 악의 모든 모양으로부터의 절대적인 분리를 요구했고 지금도 그렇게 요구하고 계신다. 그러나 카톨릭 오순절주의자들 사이에서 활약하고 있는 영은 그와 정반대의 것을 만들어 내고 있다.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눈앞에서 가증한 단체인 로마 카톨릭주의 안에 속해 있는 것들을 부활시킬 것을 요구한다. 더구나 그 영은 그리스도를 안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을 영적인 어둠과 친밀히 사귀도록 연합시킨다.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분리를 요구한다(고후6:14-18 참조). 현재 오순절주의의 영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과 싸우고 있다. 모든 형태와 변형과 이름과 연합을 지닌 오순절주의의 배후에 있는 실제 영은 하나님의 영이 아니라 어둠의 영이다.

오순절 은사주의는 거룩함을 수립하고 유지하려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운동을 일으키고 지배하는 영이 거룩함의 영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 영은 결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여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요14:6)라고 말씀하신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아니다. 오순절주의나 은사주의의 영은 거짓과 사기와 거짓말의 영이다. 그것은 바울 사도가 두려움 속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른 영’을 지닌 ‘다른 예수’이며 ‘다른 복음’이다(고후11:4 참조).

사람들이 은사주의나 오순절주의의 유혹에 넘어가게 될 때 그것은 실로 그들이 신비주의와 함께 놓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매우 세련되며 거짓된 형태로 나타나는 영성주의와 친교를 맺고 있다. 오순절주의 혹은 은사주의 운동은 거의 완벽한 위장 속에서 기독교의 옷을 입고 변장한 마귀의 영성주의이다.

이 세상이 오늘 밤 필요로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과 더 많은 이적이다.

1982년 6월 26일 뉴햄프셔주 내슈아에서 열린 미국 내 순복음 실업인 모임에서 복음주의자 조 휴즈는 이렇게 말했다. 이 모임에 참석한 군중들은 소위 '성령 안에서 죽는 것'(slain in the Spirit)으로 잘 알려진 표적들을 얻었다. 앞으로 나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손이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자 수초 후에 자신들이 무의식 상태로(대개는 뒤로 넘어짐) 빠지는 것을 보았다. 이 체험은 신조나 피부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온 세계의 모든 은사주의자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사탄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매우 기뻐한다. 그런데 예수님은 낙담하고 쓰러진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신다. 이처럼 사람들을 뒤로 넘어뜨리고 무지로 이끄는 은사주의자들을 향해 우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2-23).

### 드러나는 세계 교회

오순절 성결교회의 주교였던 고 허버트 스펜스의 아들이자 한때 오순절 교회의 목사였던 신학박사 탈마지 스펜스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과거의 모든 에큐메니컬 운동은 사람들을 효과적으로 결합시키기 위해 두 가지를 시급히 필요로 했다. 그것들은 바로 영과 교리이다. 우리는 지금 이 일치가 '성령'을 통해 이루어졌으므로(다시 말해 뒤로 넘어지고 '랄랄랄라' 방언을 하므로) 교리의 통일도 이루어질 것이라고 확신할 수 있다. 처음에는 실패가 오고 그다음에는 방법이 오며 마지막에 교리가 온다. 우리는 지금 로마 카톨릭 카리스마 운동을 통해 신(新) 종교통합주의자들이 이루려 하는 단 하나의 종교적 연합으로의 움직임을 보고 있을 뿐 아니라 적그리스도의 최후 종교를 나타내 줄 수 있는 독특한 종교 개념이 함께 오고 있는 것을 보고 있다(『Rome: Crusade or Crucible?』, pp. 126-127).

매우 능력 있는 영이 오순절 카리스마 부흥의 미궁 속을 이리저리 휘저으며 다니고 있다. 그 영은 과거에 에텐동산에서 다음과 같이 말했던 거짓의 영과 똑같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열리고 너희가 신들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께서 아시느니라(창3:5).

이 영은 우리의 거룩하신 하나님의 원수요, 어둠에서 나온 반역의 영이다. 사도 바울은 이 같은 '다른 영'이 오는 것에 대해 이미 경고했다(고후11:3-4). 그리고 지금 이 영은 요한계시록이 이루어질 마지막 때에 성도들이 카톨릭교회가 추구하는 전 우주적인 종교통합주의와의 일치를 따르도록 촉구하고 있다.

## 1984년 이후

종교 통합의 속도는 점점 빨라진다. 세계 종교 일치를 위한 경주에서 오순절/은사주의 영(靈)은 주요한 조치들을 취했다. 이 조치들은 세 가지 방향, 즉 빌리 그레함의 에큐메니컬 복음주의, 세계 교회 협의회(WCC) 그리고 로마 카톨릭교회와 새로이 연합한 오순절 운동으로 움직이고 있다.

‘암스테르담 83’ 회의에는 세계 각처로부터 5,000명의 대표들과 복음주의자들이 모여들었다. 빌리 그레함의 ‘순회 복음주의자들의 국제 집회’는 그의 다른 집회들과는 매우 달랐다. 이 집회는 빌리 그레함 연합이 오순절 운동에 항복한 것을 의미한다. 비카톨릭 오순절 운동의 기관지인 「카리스마」(Charisma)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이 집회는 전 세계의 주도적인 복음주의자인 빌리 그레함이 태도나 용어 면에서 변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해 준 명백한 오순절/은사주의의 정취를 지녔다(「카리스마」, 1983년 10월).

‘700 클럽’의 의장인 팻 로버트슨은 참석자들에게 손을 잡고 자기와 함께 하자고 말했다. 「카리스마」는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참석자들의 큰 기도 소리는 거기 모인 청중에게 연설하고 있던 로버트슨을 깜짝 놀라게 했다. 의심의 여지 없이 거기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제3세계 국가들의 오순절주의자들이었으며 그들은 이런 방식으로 예배드리는 데 익숙해 있었다. 참석자들 중 몇 명이 오순절주의자들인가를 알아내는 것은 불가능했지만 대략 3분의 1내지 2분의 1이 오순절 주의자였다(동일 문서).

오순절주의 연사인 데니스 피터슨은 ‘예배 시간마다 엄청나게 많이 부흥의 노래를 부른 빌리 그레함의 변화’를 유심히 살펴보았다. 또한 세계에서 가장 큰 오순절 교회를 맡고 있는 조용기 박사(Dr. Paul Cho)는 ‘믿음의 언어’와 ‘계시의 지식’을 개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꿈과 이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 그 이유는 그것들이 믿음을 만들어 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술러는 이렇게 말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 비전과 꿈을 줄 수 있고 주실 것이다. 당신은 절대로 하나님께서 당신 마음에 심어 주는 생각을 낭비해서는 안 된다.

다른 오순절주의 강사로는 루이스 팔라우와 번하드 존슨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런 분위기는 빌리 그레함의 추종자요 수석 연락 담당자인 CCC의 빌 브라이트 박사로 하여금 자신의 CCC 요원들이 ‘방언하는 것’을 포함한 여러 은사들을 실천하도록 허용하고 있음을 시인하도록 했다.

빌리 그레함 연합의 오순절 운동과의 통합은 이제 적그리스도의 세계 교회의 발전을 가속화할 것이다. 이미 그레함의 지도력 아래 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와 연합하였다. 세계적 종교 통합의 어둠은 이제 강력한 사탄의 에너지가 그레함의 혼합주의, 즉 에큐메니컬 오순절/은사 일치에 주입됨으로써 더욱 심화될 것이다.

둘째로, 이 영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기구인 세계 교회 협의회(WCC)에 들어가

그것을 활성화시켰다. 로마 교회에 행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오순절주의의 이 영은 세계 교회 협의회의 악한 특성과 가증한 행동들을 변화시키기 위한 어떤 일도 하지 않았다. 평소와 같이 WCC의 사업은 진행되고 있으며 단 하나의 예외가 있다면 그것은 오순절 은사주의의 특징인 방언과 입신이 WCC 모임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WCC는 1948년에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세계적인 종교의 일치를 이루겠다는 목적으로 결성되었다. 즉 불교, 힌두교, 시크교, 회교, 그리스 정교회, 배도한 기독교와 유대교 등을 포함하는 일치, 즉 신조와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일치 말이다. WCC는 성경의 진리를 조롱하고 부인하는 사람들을 위한 무대일 뿐만 아니라 국제 공산주의의 뻔뻔스러운 대변자이다.

사실상 오늘날의 WCC 구성원들 가운데는 무수히 많은 무신론자들, 불가지론자들 그리고 러시아 정보부(KGB)의 요원들이 포함되어 있다. 세계 교회 협의회는 스스로 신조를 선포하는 기관이며 이미 입증된 대로 하나님과 인류의 원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은 1983년 7월 24일 WCC 내에서 아늑한 거처를 차지했다. 캐나다 밴쿠버에서의 제6차 모임에는 세계적인 오순절 운동을 대표하는 다수의 무리들이 참석했다. 오순절 부흥 운동의 새 지도자인 영국의 존 스토틀가 운영하는 인터바시티펠로우십과 동아프리카 부흥과 연합한 그웬 캐쉬모어는 카톨릭의 프란시스코 파의 조앤 플스 수녀와 함께 한 달 전에 도착했다. 그리고 에큐메니컬 종교 일치 기도회와 예배를 위해 큰 천막이 쳐졌다.

### WCC는 오순절 운동이다

오순절주의자들은 하루에 세 번씩 밴쿠버에 오는 참석자들의 이름을 부르며 중보 기도를 하기 위한 모임을 조직했다. 이 회합 기간 중에 이 모임을 결속시켜 주고 개인의 요구를 만족시켜 주기 위해 24시간 내내 기도 순번이 정해졌다(「카리스마」, 1983년 10월). 본 회의에서 연설한 두 플레시스는 이 모임에 대한 자기의 열정을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나는 지금까지 5번에 걸친 모든 회의에 참석했다. 처음 참석했을 때 나는 가라지 외에는 아무것도 볼 수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알곡이 가라지를 압도하고 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이 모임을 검토하기 위해 간부 회의를 열었고 스위스 신학자인 아놀드 비틀링거가 이 모임의 의장이 되었다. 현재 그는 「교회는 은사적이다」(*The Church is Charismatic*)라는 WCC 간행물을 편집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제목의 간행물은 '전 세계로부터 온 오순절주의자들과 협의한 뒤 나오게 되었다'(동일 문서).

하지만 오순절 운동으로부터는 이 같은 새로운 결합에 대한 비난이 전혀 나오지 않았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가증스러운 종교 단체의 하나와 자신들이 제휴하고 있음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 이것은 오순절 운동 안에 로마 교회를 포함시키는 것에 대한 오순절주의 운동가들의 또 다른 반응에 지나지 않는다. 로마 교회의 이교도 신앙은 변함없이 계속되며 그것은 오순절 운동을 방해하지 않았다. 마찬가지로 회개하지도 않고 악한 길에서 나오지도 않는 WCC에 대해서도 오순절 운동은 눈에 보이게

슬퍼하지 않는다.

끝으로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오순절 운동의 일치를 향한 실제적인 단계들이 강화되었다. 미국의 로마 카톨릭 오순절교회의 기관지인 「뉴코베난트」(*New Covenant*)가 최근에 발간한 놀라운 문서에는 많은 내용이 들어 있었다. 잡지 편집자인 닉 카브너는 오순절 교파 중에서 가장 오래된 교파 가운데 하나인 오순절 성결교회의 실무 책임자인 빈슨 사이언 박사를 방문했다.

사이언 박사는 전 세계의 오순절 교회들에서 가장 존경받는 역사가이자 신학자이다. 그와 아버지는 오순절 성결교회의 감독이었다. 사이언 박사가 저술한 「성결교 오순절 운동」(*The Holiness Pentecostal Movement*)이라는 책은 1971년 출간되자마자 이 분야의 고전이 되었다. 그 뒤 그는 1974년에 「은사주의 다리」(*Charismatic Bridges*)를 출간했다.

1984년 1월의 인터뷰에서 사이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오순절주의자들과 은사주의자들 그리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함께 서도록 부르심을 받았다.

그는 다년간에 걸친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협력의 증거를 보여 주며 자신의 말을 확증했다. 1973년에 그는 바티칸과 오순절 신학자들 사이의 형식적인 에큐메니컬 대회에서 일익을 담당했다. 그는 이 책자에서 기술된 '1977 캔자스시티 집회'를 조직하는 것을 도왔다. 1978까지 그는 수에넨스 추기경과 함께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에큐메니컬 오순절 집회들을 후원하는 일을 함께 진행했다.

이 인터뷰는 이 책자가 지적하고 있는 사실, 즉 오순절/은사 일치 운동을 주도하는 영이 진리에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카브너는 “우리(카톨릭교도)는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을 카톨릭교도로 만드는 일에 더 많은 신경을 썼는데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라고 물었다. 사이언 박사는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자기 교회를 사랑하는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에 대해 전혀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나는 자기 교회를 떠나는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이 많으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가 카톨릭교도이며 그의 교회에 충성을 다하고 있으며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 하나의 운동 그러나 많은 신념

이 대답 후에 매우 의미심장한 질문이 나왔다.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어디를 향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 두 집단, 즉 오순절 교회와 로마 카톨릭교회의 일치가 그렇게 중요하니까?” 이 질문에 대한 오순절 운동의 세계적인 대변자의 대답은 이 책자에 기록된 모든 것을 확증해 준다. 사이언 박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당신이 역사적 입장을 취한다면 오순절 운동은 20세기 초 성결교회에서 시작되어 많은 새로운 오순절 집단으로 퍼졌고 그 뒤 주요 프로테스탄트 교파들에 있는 은사주의자들에게 퍼졌으며 그 뒤 카톨릭교회로 퍼져 나간 운동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나는 20세기 말과 21세기에는 기독교 내의 사건들이 점점 더 카톨릭교회와 오순절 교회의



손안에서 이루어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두 집단 사이의 유일한 다리는 바로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성령의 위력을 강조하는 오순절 은사 운동은 오늘날 기독교에서 가장 무서운 위력입니다. 이것은 기독교를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며 이 힘은 오순절주의자들과 카톨릭 은사주의자들이 공동으로 지니고 있는 힘입니다(「뉴큐베난트」, 1984년 1월).

사실상 오순절 은사주의의 영이 주도하는 일치 및 통합의 부르짖음은 무서운 힘이며, 배도한 기독교 집단, 즉 성경에서 바빌론이요 그리스도의 거짓 신부로 알려진 집단을 결합시킬 힘이다. 그러나 기다려라! 또 다른 목소리가 부르고 있다! 그 호소는 오순절 교회의 체험에 의존하지 않고 오히려 악한 자들로부터의 분리와 그에 따른 일치에 의존하고 있다. 즉 성경에 정의된 대로 진리와 거룩함에 기준을 두고 있는 일치를 위한 분리 말이다. 하나님의 영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신다.

주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는 저들 가운데서 나와 *너희 자신을* 분리하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받아들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딸이 되리라. 주 곧 전능자가 말하노라, 하셨느니라(고후6:17-18).

이제 독자는 두 목소리 중에서 어느 것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선택해야만 한다! 미국과 세계의 미래는 이 결정에 달려 있다. 현 사회는 사악함을 미워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박한 심판에 직면해 있다. 악으로부터의 분리는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최후통첩이다. 그것은 역사를 통해 늘 그러했다(대하7:14 참조). 그것은 이스라엘이 악과 연합했을 때도 그러했으며 지금 이 시간에도 그렇다. 오순절/은사주의 종교 일치 및 통합의 영이 수천만의 사람들을 로마 카톨릭교회의 거짓과 잘못과 우상 숭배의 멸망의 길로 이끌고 있다. 카톨릭 체제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고 반드시 멸망시키겠다고 약속하신 제도이다. 그분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부터 다른 음성이 나서 이르되, 내 백성이,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18:4).

## 마귀의 거짓 복음

창녀와의 섹스 스캔들로 큰 물의를 일으켰던 복음 성가 가수이자 목사인 지미 스웨가트는 전 세계의 모든 오순절주의자들이 믿고 있는 바를 다음과 같은 말로 표현했다.

사실상 ‘은혜에 의한 구원’, ‘믿음에 의한 구원’ 등과 같은 용어들은 모두 같은 것이며 기본적으로 동일한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말에 여러분의 구원이 달려 있다(「전도자」(*The Evangelist*), 1984. 11).

그런데 스웨가트가 속해 있는 오순절 교파인 하나님의 성회는 다음과 같은 말로 ‘은혜에 의한 구원’을 설명해 오고 있다.

구원이란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통해 얻을 수 있다. 사람은 믿음을 통해 은혜로 의롭다 칭함을 받고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과 중생의 씻음에 의해 영생이라는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어간다(「근본 진리 서술」(*Statement of Fundamental Truth*), p. 7).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위의 진술문에 있는 마지막 부분의 말들을 자세히 살펴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바로 이 구절에서 ‘은혜에 의한 구원’이라는 교리가 오순절주의의 ‘다른 복음’으로 둔갑해 버렸기 때문이다. 영생에 대한 오순절 은사주의의 소망은 사실상 인간의 능력이라는 거미줄에 기초를 둔 소망이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은혜에 의한 구원’이 반드시 인간의 능력이나 책임 등에 의해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만일 그리되지 못하면 그 구원은 취소되거나 혹은 잃어버린 것이 되고 만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내규’(*The Bylaw of the Assemblies of God*)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회 총회는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이 구원을 잃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주장하는 성도들, 즉 성경적 신자들의 ‘무조건적인 영원한 안전 보장’(Eternal Security)에 대한 입장을 부인한다(제8조 제1부).

이 같은 입장은 종종 책들에서도 설명되어 있다. 예를 들어 그 교파에서 매주 발간하는 「오순절 복음」(*Pentecostal Evangel*)이라는 신문은 1986년 2월 23일자 기사에서 ‘휴거 - 누가 받는가?’라는 제목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을 실었다.

등불이 꺼진 사람은 결코 어린양의 혼인 잔치에 들어갈 수 없다. 많은 이들이 뒤에

쳐질 것이다...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새로운 탄생은 구원을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이다... 그러나 시작은 말 그대로 시작이다. 계속해서 일을 행하는 것이 그 이야기 전체를 말해 주며... 그래서 바울은 '네가 어떻게 사는가에 대해 매우 조심하라'고 지시했다.

이 기사는 중생, 즉 다시 태어나는 것(거듭나는 것)이 구원을 보장해 주지 않음을 명백히 보여 주고 있다. 동시에 이 기사는 어떤 사람들은 구원받은 후에도 영원토록 불 속에 들어갈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구원을 위해 '계속해서 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가는 하나님의 성회에서 발간된 소책자인 「신자들의 안전」(*The Security of the Believer*)에 다음과 같이 자세히 나와 있다.

## PENTECOSTAL EVANGEL

Official magazine of the Assemblies of God  
FEBRUARY 23, 1986 • No. 3746

ISSN 0031-4897

### FEATURES

**4 The Rapture—  
who's going?**

By Paul C. Guttke. The Rapture? No doctrine is more clear in Scripture.

But the question arises: Who is caught away? The dead in Christ, yes. But who among the living is going?  
The Church is going. What church? The answer to this question may not be as clear as the fact of the Rapture.  
There can be but one grand entrance to the banquet. Reality demands that stragglers be left.  
The lesson is clear. The Father's will is that we have oil in our lamps, and the lamps be burning. No one whose lamp has gone out will get into the Marriage Supper of the Lamb. Many will be left behind searching for oil.

### The Rapture— who's going?

#### DEPARTMENTS

In fact, Paul made this point when he said, "Since we live by the Spirit, let us keep in step with the Spirit" (Galatians 5:25, NIV).  
How can one know the cadence of the Spirit? Preparation begins with true conversion. This results in being "born again" (John 3:7) by the Spirit of God. Apart from new birth, there can be no life from heaven within to keep in step with. New birth wrought by God's Spirit in Jesus' name is essential as a beginning. This gift of life is free for the asking (John 3:16).  
A beginning is just that, nothing more. Continuing tells the tale.

*The article explains that being born again is no guarantee of one's salvation. It shows that some will be lost for eternity.*

미국 하나님의 성회 공식 잡지인 오순절 복음 1986년 2월 23일 판, 제목 〈누가 휴거되는가?〉 이 기사에서 구트케는 휴거에 대해 논의하며 하나님의 영에 의해 다시 태어나는 것이 휴거를 얻기 위한 시작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이 단지 시작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끝에 가서 그는 계속해서 그것을 유지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이 기사는 다시 태어나는 것이 어떤 사람의 구원을 보장해 주는 것이 아니라고 설명한다. 이것은 또한 다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영원토록 멸망받게 될 사람들이 있음을 보여 준다.

순응하는 과정을 통해서 그의 안전이 보장되며 그의 구원 또한 확실하게 된다... 그가 살아 있는 믿음을 유지하는 한... 성도들은 또한 죄에 대해 가벼운 태도를 취하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만 한다... 죄는 믿음을 위협하며 믿음을 잃는 것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잃는 것이다... 잠시 동안 믿었다가 시련이 오면 떨어져 나가는 것, 즉 구원 취소가 가능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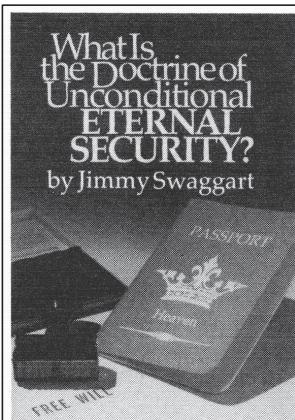
이 점에 관한 한 오순절주의자인 스웨가트는 심지어 위의 진술보다 더 확실하다. 그는 “이미 증생한 신자가 다시 한 번 증생한 신자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지 않다.”라고 진술했다(「무조건적인 영원한 안전의 교리는 무엇인가?」(*What is The Doctrine of Unconditional Eternal Security?*), p. 9).

그렇다면 신자가 구원을 잃게 되는 정확한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죄이다. 그 책에는 죄가 구원의 상실을 갖고 올 수 있다는 입장을 구체화하기 위한 인용문들과 진술들이 열거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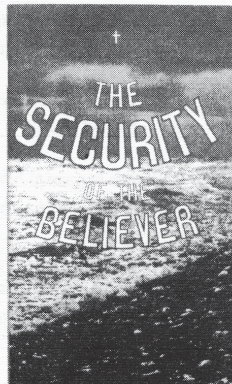
사도행전 5장 3, 4, 9절을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하나님과 성령님께 거짓말을 했다고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거짓말쟁이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가?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 거짓말쟁이들은 불 호수로 내던져진다고 되어 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운명은 그 라디오 설교자가 말한 것과는 전혀 다르다(그가 언급한 라디오 설교자는 그들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았다고 주장했음).

이러한 인용문 뒤에 다음의 구절들이 나온다.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죄를 지으면 내가 그를 내 책에서 지워 버리리라(출32:33).



Jimmy Swaggart explains how the believer can lose his salvation.



The above Assemblies of God publication teaches that a saved person can be lost.

왼쪽 책에서 스웨가트는 어떻게 신자들이 구원을 상실할 수 있는가를 설명한다.

하나님의 성회에서 발간한 〈신자들의 안전〉이라는 책자는 구원받은 사람도 다시 구원을 상실할 수 있다고 가르친다.

또한 의로운 자가 자기 의를 버리고 돌아서서 불법을 행할 때에 내가 그 앞에 걸려 넘어지게 하는 것을 두리니 그가 죽으리라. 네가 그에게 경고를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는 자기 죄 가운데서 죽고 그가 행한 그의 의는 기억되지 아니할 것이나 그의 피는 내가 네 손에서 요구하리라(겔3:20).

만일 그들이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 세상의 오염에서 벗어난 뒤에 다시 그 안에 말려들어 정복되면 마지막 끝이 처음보다 그들에게 더 나쁘니(벧후 2:20)

믿음으로 나왔다가 유혹이 오게 될 때 뒤로 빠져 믿음과 구원을 잃는 것은 가능하다.

그러므로 양자가 된 우리는 죄에 빠져 우리의 유산을 잃어버리고 양자로서의 우리 위치를 빼앗길 수도 있다. 한때 아담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그러나 죄로 인해 그는 이 같은 위치를 상실했다.

어느 누구도 죄를 짓거나 짓도록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 반역하는 삶을 사는 동안에는 구원에 대한 소망이 헛된 것이다. 하나님께 죄를 짓는 삶을 사는 동안에도 구원과 영원한 신분 보장의 약속이 유지되고 가르치는 것은 거짓이며 사탄의 가르침이다.

그런데 열변을 토해 가며 이 같은 가르침을 부르짖어 왔던 스웨가트 목사가 창녀와 습관적으로 음행을 하는 사실이 사건을 통해 밝혀졌다. 자, 그는 이제 거짓말보다 더 크며 성경에서 가장 엄격히 금하고 있는 음행 죄를 짓으니 분명히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았겠는가?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라도 육체 안에 살고 있으므로 매일매일 죄를 짓지 않을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즉 옛 본성이 아직도 살아 있다. 그러면 그때마다 우리가 구원을 잃어버리고 다시 회개하며 중생하고 또 죄를 지으면 구원을 잃어버린단 말인가?

그런데 놀랍게도, 천주교도 오순절 교파처럼 똑같은 것을 앵무새처럼 주장하고 있다. 즉 대죄(大罪)로 인해서는 구원을 잃을 수 있고 중죄(中罪)는 연옥에 이르게 하며 소죄(小罪)는 성찬식(미사)의 은혜나 사제에게 고해 성사를 함으로써 용서받을 수 있다고 한다. 천주교 신부이며 학자인 오코너(Edward O'Connor)는 「천주교 안의 오순절 운동」이라는 책을 썼다. 1971년에 인쇄된 이 책은 곧장 천주교의 고전으로 인정되었고 바티칸과 카톨릭 행동주의자들에 의해 지금까지 보배로 간직되고 있다. 그 책에서 오코너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비록 그들(오순절주의자들)이 프로테스탄트 배경을 갖고 있긴 하지만 오순절 교회들은 그들의 믿음, 태도, 관행에 있어서 그리 프로테스탄트적이지 않다. 많은 역사가들과 오순절 교회 교인들은 자신들이 크리스천 세계 내에서 프로테스탄트와 천주교 사이에 있는 '제3의 세력'이라고 믿는다(p. 23).

오순절 영성을 받아들인 천주교인들은 그것이 자신들의 전통적인 믿음과 생활과 조화를 이룸을 발견했다. 그들은 그것이 어떤 이상하며 익숙하지 못한 종교에서 온 것이 아니고 그들 자신 속에서 자연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받아들인다(p. 28).

오순절 운동이 프로테스탄트의 영향을 받아들이는 것을 의미한다고는 볼 수 없다(p. 32).

오순절 운동 안에서 성령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영적 경험은 천주교회의 전통적인 ‘영’(靈, the spirit)에 관한 신학과 완전한 조화를 이룬다(p. 18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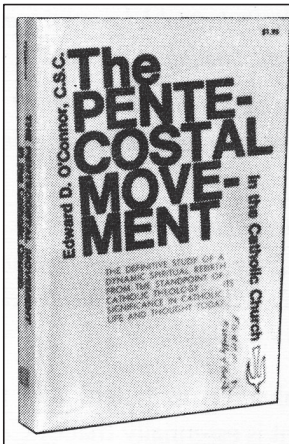
오순절 운동의 경험은 우리의 신뢰할 만한 영적 운동들의 유효함과 적절함을 증명해 주는 듯하다(p. 191).

더욱이 오늘날 오순절 교회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교리는 천주교의 전통적 교리들이 모습을 갖추어 가던 중세기 초반에 일어났던 여러 단계들과 비슷한 단계들을 거치고 있는 듯하다(pp. 193-194).

오순절 운동이 가르치며 행하고 있는 ‘구원의 은혜’는 천주교,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우리 인류가 알고 있는 모든 이단 종교들이 가르치는 것과 대동소이하다. 다시 말해 그것은 ‘죄를 지으면 구원이 상실될 수 있는 은혜’이다.

오순절 은사 운동을 하는 이들은 그들이 정통과 오순절 교도든, 천주교도든, 그리스 정교회 교도든, 프로테스탄트든 혹은 그 외의 다른 조그만 그룹에 속했는지 상관없이 모두 죄란 은혜의 상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구원의 상실을 가져오는 중심 매체라고 믿고 있다. 이 같은 거짓 은혜에 강력하게 대응하며 그것으로부터 의롭게 분리되고 거짓 은혜 위에서 승리하는 것은 다름 아닌 성경적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이다.

구원을 위한 이 은혜는 결코 예수 그리스도라는 분과 분리될 수 없다. 그러나 거짓 은혜는 어떤 이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떼 내어 거짓 복음과 거짓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한다.



*Father Edward O'Connor tells how members of the Assemblies of God gave the spirit to Roman Catholics and then how these latter became more fervent in their Catholic faith.*

이 책에서 오코너 신부는 어떻게 하나님의 성회 멤버들이 카톨릭 교도들에게 그 영(the spirit)을 주었는가를 설명한다.

# Papal / Pentecostal Grace

A HOLY LIFE —  
THE POSSESSION OF  
SALVATI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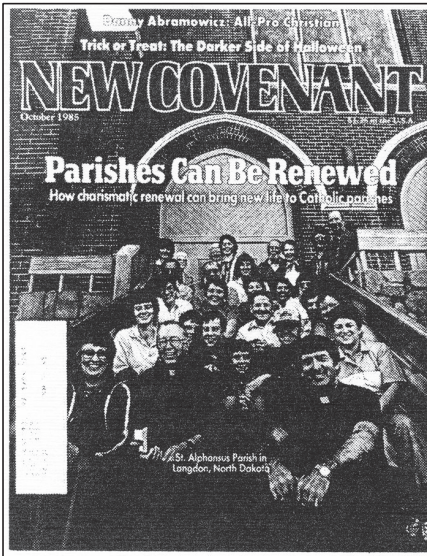


A WICKED LIFE —  
THE LOSS OF SALVATION



*Loss of salvation — the gambling of one's soul as taught by Catholicism and Pentecostalism. Catholic sacramental grace is lost through any mortal sin. Pentecostalism's saving grace is forfeited by backsliding. Death in either state means no salvation.*

구원의 상실 - 로마 카톨릭교회와 오순절주의가 가르치는 한 사람의 영혼에 대한 도박 카톨릭교회의 성례적 은혜는 대죄로 인해 상실되며 오순절주의의 구원의 은혜는 죄를 지음으로 상실된다. 그러므로 만일 구원받은 사람이 그런 상태에서 죽게 되면 그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Pastors of Pentecostal denominations transferred the spirit of Pentecostalism to Romanism. The spirit is now restoring, confirming and renewing Catholics throughout the world in their hope of salvation through sacramental grace. No protest came from these historic Pentecostals for the grace they preach is essentially the same as the grace of Catholicism.*

오순절주의 목사들은 오순절주의의 영(靈, the spirit)을 카톨릭교회 안으로 들여왔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그 영은 성례를 통한 은혜로 구원받기를 소망하는 카톨릭교도들을 회복시키고 새롭게 만들고 있다. 역사적 오순절주의자들 중 어느 누구도 그 같은 구원(비 성경적 구원)에 대해 반박을 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가르치는 은혜가 궁극적으로 카톨릭교회의 은혜와 같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을 너희가 이렇게 속히 떠나 다른 복음으로 옮겨 가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갈1:6)라고 말했다. 또한 사도 요한은 “율법은 모세에 의해 주어졌으나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왔다.”(요1:17)고 말했다.

오류와 거짓 은혜는 진리와 하나님의 은혜의 반대로서 오직 ‘사람의 영혼의 원수’로부터 터만 올 수 있다. 구원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는 죄인을 그분 자신과 은혜의 왕좌로 인도한다(딤펴전1:11-17). 사도 바울이 후에 다음과 같이 진술했듯이 이 같은 은혜는 결코 깨어지지 않으며 영원한 것이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력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창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을 수 없으리라(롬8:38-39).

구원 안에 있는 구원자의 은혜는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에 의해서만 수용된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고 인정받았느니라.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오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심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롬3:23-25)

구원의 상실을 가져오는 죄의 권능은 그리스도의 구원에 의해 파괴된다. 따라서 모든 성도는 사도 바울이 기록한 대로 죄와 죽음의 법으로부터 벗어났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들은 육신을 따라 걷지 아니하고 *성령*을 따라 걷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롬8:1-2).

하나님의 구원 안에 있는 은혜는 모든 죄들 위에서 통치한다. 신자의 구원은 결코 죄를 통해 위협을 당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성도들에게 확신을 주었다.

이는 한 사람의 불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그렇게 한 사람의 순종에 의해 많은 사람이 의롭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율법이 들어온 것은 범죄가 넘치게 하려 함이었으나 죄가 넘친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쳤나니 이것은 죄가 군림하여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것같이 그렇게 은혜도 의를 통해 군림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롬5:19-21).

끝으로 구원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분과 그분의 아버지 사이에 존재하는 순종과 관련되어 있다. 주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모든 자는 내게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나는 내 뜻을 행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내려오지 아니하고 나를 보내신 분의 뜻을 행하기 위해 내려왔느니라.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뜻은 이것이니 곧 그분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중에서 내가 하나도 잃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그것을 다시 일으키는 것이니라(요6:37-39).



오순절 은사 운동이 처음 시작되었을 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그것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은 참으로 비극적 사실이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개인이 구원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죄를 다루시는 것과 구원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 신자가 그의 삶에서 짓는 죄를 다루시는 것과의 차이를 인식하는 데 실패했다.

후자의 경우에 하나님께서는 어느 정도까지 공화를 베푸신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종종 주권적으로 공화를 멈추시고 그 신자가 징벌을 받고 심지어 죽어야만 한다는 결정을 내리신다. 이것에 대한 확실한 예가 아론과 모세의 죽음이다(미20:22-29; 신32:48-52).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그것은 신자의 삶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심지어 하나님께서 순식간에 신자를 죽이는 것도 신구약 성경을 통해 나타난다. 그러나 그 어느 경우에도 그 같은 징계가 그 신자의 영원한 구원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더욱더 넘치기 때문이다’(롬5:20).

왜 병이 생기는가?

일반적으로 오순절 은사주의 교도들은 하나님은 결코 병을 허락하시지 않으며 따라서 병은 마귀들이 일으키는 것이라고 믿는다. 다시 한 번 오순절주의는 반성경적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하나님은 분명히 욥과 사도 바울의 삶 속에서 병을 허락하셨다. 또한 복음서를 보면 출생하면서부터 눈이 먼 사람도 있었다.

그 사람에 대해 제자들은 다음과 같이 물었다.

선생님이여, 누가 죄를 지었기에 이 사람이 눈먼 자로 태어났나이까? 그니까, 그의 부모이니이까?(요9:2)

구원자 예수님의 대답은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한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의 부모나 죄를 짓지 아니하였으며 다만 이것은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일들이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요9:3).

병은 종종 “하나님의 일들을 드러내기 위해 생긴다.”라고 그분께서 말씀하셨듯이 죄는 그의 병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 물론 나는 죄와 관계된 병도 있음을 인정한다.

이것 외에도 대부분의 병은 현시대의 걱정 없는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생활 형태에 따라 많이 생긴다. 사도 바울은 거짓 교사들에게 고통을 받았던 갈라디아 교회들에 편지를 보냈다. 그 편지에서 그는 갈라디아 교회들의 성도들을 괴롭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왜곡하는 자들에 대해 경고했다(갈1:7). 이 ‘거짓 형제들’의 잘못은 과거의 오순절 그룹들이 가르치고 현시대에 그 운동의 추종자들이 유지하고 있는 잘못과 다를 바 없다. 즉 은혜에 의해 구원이 이루어졌지만 그것은 상실될 수도 있고 육체의 연습을 통해서 반드시 유지되어야만 한다고 그들은 주장한다. 바로 이런 연유에서 오늘날의 ‘영성 운동자’들은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루에도 두세 시간씩 두 손을 들고 큰 소리로 외치며 기도하고 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은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너희가 상형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 육체로 완전하게 되었느냐?”(갈3:3)고 반문한다.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사람의

구원이 그 사람의 행동과 상관있다고 가르친 자들에게 사도 바울은 그 같은 가르침이 ‘다른 복음’이라고 경고했다(갈1:6).

이 책에서 ‘피리 부는 사나이’로 묘사되고 있는 ‘인간 영혼의 원수 마귀’는 그리스도를 찾는 수많은 영혼들을 다시 한 번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로부터 멀어지게 하는데 성공했다. 이같이 왜곡된 복음을 따르는 것에 대한 두려운 결과에 대해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선포한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한 것같이 그렇게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어떤 사람이 너희가 받아들인 것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너희에게 선포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갈1:8-9).<sup>1)</sup>

---

1) 원래 책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의 부록 16 ‘구원의 영원한 안전 보장’을 참조하기 바란다.

## 제6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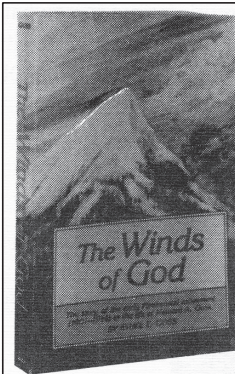
# 마귀의 음악

1901년에 시작된 오순절주의는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통찰력을 통해 이 운동이 감정적으로 고조된 음악을 통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을 감지했다. 그것의 첫 번째 형태는 재즈 음악(Jazz music)이었다. 1901년부터 1914년 동안의 14년 기간에 대해 고스(Howard Goss)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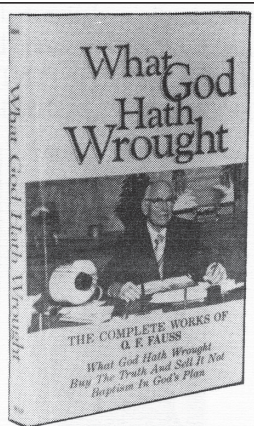
만일 재즈가 없었다면 오순절 은사 운동은 결코 수많은 남녀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지 못했을 것이다. 또한 우리는 결코 지난 50년간의 오순절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하나님의 바람」(*The Winds of God*), p. 211).

그는 계속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것은 일반적으로 그 당시 전통적인 교회 찬송과는 달랐다. 꾸민 데라고는 전혀 없으므로 재즈 성가의 작곡에는 어떤 시(詩)라든지 음악적인 기법 같은 것이 전혀 필요 없는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그 안에는 이런 것들보다 더 효과적인 것이 있었다(그것은 빠른 곡조이다). 내가 아는 한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 성가에 빠른 곡조를 도입한 장본인들이다(동일 문서 pp. 207-2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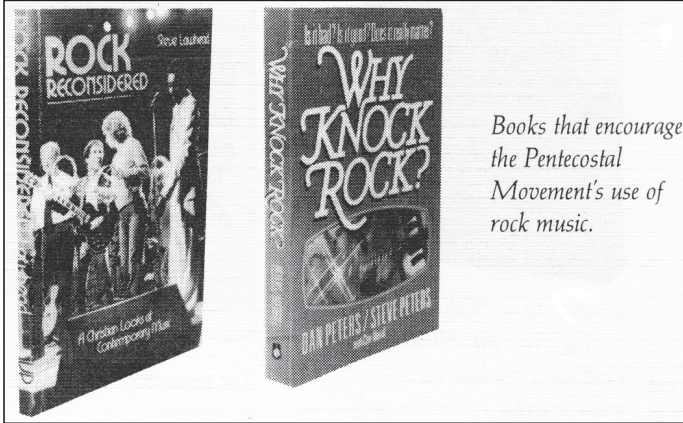
Chapter 16 — “Oh what singing” from the Winds of God, describes how jazzed-up music brought ‘revival’ to early Pentecostalism.



The beginning of Pentecostalism in Americ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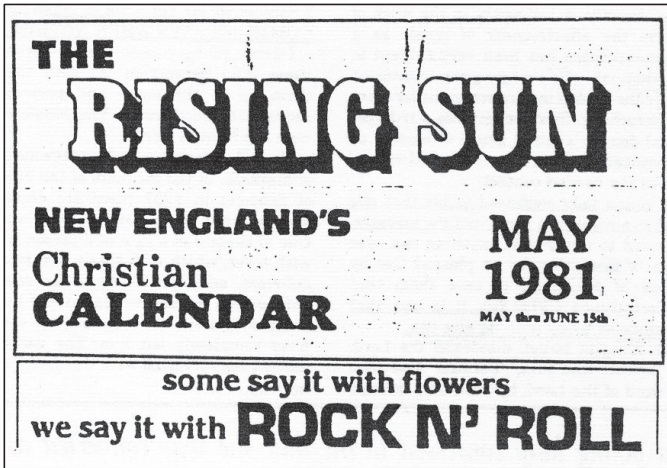
왼쪽: 〈하나님의 바람〉이라는 책의 6장은 어떻게 재즈 음악이 초기 오순절 운동에 부흥을 가져왔는가를 보여 준다. 오른쪽: 미국 내 오순절주의의 시작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그는 오순절 운동의 초창기 멤버들 중 가장 유명한 인물이었으므로 오순절 운동의 지도자라면 누구나 그를 알 정도이다. 또한 그는 1914년 4월 알칸사주의 핫스프링에서 열린 대규모 오순절 국내 집회를 조직했던 인물이다. 미국 하나님의 성회 모범 서문의 일부가 그 모임에서 만들어졌다.



*Books that encourage the Pentecostal Movement's use of rock mus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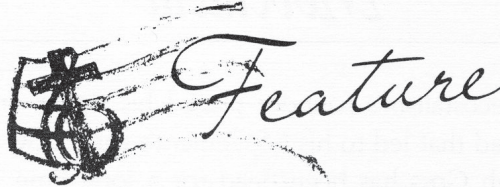
오순절주의자들이 록 음악을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책들  
 〈록 음악을 재고하자〉, 〈왜 록 음악인가?〉



크리스천 록 음악 광고



## THE CHURCH OF GOD OF PROPHECY



### MUSIC COMMUNICATES WHEN NOTHING ELSE CAN!

by Elwood Matthews

"That's music to my ears" is a statement that is made for various purposes. One man says that when the hounds are chasing a fox. Another when an automobile is running smoothly. Still another when the tax consultant says that the client will get a refund. And the list could go on. My point is that music communicates, regardless of its type.

The majority of the 29 years of my ministry have been involved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work of evangelism. So the effectiveness of music as a means of communication has been very evident to me at times when my wife's singing communicated more effectively the needed inspiration to the listeners than did my preaching. In other services a trumpet solo, a musical combo, a small group of singers or a choir communicated where I as the preacher was unable to make the needed contact.

Recently a young lady confessed to me that she was converted as a result of a song—not the message. Now I don't want to imply that anything can ever take the place of preaching for "it pleased God by the foolishness of preaching to save them that believe" (1 Corinthians 1:21). Yet, it is true that music communicates when nothing else can.

When Saul, King of Israel, disobeyed the Lord, the prophet Samuel told him, "Because thou hast rejected the word of the Lord, he hath also rejected

come that your talent and ability will be needed for a specific ministry for the Lord, and it may surprise you as it did a shepherd boy in Israel.

David was brought into the king's house, and when the evil spirit came upon Saul David took up his harp and began to play. The scripture says that when David played that Saul was refreshed, and was well, and the evil spirit departed from him (cf. 1 Samuel 16:23) Let it not be taken lightly—MUSIC COMMUNICATES WHEN NOTHING ELSE CAN!

I know young women who are prone to suffer at times from depression. At such times, I've seen them go to the piano and play—and soon the depression faded away. The music communicated with the human spirit.

Music has long been advantageous in the healing of diseases. In the memoirs of the French Academy of Sciences in 1707 there are accounts of many diseases that the physicians were unable to cure. One of these was a case of a person who was seized with fever, which soon threw him into very violent delirium, accompanied by bitter cries and terror. Soft, serene music was played and the person soon became relaxed, his convulsions ceased and the fever completely left him. The doctors failed, but music communicated with the power to bring about healing.

음악이 하나님의 영을 대신하며 진리가 왜곡된 사악한 시대가 우리 앞에 놓여 있다.

매튜스는 <어떤 것도 전달할 수 없을 때 오직 음악만이 전달할 수 있다>는 제목의 글을 썼다. 그 글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최근에 어떤 젊은 여인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노래에 의해서 다시 태어나게(거듭나게) 되었다고 내게 고백했다."

고스 목사는 1924년의 오순절 목회 연합(Pentecostal Ministerial Alliance)을 조직하는 데 큰 역할을 했으며 또한 오순절 교회 협회의 사무총장으로 선출되었고 1951년까지 연합 오순절 교회의 사무총장으로서 재직했다. 고스는 이같이 말했다.

내가 아는 한 우리가 처음으로 복음 성가에 빠른 곡조를 도입한 장본인들이다... 1901-1914년 당시 대부분의 교회 음악은 느리고 질질 끄는 듯했으며 마음이 젊은 사람들에게는 최소한 지루해 보였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다 바꾸었다... 그것들은 종종 재즈식 찬송가라 불렸다... 지금 그 같은 음악은 복음주의적 음악이라는 표현에 의해 어느 정도 위엄을 갖추게 되었다. 만일 재즈가 없었다면 오순절 은사 운동은 결코 수많은 남녀들의 가슴속으로 파고들지 못했을 것이며 우리는 지난 50년간 계속된 오순절 부흥을 경험하지 못했을 것이다(동일 문서 pp. 208-212).

### 록 음악이 은사 운동 안으로 들어간다

위에 언급된 오순절 은사 운동의 창립자는 자신의 운동이 초기에 성공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준 원인을 제대로 지적해 주었다. 비록 고스 목사가 죽은 지 이미 오래 되었지만, 오순절주의의 진정한 능력에 대한 그의 이해는 지나온 어두운 과거로부터의 무시무시한 유령과 같이 떠오른다. 그가 이해했던 것은 오늘날의 현대식 오순절주의의 찬란한 성공이 ‘음악’을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때에도 음악이었고 지금도 음악이다. 단지 그 양상만 달라졌을 뿐이다.

거의 50여 년 동안 재즈 음악이 오순절 운동 뒤에서 왕처럼 군림해 왔고 그 뒤 새로운 은사주의의 천재적 음악이 나타났다. 그 음악은 우선 1960년대에 오순절 음악 무대에서 자신의 지휘봉을 휘두르기 시작했다. 그리고 개회식을 알리는 음악과 함께 그 지휘봉이 내려왔을 때 강당을 가득 채웠던 소리는 바로 록 음악이었다.

록 음악은 ‘현시대 크리스천 음악’(Contemporary Christian Music, CCM)이라는 가면을 쓴 채 오순절주의의 담을 넘어 들어갔다. 록 음악이 그 운동에 얼마나 심각한 영향을 미쳤는가는 말로 다 설명할 수 없을 정도이다. 오순절주의를 통해 현재 일어나고 있는 불길의 전형적인 예는 지금 테네시주 클리블랜드에 본부를 둔 ‘하나님의 교회들’ 교파 안에 있는 많은 회중들 속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 교회는 1918년에 하나님의 험필 교회로 설립되었으며 그것은 애틀랜타주에 있는 최초의 오순절 교파였다.

그 교회의 담임 목사인 워커는 ‘PTL 클럽’이라는 TV 프로그램의 짐 베이커, 순복음 협회, 팻 로버트슨의 ‘700클럽’ 등과 긴밀한 유대 관계를 맺고 있다. 마운트 파람의 하나님의 교회에는 18명의 부목사들 외에도 르페브르(Mylon Lefevre)라는 이름의 전도 목사가 있는데 그는 24명의 장로 중 하나이다. 르페브르는 처음에 록 음악 그룹인 롤링 스톤즈, 에릭 클래프톤, 리틀 리처드 등과 함께 공연을 했다. 그의 음악은 임페리얼스 같은 록 음악 그룹에 의해 녹음되었다. 이제 그 록 스타는 예전의 세속적 록 음악가들이었던 자신의 친구들을 모았다. 그들은 ‘브로큰 허트’(Broken Heart)라는 그룹사운드를 조직했고 그 밴드 부대는 록 음악회를 위해 약 225톤이나 되는 도구들을 마운트 파람 오순절 교회에 보관하고 있다. 그 밴드가 연주하며 르페브르가 노래를 하면 7,000석이나

CHARISMA MUSIC FEATURE

# USING ROCK

As a boy, Mylon LeFevre sang with his gospel-singing family. But when his big-time rock is rock, it tells that lifestyle. It's as a kid, Jesus. It's bringing Jesus to music the way it was never done before.

## TO REACH



beat reverberates through the dimly lit Mt. Paran Church of God auditorium. Teenagers on the front row are on their feet, clapping and cheering. On stage, members of the rock band wave guitars in the air. Their song concludes in a burst of light and fireworks.

This is no ordinary gospel concert. A lone figure approaches center stage. He is dressed in flashy red trousers, white jacket. His dark hair falls over his collar. He's Mylon LeFevre.

He's the church's outreach pastor and one of the congregation's 24 elders. This is a Monday night outreach in an auditorium of Mt. Paran Church of God's big Family Life Center complex behind the church's 7,000-seat auditorium.

He gestures around the darkened auditorium. "I've stayed in (ex-Beatle) George Harrison's house, and his house is bigger than this building," he says in a slow Atlanta drawl. "It used to be a monastery."

He pauses.


"Me and Elvis used to get high together. We lived in castles together."

By the time he was in junior high, he was playing guitar. He had a band called "The LeFevres." He had a band called "The LeFevres." He had a band called "The LeFevres."

22 FEBRUARY 1985, CHARISMA

CHARISMA FEBRUARY 1985 23

오순절 은사 운동의 대변자 (카리스마)의 록 음악 선전 기사 르페브르는 록 음악을 통해 선교한다는 제목하에 크리스찬 록 음악을 찬양한다.



CHARISMA FEBRUARY 1985

# A

beat reverberates through the dimly lit Mt. Paran Church of God auditorium. Teenagers on the front row are on their feet, clapping and cheering. On stage, members of the rock band wave guitars in the air. Their song concludes in a burst of light and fireworks.


This is no ordinary gospel concert. A lone figure approaches center stage. He is dressed in flashy red trousers, white jacket. His dark hair falls over his collar. He's Mylon LeFevre.

He's the church's outreach pastor and one of the congregation's 24 elders. This is a Monday night outreach in an auditorium of Mt. Paran Church of God's big Family Life Center complex behind the church's 7,000-seat auditorium.

He gestures around the darkened auditorium. "I've stayed in (ex-Beatle) George Harrison's house, and his house is bigger than this building," he says in a slow Atlanta drawl. "It used to be a monastery."

He pauses.

"Me and Elvis used to get high together. We lived in castles together."



**MYLON LEFEVRE**  
After Living a Life for 34 Years, the Rock 'N' Roller Now Steps About the Rock of Ages.

**C. M. MIRRO:**  
Husband, Love, Hair, Melting

**KENNETH COVELAND:**  
When the Harp, the Guit, and the Rock

(카리스마)는 1985년 2월호에서 르페브르를 표지 인물로 소개했다. 그는 34년 동안 록 음악 등을 전공했으나 이제는 '만세 반석'을 찬양한다. 그는 비틀즈의 해리슨의 집에서 기거했는데 그 집은 한때 수도원이었다. 그는 '나와 엘비스 프레슬리는 함께 마약으로 인해 흥분되곤 했다.'고 말한다.

Issues

# Christian Music Renewal

By Richard Lovelace

Why has God given us a revival of praise songs and popular music, instead of another Johann Sebastian Bach? Is it because our awakening is shallower?

No: it is because He wants to make this renewing work of the Spirit as broad as possible. Communism has often travelled into Third World countries in the words of popular songs. A message in this form goes right to the heart of a people.

The Charismatic praise songs have been widely circulated in the church. Christian rock musicians, however, are gifts to the body of Christ which have not been properly appreciated. We ought to be producing Christian "videos" and running Christian rock radio stations in every area where there is a strong concentration of young people.

Why do we fail to do this? Probably because of a severe generation gap. The music that older Christians like to listen to produces an instant desire to switch channels, among young people—and the reverse is just as true.

In the meantime, we are wasting a great resource for youth evangelism and nurture. We need to open up the media channels, and the financial resources, required to take these shining lights out from under bushels, and put them on lampstands. This is one of the goals of the Foundation for Church Renewal with which I have been working.

In 2 Samuel 6:12-14, we read of David bringing the ark of the Lord into Jerusalem, dancing before it while accompanied by musicians. Today God has given us a band of musicians to aid in renewing the church, as He brings home His Word in our hearts through the Spirit. Let us do all that we can to support those Christian artists who are His special gift for this time of renewal!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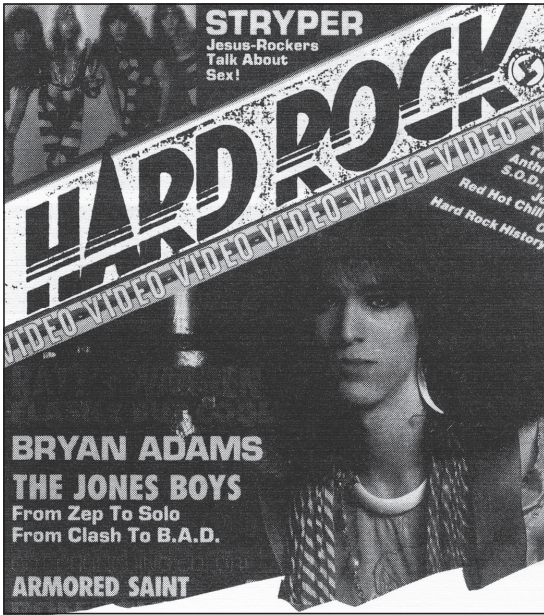
1985년 2월호 (카리스마) 지는 '크리스천 음악 부흥이라는 제목하에 크리스천 음악이 이제는 크리스천 록 음악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크리스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마다 크리스천 록 음악 방송국을 세워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 내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교회 갱신을 위한 토대'라는 모임, 즉 크리스천 록 음악 모임의 목적이다.'

'우리는 이처럼 교회 갱신이 필요한 때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선물인 크리스천 록 음악 가수들을 전적으로 지지해야만 한다.'





스트라이퍼 멤버들과 그들의 발언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죄시  
해 보자. 사실 그것은 참 재밌는 것이다.

십자가를 걸었다고 해서  
크리스천이 아님을 명심하자.

되는 강당이 꼭 찬다. 르페브르는 전국을 순회하며 오순절 교회들과 현시대 음악 페스티벌 등에서 연주한다.

오순절주의 기관지 「카리스마」에서 보도되었듯이, 르페브르는 가벼운 크리스천 음악을 연주하지 않으며 아이들을 끌어모으기 위해 상상력에 의한 전통적인 '록앤 롤'(Rock and Roll)을 연주한다(1985년 2월호). “나와 엘비스 프레슬리는 함께 마약을 먹고 흥분하곤 했다.”라고 말하던 그 록 스타는 지금도 여전히 빨간색 바지와 무릎까지 올라오는 하얀색 부츠, 검은 셔츠와 빨간 재킷을 입고 있다.

그는 대히트를 했던 'Without Him'이라는 노래와 똑같은 록 음악을 교회 내에서 복음 성가란 이름으로 연주하고 있다. 'Without Him'은 엘비스 프레슬리에 의해 녹음되었다. 그런데 그 노래에는 엘비스 프레슬리 당시와 다른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이제는 청중들이 모두 오순절 운동 추종자들이라는 것이다.

우리는 크리스천 비디오테이프를 만들고 젊은이들이 많이 있는 곳마다 크리스천 록 음악 방송국을 세워야만 한다. 우리는 이제 등불을 켜서 등잔대 위에 두어야만 한다. 그것이 바로 현재 내가 소속되어 일하고 있는 '교회 갱신을 위한 토대'라는 모임, 즉 크리스천 록 음악 모임의 목적이다.

위에 적힌 충고는 오순절주의를 대변하는 「카리스마」의 주요 기사에서 발췌한 것이다. 현대식 크리스천 음악은 1985년 2월에 발간되었던 특별호의 주제였다. 그 기사의 저자인 러브레이스 박사는 오순절주의 목사이며 매사추세츠주 하우스 해밀톤에 있는 고든-콘웰 신학교 교회사 담당 교수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썼다.



Stryper, left to right: Tim Gaines, Michael Sweet, Robert Sweet and Oz Fox.

what Jesus' whole focus was: don't get out of hand so that you're nailing one another and accusing one another.

**HRV:** But certainly a lot of Christians do.

**RS:** But you've got to remember, it's very easy to say you're a Christian, but when it really comes down to having Christ inside them, and being changed by him, it's a whole different thing.

**HRV:** Do you go to church a lot?

**RS:** Well, the truth is, not really. A lot of people think that's actually a part of Christianity. It can be, if it helps you grow in the Lord, and it can be if you're learning from it, and it can be if you feel it helps others. But, if you look through the bible, so many men, take John the Baptist for example, he never darkened the doors of a church in his life. Let's put it this way—religion

is man reaching up to God with sincerity, and most of the time failing. Christianity is God reaching down to man.

**HRV:** So you're always striving to be the best person you can possibly be?

knife on a security guard and he said, "This is for the band Stryper!" and they arrested him and took him out of the building. It's trying sometimes when people are judging you just right at the moment, and there's a lot

**"What God says sin is, let's face it, it's fun!"**

**RS:** That's what God wants, and that's what I want. You know it's not an easy road, it really isn't. There's a lot of times when patience is tried—for example, at the show tonight we had a few wackos, a few death threats. There was a kid who pulled a

to put up with. But God gives you the patience.

**HRV:** What are your audiences like?  
**RS:** It's a wide range of people and I'm very thankful for that. A lot of people think of Stryper audiences as all Christian. Now you saw the show

**HARD ROCK VIDEO 55**

전형적인 헤비메탈 하드록 비디오 잡지에 실린 '스트라이퍼'라는 유명한 크리스천 록 그룹 '하나님이 죄라고 부르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 보자. 사실 그것은 참 재미있는 것이다.'

과연 이들은 사탄주의자들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인가? 혹은 동성애자들인가, 아니면 정상적인 남자들인가?



크리스천 록 스타들: 과연 이들은 정상적인 크리스천들인가?

틴에이저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려 했을 때 나는 새로운 록 음악 문화와 접하게 되었다. 밥 딜런, 비틀즈, 사이먼과 가펩클 등의 노래를 들으면서 나는 요한 스트라우스 이후에 가장 인기 있는 음악이 되어 버린 그들의 노래 기법과 창작성 등에 매료되었다... 나는 하나님께 그 분야의 크리스천 지도자들을 주실 것을 기도하기 시작했다. 1960년 후반부터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듯했다.

1958년 7월호 「카리스마」는 '제5회 연례 음악 여론 조사'를 발표했다. 그 잡지는 "여러분 가운데 74%가 그 어떤 음악보다도 현대판 크리스천 음악을 선호한다고 대답했다."라고 진술했다. 또한 가장 많은 요청을 받은 분야는 '하드 록' 음악이었다.

CROSSOVER

### Christian Singer Appeals to Fans of Secular Pop Music

Is Amy Grant sending mixed messages?

Last year, when New York Times writer John Rockwell visited New York City's largest record stores, he had difficulty finding any of Amy Grant's albums. This year, with her new album on *Billboard* magazine's top-200 chart, Rockwell—or anyone else—should have no trouble finding the record.

Grant, a singer who has inspired Christian listeners since her 1978 recording debut as a shy teenager, is gaining a hearing from fans of secular pop music. A & M Records distributes Grant's latest album, *Unsung*, to some 20,000 secular record outlets, while Word Records distributes it to the Christian market. "Find a Way," the first single released from the album, found its way to Top 40 radio stations nationwide. *Unsung* achieved gold status (500,000 units sold) and a #35 ranking (out of 200) on *Billboard* magazine's "Top Pop Albums" list.

Later this spring, A & M released one of Grant's earlier albums, *Straight Ahead*. That recording has held a spot on *Billboard*'s top-200 album chart for more than 17 weeks. Sources at Word Records say Grant may account for as much as 20 percent of the company's \$35 million in annual sales.

Grant's increased popularity has attracted the attention of several television and radio programs, and many publications—including *Time*, *Newsweek*, *People*, and *USA Today*. Her fan has also given rise to questions about Christian singers who try to appeal to secular audiences.

**Hard-edged rock**

Many Christian listeners reacted nervously to *Unsung*, because the music is hard-edged rock. The album includes some songs with direct Christian lyrics and others that approach life and love from a more subtle Christian perspective. On the album's liner notes, five of the ten songs are introduced by passages from the Bible.

Grant was unavailable for an interview. But her comments about her image and her music have been recorded: interviews produced by Myrrh Records. "There is a group of Christian artists who want to devote their lives totally writing the music for the church in 1980—the new worship movement," she said.



Amy Grant moves into the secular market, she said. "But I also feel like there's a

mont Church, which Grant and her husband, Gary Chapman, attend, said he feels she is doing God's will. "She's not always wise in the way she says things," Finto said. "But I really do believe she's where God wants her to be. Amy desires to be a full person—to be sexual in a godly sense. She doesn't want to be a sex symbol, but wants sex to be seen as a good thing, a godly thing. . . . She is bolder in her [Christian] testimony than ever has been."

Some Christians in the Fresno, California, area were shocked when an advertisement in the *Fresno Bee* said Grant was being sponsored by Budweiser beer. After it was made known that Grant's contract prohibits advertisers of tobacco, alcohol, or gambling establishments from sponsoring the singer, the newspaper printed a retraction. A similar mistaken advertisement in Detroit apparently went unnoticed until the concert had passed.

However, on several occasions Grant has appeared with a number of other musical acts in a concert series sponsored by a beer company. On those occasions, the advertising agreements were made between the beer company and the local concert promoter, not between the beer company and Grant.

**Risky business**

Don Butler, executive director of the Gospel Music Association—which has awarded Grant five *Gold Awards*—encountered similar criticism while work-

Rock artist Amy Grant's popularity is sweeping Pentecostal and Catholic circles. Friar Jude Winkler of the St. Anthony of Padua Province idolizes her in his Jan. 2/86 Church World article. It is entitled "Rock Music — it can be an instrument of (Catholic) evangelization."

NEWSWEEK/AUGUST 19, 1985

RELIGION

### The New Christian Minstrels

A bold new band of evangelical musicians is making a joyful noise for Jesus.

**H**is hair is gelled up in a new-wave pompadour. A tiny silver cross dangles from one earring. In his gray leather jeans, tight white "muscle" shirt, and oversized cotton jacket, singer Tim Miner looks every inch the rebellious rocker. He grabs the microphone with one hand and lolls a clenched fist. "Fight on!" he shouts to an audience of 3,000 evangelical Christians beyond the colored floodlights. "Shake it in the Devil's face and say, 'Fight on!'"

So began the recent Christian music festival in Estes Park, Colo., an annual rave-up for evangelical kids—and pastors—that reverberates with sounds, which many preachers still damn as the Devil's own. But to its young fans, the new religious music—from mellow pop and mild rock to raucous heavy metal—is literally a godsend. Not turned on by old-time spirituals, evangelical youngsters are embracing what they call "contemporary Christian music"—played by flashy performers whose moves may be wild but whose message is worshipful.

Tim Miner, like television preachers, these evangelical entertainers are carving a new market out of an old subculture. Gospel songs have sold steadily over the years, to be sure, but they've never been quite so hot in tempo—or popularity. Last year, for example, contemporary Christian artists sold more than 20 million albums, and this is only the top of an estimated \$400 million gold mine of records, concerts and souvenirs—including T-shirts that bear such unanointed mottoes as "Sin Sucks." Every month Contemporary Christian Magazine and its offshoot, *Musical*, interview the stars, critique the latest releases and poll 150 of the nation's 1,000 Christian radio stations to chart the top acts. There's a church circuit—the evangelical equivalent of the old Jewish borscht belt—where new performers try for Dave's

Christian videos have even won display on MTV. Leading the way to popular acceptance has been Amy Grant, who's fast turning into the first evangelical superstar. At 24, Grant already has collected one platinum and three gold records, and she has won three Emmys for her smooth, upbeat sounds. Last year her concerts sold out the 6,000-seat Radio City Music Hall, and her latest hit, "Find a Way," recently reached No. 27 on *Billboard* magazine's regular Top 40 chart. Most evangelical artists record on Christian labels like Sparrow and Word and

"Your love has taken hold / And I can't fight it!—keeping it unclear whether or not the lover is Jesus. At the Estes Park concert, Britain's Sheila Walsh—who has her own BBC television show—artfully misted the stage—at these concerts, there are no drafts of marijuana fumes—Walsh held her arms out to form a shadowy crucifix. But when the beat quickened, bright lights suddenly revealed a strutting Walsh in shiny white spandex pants, an oversized white shirt,



New wave Taylor and British rocker Walsh: Sassy-but-saved alternatives to Prince and Madonna

are sold through Christian bookstores. But secular A&M recently signed an agreement with Word in which A&M markets Grant's music in secular stores, and other big-time record companies are also eyeing Christian artists.

Evangelical entertainers see themselves as providing wholesome alternatives for "teenagers who like the dazzle of pop mu-

white lace gloves and glittered hair. Her message was arresting, too: songs of troubled marriages and fear of nuclear war. The key shows similar at the festival, however, was Steve Taylor, 27, the son of a Baptist minister from Denver who combines new-wave delects with satiric lyrics. He lampoons, for example, the idols of the electronic church:

*Sensuous Rock Minstrels are building the Pentecostal Movement. This is Satan's perverted way — integration with the world as opposed to God's call for separation.*

록 스타 에이미 그랜트는 오순절주의자들과 카톨릭교도들 사이에서 큰 인기를 얻고 있다.

현재 그녀는 노래하고 춤출 때 사탄주의자들이 즐겨 사용하는 루시퍼 기호 등을 노골적으로 보여 주며 심지어 사탄주의자들의 예복을 입고 노래하고 있다. '예수나 '그리스도'가 가끔씩 언급된다고 해서 과연 그 노래가 기독교적인가? 카톨릭 관계 잡지도 "록 음악은 카톨릭 복음화의 도구가 될 수 있다."라고 말한다. 세상과 짝을 하는 록 스타들은 현재 오순절 은사 운동을 도와주고 있다. 이것은 사탄의 왜곡된 방법이며 세상과 분리하려는 하나님의 명령과 정반대되는 것이다.

## 록 음악 양성소

1862년에 미국의 유명한 시인이며 자연주의자였던 헨리 쏘로우(Henry David Thoreau)는 죽기 전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심지어 음악도 중독을 일으킬 수 있다. 것처럼 별것 아닌 것들이 그리스와 로마를 몰락시켰으며 영국과 미국을 붕괴시킬 것이다.

사실 그의 말은 이미 현시대에서 실현되고 있는 중이며 다음 페이지들이 보여 주듯이 미국 및 영국의 몰락에 대한 가장 큰 원인들 중 하나가 바로 록 음악을 주 무기로 사용하는 오순절주의이다.

「마르크스주의 음유 시인들: 공산주의자들의 음악 변조에 대한 핸드북」이라는 제목의 이미 고전이 된 책의 서문에서 저자인 노에벨은 다음과 같이 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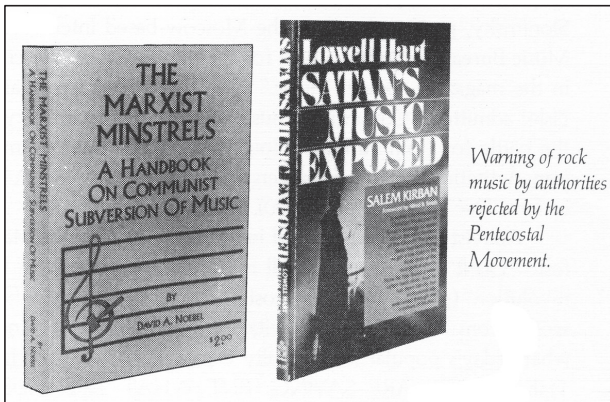
공산주의가 미국 음악의 변개 속으로 파고든 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일이다.

그 책의 저자는 미국 철학 협회의 회원이며 종교계의 인물들(Who's Who in Religion)에 수록된 사람이다.

그는 또한 「비틀즈, 마약, 섹스, 혁명에 대한 연구」, 「크리스천 록 음악, 교회 속의 새로운 이교주의」, 「리듬 소동과 혁명」 등 우리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책들을 많이 저술했다. 만일 오순절주의자들이 이런 책들의 내용과 충고를 따른다면 그들의 운동은 곧 끝장나고 말 것이다.

1929년 러시아의 프롤레타리아 음악가 협회는 자신들의 사상을 요약한 문서를 발간했다. 음악에 관한 부분에서 행동주의자들은 “고전 음악은 부르주아 계급의 것인 반면에 포크 음악은 착취당하고 억눌린 자들의 음악이다.”라고 배웠다(「1900년 이후의 음악」(Music Since 1900), 니콜라스 슬로넴스키, p. 549).

모스크바에 본거지를 둔 국제 음악 기구는 1933년 「소비에트 음악」이라는 잡지에서 음악가들을 파괴시키기 위한 계획을 발표했다.



전문가들이 록 음악에 대해 경고한 것들은 오순절 운동에 의해 배척되었다.

〈마르크스주의 음유 시인들: 공산주의자들의 음악 변조에 대한 핸드북〉

〈사탄의 음악을 폭로한다〉

그 잡지의 발간인 중 하나인 에이슬러(Hanns Eisler)는 “공산주의 음악은 공산주의 파급을 위한 전쟁에서 중대한 무기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행동주의자인 루빈(Jerry Rubbin)은 1970년의 공산주의 헌장인 「그것을 행하라」(*Do It*)에서 “록 음악이 혁명의 시작이 되었다.”라고 진술했다.

오순절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아로노위쯔(A. G. Aronowitz)의 말에 귀를 기울여야만 한다.

당국자들이 오늘날 유행하고 있는 그 음악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 알았다면 - 가사가 아니고 그 음악 자체가 말하는 것 - 그들은 단지 그것에 대해 불만스러워만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들은 그것을 금지할 것이고 모든 레코드판을 부수어 버리고 그 음악을 연주하려는 사람들을 체포했을 것이다(「록 음악 시대, 미국 문화 혁명의 소리」, p. 190).

의미심장하게도, 러시아는 1961년에 록 음악을 완전히 금지하였다. 그것에 대해 1963년 4월 2일 뉴욕 타임스는 “그것이 소련의 윤리 법규와 잘 맞지 않았다.”라고 설명해 주었다. 특히 비틀즈의 노래들은 러시아에서 금지되었다.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사실은 가사가 문제가 아니고 템포나 리듬이 록 음악의 사탄주의적 성격을 만들어 낸다는 것이다.

유명한 지휘자요 작곡자였던 티옴킨(Dimitri Tiomkin)은 다음과 같은 진술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강조했다.

록 음악의 큰 비트는 청중들을 흥분하게 만든다. 록 음악에서 멜로디나 가사는 거의 의미가 없고 단지 리듬만이 중요하다(「로스앤젤레스 헤랄드 이그재미너」(*Los Angeles Herald Examiner*), 1985. 8. 8. p. 9).

이 같은 사실을 지지하며, 보수적 잡지인 「미국의 수호신」(*American Mercury*)은 다음과 같이 경고했다.

이런 종류의 음악은 젊은이들의 몸과 정신과 혼에 대한 빛과 어둠 사이의 전쟁에서 매우 위험하며 교활한 무기이다. 그것은 현재 학생들의 부모·교사 협의회와 목사들 그리고 다른 지성 그룹들이 힘을 모아 싸우고 있는 음란한 영화나 잡지 등과 같다(1961년 9월, p. 49).

심지어 기독교의 적들도 록 음악의 신비하며 위력적 요소가 가사가 아니라 리듬임을 잘 알고 있다. 「노래하라」(*Sing Out*)의 편집자인 실버(Irwin Silber)는 “록 음악의 위력은 비트에 있으며 그것은 비기독교적인 음악으로서 이미 확립된 전통적 가치관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다.”라고 진술했다.

「록 음악의 파괴적 성격」과 「록 음악과 타락」이라는 책에서 노에벨 교수(D. Noebel)는 다음과 같이 결론지었다.

지금과 같이 혁명적인 기간에 ‘헤비 비트 음악’이 서구 문화를 파괴시키고 하나님께 반항하면서 서구 문화를 파괴시키려는 계획을 가진 선동적인 젊은이들을 부추긴 촉진제가 되어 왔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마르크스주의 음유 시인들: 공산주의자들의 음악 변조에 대한 핸드북」, p. 70).

## 사탄이 크리스천 음악당 안으로 들어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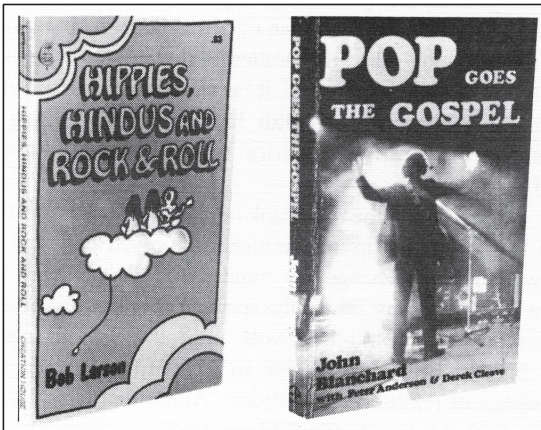
록 음악을 통해 하나님을 제거하는 것은 참으로 치밀한 사탄의 계획이다. 한때 록 음악을 연주했던 펙(Richard Peck)은 “현시대 크리스천 음악은 분명히 록 음악의 형태이다.”라고 말한다(『Rock, Rock, Rock』, p. 75). 또한 신비주의에서 현시대 음악의 역할을 밝히면서 그는 “사탄은 경배를 원하며 현재 록 음악이라는 매체를 통해 경배를 받고 있다.”라고 말한다.

현시대 음악의 사탄주의적 성격에 대해 말하면서 그는 “현시대 크리스천 음악(CCM)은 종교통합주의 및 은사주의의 영(靈, the spirit)에 대해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 같은 종교통합주의는 배도한 프로테스탄트 교단들과 로마 카톨릭교회 내로 깊숙이 파고들고 있다.”(p. 86)고 진술했다.

그 책의 저자인 펙은 13살에 이미 록 음악의 대가가 되었고 곧 국내에서 유명한 록 음악 연주가가 되었으며 후에는 록 음악 출판사를 경영했고 마침내 록 음악 개발 감독이 되었다. 그는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 현시대 크리스천 음악(CCM) 지부를 설립하는 것을 돕기 위해 여행을 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회심했고 록 음악의 구렁텅이에서 구출을 받았다.

밥 라슨(Bob Larson)은 자신의 저서인 『히피족, 힌두교도들, 록 음악』이라는 책에서 그와 똑같은 해석을 아래와 같이 내리고 있다.

미국의 히피 운동은 모스크바와 북경의 공산주의 정책과 확실히 일치하면서 널리 파급되었다. 사탄의 광적 군대들은 비교적 자신들의 사업을 잘 진행해 왔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히 밝혀 두어야 할 사실은 그들이 록 음악의 도움 없이는 결코 이런 일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이다.



〈히피족, 힌두교도들, 록 음악〉  
〈팝 음악이 복음 성가가 되다〉

라슨 역시 15세에 이미 자신의 록 음악 그룹사운드를 갖고 있었다. 그는 TV 프로그램의 유명 인사가 되었고 후에는 도박장으로 잘 알려진 미국 애틀란틱시티의 유명한 컨벤션 홀에서 연주하기도 했다. 그때 라슨은 동양의 신비 종교와 록 음악 사이에 아주 놀랄

만한 관계가 있음을 발견하게 되었다. 그 뒤 그는 이것을 조사해 보기 위해 1969년 인도의 캘커타, 싱가포르, 홍콩 등을 방문했다.

그 결과 그는 힌두교의 신(神)인 시바(Shiva)에 대한 힌두교도들의 예식이 마귀에게 사로잡히는 무서운 행사임을 발견하게 되었다. 이 같은 악몽을 스스로 목격하며 라슨은 틴에이저들이 미친 듯이 춤추는 것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진술했다.

힌두교도들의 음악 리듬은 록 음악에서처럼 강하게 반복되며 끊어지는 템포였다. 여기 싱가포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은 미국 내 대부분의 틴에이저 댄서들 사이에서 발견되는 것이다. 갑자기 한 틴에이저가 비명을 질렀다. 그의 몸은 갑자기 뻗뻗하게 되었고 그는 발을 동동 구르며 땅에 쓰러졌다.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나는 황급히 그 옆에서 있는 남자에게 물었다. ‘우리는 대개 우리 신이 이렇게 우리 안에 들어올 때까지 이런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추지요.’라고 그는 대답했다(p. 78).

또한 인도를 떠날 무렵에 라슨은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다.

나는 갠지스강으로부터 출발하여 서서히 걷기 시작했다. 나는 그 어느 때보다도 사탄이 비틀즈, 히피족 그리고 힘차게 내려치는 록 음악 등과 같은 것을 창시했음을 확신하게 되었다. 이런 모든 것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을 이교도들의 우상 숭배 속으로 빠져들게 하려는 사탄 자신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한 매개체라는 사실이 더욱더 확실해졌다(p. 62).

1968년 1월, 갠지스강의 득을 떠나오기 전에, 라슨은 하늘을 바라보며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 그 뒤 그는 이단 연구에 종사하는 크리스천이 되었다.

그 어느 것도 내 마음을 바꾸도록 하지 않을 것이다. 그 어느 것도...

나는 우리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그뿐만 아니라 다른 많은 크리스천들에게 영적인 용기와 분별력 그리고 능력을 주셔서 그 같은 소원을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하나님께 기도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 주님께서 오시게 될 때 모든 신자들은 “악한 것을 혐오하고 선한 것을 굳게 붙들라.”(롬12:9)는 명령을 순종했는지 혹은 거부했는지 예수님께 판단을 받게 될 것이다.<sup>1)</sup>

---

1) 록 음악 문제에 대해서는 원래 책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의 부록 3 ‘열린 예배’를 참조하기 바란다.



## 하나님의 부르심

오순절 은사 운동 및 에큐메니컬 종교 통합을 주도해 온 ‘피리 부는 사나이’의 이야기는 여기에서 끝나지 않는다. 비극적이긴 하지만 많은 이들에게 다음과 같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되면서 끝이 올 것이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2-23).

구원자를 올바로 알며 오순절주의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그날이 올 때까지 한 가지 사명을 수행해야만 한다. 그것은 바로 ‘피리 부는 사나이’의 지상 왕국과 그의 오순절 은사 운동으로부터 사람들을 해방하는 것이다. 20세기 초반에 오순절 운동을 지켜보던 많은 사람들에게 혼동의 파도가 스치며 지나갔다. 그러나 모든 이들이 속임수에 걸리지는 않았으며 몇몇 사람들의 평가는 참으로 정확했다.

‘성경 강해의 왕자’로서 기독교 내에서 존경과 사랑을 받아 왔던 모건 박사(Dr. G. Campbell Morgan)는 오순절 은사 운동을 ‘사탄의 마지막 구도’라고 결론지었다. 많은 이들이 “도대체 그렇게 학식이 많은 모건 박사가 왜 그런 말을 했을까?”라며 의아해했다. 이 같은 발언은 그가 죽기 전인 1942년에 있었다.

대언자 이사야와 비슷하게, 모건 박사는 사람의 타락과 대조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이해하게 되었다. 이 같은 깨달음으로 인해 그는, 육체에 호소하며 그리스도 중심이 아니라 그 운동의 영(靈, the spirit) 중심이고 경험을 강조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추종자들의 행위에 따르는 구원의 계획들을 가르치는 오순절주의를 바라보게 되었을 때 전율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모건 박사는 사탄의 깃발이 오순절주의라 불리는 영역에서 휘날리고 있음을 깨달았다. 따라서 그의 영혼은 젊은 시절의 다윗과 같이 분노로 인해 흥분되었다. 하나님을 향한 골리앗의 무례한 행동이 다윗의 가슴속에 거룩한 분노를 자아내게 했듯이 하나님의 진리, 거룩함, 그리스도와 그분의 피를 믿음으로 인해 얻게 된 의로움에 사무쳐서 모건 박사는 위와 같은 진술을 했다.

## 분별, 투쟁 그리고 분리

오늘날의 분별력 있는 신자들에게는 과거의 혼동과 당혹감의 구름이 서서히 걷히고 있다. 오순절 은사 운동으로부터의 행동, 행위, 소리 등은 이 운동의 정체가 무엇인가를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오늘날에는 제대로 볼 수 있는 눈과 들을 수 있는 귀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마13:10-16 참조).

우리가 살과 피에 대항하여 싸우지 않으므로 우리의 사명은 영적 전쟁과 관계가 있다. 오순절 은사 운동의 ‘피리 부는 사나이’, 즉 사탄은 현재 믿기 어려울 정도의 능력으로 전쟁을 치르고 있다. 거의 3억 명이 넘는 추종자들이 그의 에큐메니컬 군대에 빨려 들어갔고 그는 곧 성공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갑옷을 입도록 부르시고 계신다.

끝으로 내 형제들아, 주 안에서 마음을 강하게 하고 또 그분의 강력한 권능 안에서 *그리하라*. 너희가 마귀의 간계들을 대적하여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권력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처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악한 날에 버티어 내고 모든 일을 행한 뒤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러므로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를 동여매고 의의 흉갑을 입으며 화평의 복음을 예비한 것으로 너희 발에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취해 그것으로 너희가 능히 그 사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끄며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라(엡6: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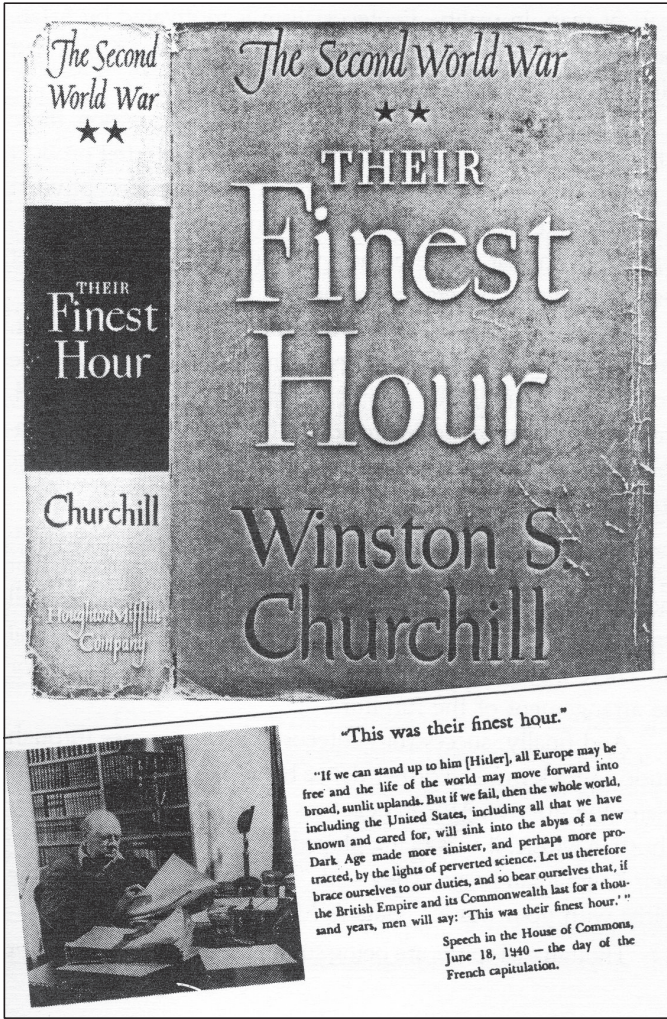
우리 믿음의 대장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곧 다시 오시려 한다. 우리에게서 이때가 바로 ‘우리의 전성기’이다.

마귀가 성공하는 데에는 다섯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로, 오순절주의는 육적이며 종교적인 사람의 마음에 강하게 호소하는 신비주의의 에너지로 능력 있게 채워져 있다. 사실 오순절 은사주의는 사탄에 의해 조장되고 있다. 그 이유는 신비주의야말로 사탄의 생산물이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음녀 바빌론을 묘사하실 때 사용하셨던 첫째 단어가 ‘신비’(Mystery)임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계17장).

첫째 이유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둘째 이유는 그 안에 성경적 진리의 요소가 있다는 사실이다. 위조품이 진짜를 많이 닮으면 닮을수록 더 많은 이들을 속일 수 있다. 나뭇가지의 색에 따라 자신의 피부 색깔을 바꾸는 카멜레온처럼 오순절 은사주의도 여러 종류의 교리나 믿음에 따라 스스로를 바꾼다.

셋째로 오순절 운동은 에큐메니컬 성격을 갖고 있다. 교황을 우두머리로 하는 전 세계적 종교 단일 체제를 실현하기 위한 계획들을 포함하는 1960년대의 제2차 바티칸 공회 이후로 인류는 종교 일치와 협동이라는 원리들을 받아들일도록 교육을 받아 왔다. 일치를 통한 단일 세계 종교 및 정부라는 개념은 오순절주의에 의해 개발되었고 양육되었다.

넷째로 오순절주의에는 인간의 노력이 중시되는 ‘행위 더하기 믿음’이라는 그럴듯한 거짓 복음이 있다. 오순절주의는, 구원받았지만 죄를 지은 상태로 죽게 된 타락한



윈스턴 처칠의  
〈그들의 전성기〉

사람들은 지옥행이며 연옥으로 가는 카톨릭교도들과 다를 바 없다고 가르친다. 사실 연옥이나 지옥이나 다를 바가 전혀 없다.

마지막으로 성공적인 오순절 은사주의의 능력은 마귀의 음악인 록 음악에 의해 이루어진다. 예전에 댄스 밴드 음악가였던 하트(Lowell Hart)는 다음과 같이 현대판 크리스천 록 음악을 들었던 아프리카 신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들이 살고 있던 칼리만탄 지역에 미국인 방문객이 찾아와서 크리스천 록 음악을 연주하고 있었다. 그때 그들은 '당신은 도대체 왜 그런 음악으로 우리들이 섬기던 마귀들을 불러내고 있는 거요?'라고 물었다(「사탄의 음악을 폭로한다」(*Satan's Music Exposed*), p. 113).

이런 음악에 의해 사악한 영들이 불러 나온다.

이제는 이런 음악 문제뿐만 아니라 오순절 운동에 대한 다른 문제들도 반드시 제기되어야만 한다. 예를 들어, 중세기 신비주의를 부활시키고 있는 그 영(靈, the spirit)은 도대체 누구인가? 오순절 운동의 이단 교리들을 아무 주저함 없이 받아들이는 영들은 도대체 누구인가? 사도 요한은 ‘오류의 영’이 있고 그 영이 계속해서 ‘진리의 영’에 대항하고 있음을 가르쳐 주지 않았던가?

끝으로 예큐메니컬 종교 일치를 위한 오순절 은사 운동을 주도하는 영들은 어떤 영들인가? 그 안에 들어 있는 거짓 복음을 조장하는 이들은 누구인가? 우리는 이런 질문들에 대해 반드시 성실하게 답변해야만 한다. 왜냐하면 사도 요한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는지 그것들을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대언자들이 나와 세상에 들어왔기 때문이라(요일4:1).

### 살아 계신 하나님의 부르심

‘피리 부는 사나이’는 참으로 사악한 영들을 불러 모았고 그들과 함께 오순절 은사주의를 만들어 냈다. 슬프게도 그 운동에 참여하고 있는 신자들 중 많은 이들은 한때 건전하게 활동하는 교회에서 섬기던, 참으로 다시 태어나(거듭난) 신자들이다. 그러나 그들은 ‘피리 부는 사나이’의 피리 소리를 듣게 되었고 그의 멋있는 모습에 굴복하게 되었으며 결국 오순절 은사 운동이라는 사탄의 현대판 군대에 가입하게 되었다.

나는 이들이 사실을 검토해 볼 수 있는 용기와 오순절주의의 ‘피리 부는 사나이’의 진짜 모습을 분별할 수 있는 지식을 갖게 되기를 진심으로 원한다. 그가 이끌고 가는 곳이 어디인지를 깨달은 후에, 그들은 “나와 내 집에 관한 한 우리는 주를 섬기겠노라.”(수 24:15)라고 말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용사 여호수아가 취했던 길을 따라가야만 할 것이다.

이같이 올바로 분별하고 분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급한 사안이다. 그 이유는 믿기 어려울 정도로 교활하며, 놀라운 능력과 선정적인 경험을 강조하는 그 사악한 영이 바로 오순절 은사 운동을 조장하며 인도하고 조절하는 초자연적인 존재이기 때문이다. 비록 과거에는 그 위력적인 영이 종교적인 감정과 경건의 탈을 썼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도 그 정체가 탄로 나지 않았지만 이제 그런 시절은 모두 지나갔다. 그런 위장 전술은 오순절 운동에 힘을 불어넣으며 그 운동을 주도해 가는 그 존재를 더 이상 숨겨 줄 수 없다. 너무나 많은 모습들이 표면에 드러나기 시작했고 철저한 조사를 위해 노출되어 있다. 이런 것들 중 특색 있는 몇몇 사실들만이 최근의 토론토 빈야드 현상과 함께 이 책에서 다루어졌다.

하나님의 부르심은 너무나 명백하며 그 부르심은 오순절주의의 모체인 음녀 바빌론의 간음 속에 갇혀 있는 자들에게 주어진 것과 똑같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

내 백성아, 너희는 그녀에게서 나와 그녀의 죄들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녀가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계18:4).

아직도 많은 성도들이 오순절 은사 운동의 밖에 머무르려 하며 자신들의 믿음을 굳건히 지키고 있다. 오순절 은사주의 고속도로를 달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그들은 이 사람들도 하나님의 명백한 경고를 듣고 복종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다.

이 같은 기도는 성도들 간의 진실한 사랑을 통해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진실한 종들이 반드시 수행해야만 하는 과제는 그들에게 큰 고통을 가져다줄 것이다. 이는 프랑스 함대를 폭파해야 했던 영국 해군 제독의 영혼 속에 있었던 슬픔과 고통 이상의 것이다. 한때 동지였던 사람들을 향해 전쟁을 선포하는 것은 결코 쉽지도, 즐겁지도 않은 일이다.

끝으로 나는 우리 주님께서 아직도 자유로이 남아 있는 성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고난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용기를 주실 것을 간구한다(딤후2:3). 그들은 현재 거룩한 전쟁에 참가하고 있으므로 과거에 하나님의 용감한 군사들이 가졌던 담대함을 필요로 한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오순절 은사 운동의 ‘피리 부는 사나이’인 사탄 마귀를 직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 부 언

하나님께서 주신 예언의 달력 속에 남아 있는 시간은 이제 거의 없다. 하나님의 은혜의 날은 이제 거의 끝이 내려 한다. 심지어 사탄 자신도 이 같은 엄숙한 사실을 알고 있다. 사도 요한에게 천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그러므로 하늘들과 그것들 안에 거하는 자들아, 너희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에 거하는 자들에게는 화가 있으리도다! 이는 마귀가 자기에게 때가 조금만 남은 줄 알므로 크게 진노하여 너희에게 내려갔기 때문이라, 하더라(계12:12).

바로 이런 사실로 인해 오순절 은사 운동을 추구하는 그의 종들은 미래의 어떤 사건들을 알고 있다. 최근에 하나님의 성회는 「일곱 명의 오순절 선구자」(*Seven Pentecostal Pioneers*)라는 제목을 가진 ‘몇 사람의 전기’를 담은 책을 출간했다. 첫 장에는 위글스워스(Smith Wigglesworth)의 삶, 병, 죽음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다. 1936년에 그는 개인적으로 두 플레시스(David Du Plessis)라는 젊은이에게 예언을 했다. 그 당시 두 플레시스는 남아프리카에서 오순절주의의 ‘사도적 믿음 선교’ 단체 총무를 맡고 있었다. 위글스워스는 그를 몰아붙이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나는 오늘 아침 주님께서 내게 보여 주신 것을 네게 말해 주도록 그분에 의해 보내어졌다. 전통적 교단들을 통해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들을 완전히 덮어 버릴 큰 부흥<sup>1)</sup>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것이 일어나면서 생기게 될 현상들은 과거에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것들이다. 그 부흥, 즉 은사주의 부흥은 현시대 곧 20세기의 기적이라고 불리는 오순절 부흥을 덮어 버릴 것이고 이미 확고히 정립된 기존 교회들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런 축복은 교회에서 용납될 것이며 그들은 1900년대 초기의 오순절주의자들이 성취했던 것을 능가하는 메시지와 경험을 갖고 앞으로 나아갈 것이다. 너는 이런 일이 커져서 결국 1900년대 초기의 오순절 운동 자체가 하나님께서 전통적 교회들을 통해 행하실 일에 비하면 너무 하찮은 것으로 드러나게 되는 것을 볼 것이다. 우리가 전에 보지 못했던 놀라운 대중 집회가 있을 것이며 훌륭한 교회 지도자들이 자신들의 태도를 바꾸고 그 부흥 운동의 메시지와 축복을 받아들일 것이다. 그런데 주님께서서는 그 부흥 운동 안에서 친히 너를 쓰시려 한다는 것을 내게 말씀하셨다. 너는 매우 유명한 인물이 될 것이다(동일 문서 pp. 37-38).

이 같은 일이 실제로 어떻게 일어났는가에 관한 이야기는 두 플레시스 자신이 저술한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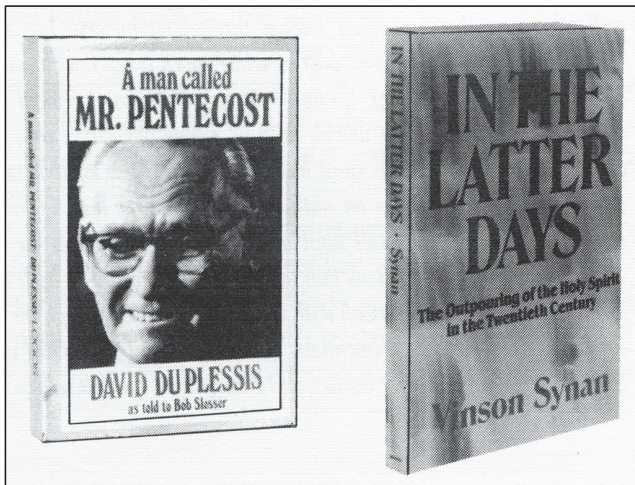
1) 여기서 그가 말하는 ‘부흥’은 1900년대 초반의 역사적 ‘오순절 운동의 부흥’이 아니고 1960년대 이후에 생긴 종교 통합적 ‘은사 운동의 부흥’을 말한다.

「미스터 오순절이라고 불리는 사람」(두 플레시스 자신)이라는 책에 기록되어 있다. 그 책의 겉장에는 “이것은 참으로 놀랄 만한 예언이다. 지나간 시간들은 참으로 놀라웠다. 그 예언이 어떻게 과거에 성취되었고 지금 성취되고 있는가? 여기에 바로 놀라운 이야기가 있다.”라고 적혀 있다. 두 플레시스의 책은 위글스워스에 의해 주어진 예언이 오순절 은사 운동이라는 전 세계적인 종교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문자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이런 것들 중 가장 놀랄 만한 것은 로마 카톨릭교회와의 일치이다. 두 플레시스는 자신의 책의 많은 부분을 할애하여 자신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교회를 용인하게 되었는가에 대해 설명한다. ‘제거’라는 장에서 독자들은 바티칸으로 가게 된다. 그 장은 ‘미스터 오순절’이 어떻게 로마 카톨릭교회를 배척하는 것을 단계별로 없애며 어떻게 기쁨과 환희를 맛보게 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전통적인 오순절주의 지도자가 이제는 하나님의 성회라는 교파의 중대한 사명을 띤 유명한 목사가 되었다.

역사적 오순절주의로부터 나온 또 한 명의 유명한 예언적 인물이 있다. 그는 지금까지 살아 온 사람들 중 오순절 운동에 관한 역사가로서는 최고의 인물로 평가되는 사이넨 박사(Dr. Vinson Synan)이다. 1985년도까지 그는 오순절 성결교회의 부사무총장을 지냈다. 사이넨의 최근 저서들 중 하나의 제목은 「마지막 날들에」(*In The Latter Days*)이다.

그는 야고보서에 있는 ‘이른 비와 늦은 비’(약5:7)라는 표현을 사용하여 자신의 주제를 펴 나간다. 사이넨은 오순절 운동이 어떻게 큰 강을 형성하고 있는가를 보여 준다. 그것은 세 개의 주류들이 함께 모이는 것으로 묘사되었다. 그 주류들 중 하나가 로마 카톨릭교회이고 그 책의 많은 부분은 어떻게 로마 카톨릭교회가 그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었는가를 보여 준다.



두 플레시스의 책  
 〈미스터 오순절이라  
 불리는 사람〉  
 사이넨의 책  
 〈마지막 날에〉

그 책은 '늦은 비의 미래'라는 제목의 장으로 끝을 맺고 있는데 다음은 그중 맨 마지막 구절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다.

아프리카와 남아메리카에 있었던 최근의 교회 성장은 21세기의 크리스천 사역들이 은사 운동의 부흥에 의해 소생된 로마 카톨릭교회와 제3 세계의 오순절 교회들의 손안에 들어 있음을 보여 준다(동일 문서 pp. 145-146).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지난 수 세기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7, 18장의 음녀 바빌론이 로마 카톨릭교회였고 지금도 그러하다는 경고를 받아왔다. 역사는 우리에게 약 5,500만 명의 성도들이 바티칸의 손에 의해 순교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교황 치하에서의 로마가 하나님의 은혜의 시간이 끝날 무렵에 전 세계적인 종교적 지도권으로서 부상하게 될 것을 보여 준다. 이제 세상이 바로 그때를 향하고 있으므로 이 예언의 성취를 위한 정치적/종교적 무대는 이미 확립되고 있다.

국제적 공산주의는 사회주의라는 이름하에 바티칸과 공조 체제를 취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에 대한 증거는 신문들과 특히 카톨릭 문서들 안에서 쉽게 발견될 수 있다. 머지않아 그 같은 공조 체제는 전 세계를 지배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시점에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중대한 책임을 지고 있다. 어둠 속에서 걷고 있는 이들에게 그분의 진리를 보여 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무이다.

최근까지만 해도 카톨릭교회에 있는 이들을 복음화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는 책자나 문서를 쉽게 구할 수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은 급변하고 있다. 현재 미국 내 대부분의 크리스천 서점들은 그런 것들을 취급하지 않으며, 기독교 내에서는 카톨릭교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형제자매라는 생각이 널리 퍼져 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시간을 위해 많은 이들을 은혜로이 준비해 두셨다. 그들의 사명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책, 테이프 그리고 다른 문서들로 무장시켜 오순절 은사 운동 및 로마 카톨릭교회의 어둠 속에 갇혀 있는 이들을 복음으로 이끄는 것이다. 좀 더 자세한 정보 및 책자를 구입하기 원하는 이들은 다음으로 편지하기 바란다.

Bible Baptist Church

P.O. Box 1348

Nashua, NH 03061, USA

Christian Truth and Victory Publications

Route 5, Box 252-A

Alexandria, MN 56308, USA

Mission To Catholics International, Inc.

P.O. Box 19280

San Diego, CA 92119, USA



## 참고 문헌

### BOOKS

- Bartleman, Frank, Azusa Street, Logos International, Plainsfield, New Jersey, 1980.
- Bea, Augustin, Cardinal de L'Unite, Editions Saint-Paul, Paris, 1963.
- Bertolucci, John, On Fire With the Spirit, Servant Books, Ann Arbor, Michigan, 1984.
- Blanchard, John, Pop Goes the Gospel, Evangelical Press, Hertford shire, England, 1983.
- Bloesch, Donald, The Future of Evangelical Christianity - A Call For Unity Amid Diversity, Doubleday and Company Inc., Garden City, New York, 1983.
- Boudreau, Albert H., The Born-Again Catholic, Living Flame Press, Locust Valley, New York, 1979.
- Churchill, Winston S., Their Finest Hour, Houghton Mifflin Company, Boston, Massachusetts, 1949.
- Dallimore, Arnold, Forerunner of the Charismatic Movement- The Life of Edward Irving, Moody Press, Chicago, Illinois, 1983.
- DiOrio, Ralph A., Called to Heal, Image Books, Garden City, New York, 1984.
- Dirvin, Joseph I., Saint Catherine Laboure of the Miraculous Medal, Tan Books and Publishers Inc., Rockford, Illinois, 1958.
- Du Plessis, David, A Man Called Mr. Pentecost, Logos International, Plainsfield, New Jersey, 1977.
- Englebert, Omer, St. Francis of Assisi, Servant Books, Ann Arbor, Michigan, 1965.
- Fauss, Oliver F., What God Hath Wrought, World Aflame Press, Hazelwood, Missouri, 1985.
- Gimenez, John, Healing the Fracture, Gift Publications, Costa Meca, California, 1981.
- Goss, Ethel E., The Winds of God, World Aflame Press, Hazelwood, Missouri, 1977.
- Harper, Michael, Three Sisters, Tyndale House Publishers Inc., Wheaton, Illinois, 1979.
- Hart, Lowell, Satan's Music Exposed, Salem Kirban Inc., Huntingdon Valley, Pennsylvania, 1981.
- Holy Bible, Authorized King James Version of 1611.
- Larson, Bob, Hippies, Hindus and Rock & Roll, Creation House Inc., Carol Stream, Illinois, 1972. (Permission is granted for one reprinting.)
- Liguori, Alphonsus, The Glories of Mary, Redemptorist Fathers, Brooklyn, New York, 1931.
- MacNutt, Francis, The Power to Heal, Ave Maria Press, Notre Dame, Indiana, 1977.

- Noebel, David A., *The Marxist Minstrels - Hand Book on Communist Subversion of Music*, American Christian College Press, Tulsa, Oklahoma, 1974.
- O'Connor, Edward D., *The Pentecostal Movement*, Ave Maria Press, Notre Dame, Indiana, 1971.
- O'Connor, Patricia, Therese of Lisieux, *Our Sunday Visitor Inc.*, Huntington, Indiana, 1983.
- Peck, Richard, *Rock, Rock, Rock - Making Musical Choices*, Bob Jones University Press, Greenville, South Carolina, 1985.
- Peters, Dan, *Why Knock Rock?*, Bethany House Publishers, Minneapolis, Minnesota, 1984.
- Qualben, Lars P., *A History of the Christian Church*, Thomas Nelson and Sons, New York, 1942.
- Ranaghan, Kevin and Dorothy, *Catholic Pentecostals*, Paulist Press, New York, 1969.
- Ranaghan, Kevin and Dorothy, *Catholic Pentecostals Today*, Catholic Renewal Service, South Bend, Indiana, 1983.
- Scanlan, Michael, *And Their Eyes Were Opened*, Servant Books, Ann Arbor, Michigan, 1976.
- Shibley, David, *A Charismatic Truce*, Thomas Nelson Inc., Nashville, New York, 1978.
- Suenens, Leon Joseph, *A New Pentecost*, The Seabury Press, New York, 1975.
- Suenens, Leon Joseph, *Essays on Renewal*, Servant Books, Ann Arbor, Michigan, 1977.
- Synan, Vinson, *In The Latter Days*, Servant Books, Ann Arbor, Michigan, 1984.
- Synan, Vinson, *Aspects of Pentecostal Charismatic Origins*, Logos International, Plainsfield, New Jersey, 1975.
- Twitchell, Thomas Donn, *That They May Be One*, Logos International, Plainsfield, New Jersey, 1979.
- Vine, W.E., *Expository Dictionary of Nezo Testament Words*, Oliphants Ltd., London, England, 1948.
- Webster, Noah, *Webster's New Twentieth Century Dictionary*, Gulf and Western Corporative, New York, 1979.
- Whittaker, Colin C., *Seven Pentecostal Pioneers*, Gospel Publishing House, Springfield, Missouri, 1983.
- Witte, Paul W., *Protestant grid Catholic Evangelicals on Common Ground*, Word Books, Waco, Texas, 1975.

## MAGAZINES

- Charisma, Strang Communications Company, Altamonte Springs, Florida, issue of April, 1982.
- Charisma, Strang Communications Company, Altamonte Springs, Florida, issue of February, 1985.
- Charisma, Strang Communications Company, Altamonte Springs, Florida, issue of July, 1985.
- Christianity Today, Carol Stream, Illinois, issue of January 7, 1983.

New Covenant, Servant Publications, Ann Arbor, Michigan, issue of January, 1984.  
New Covenant, Servant Publications, Ann Arbor, Michigan, issue of October, 1985.  
New Covenant, Servant Publications, Ann Arbor, Michigan, issue of January, 1986.  
Pentecostal Evangel, The General Council of the Assemblies of God, Gospel Publishing House, Boonville, Springfield, Missouri, issue of February 23, 1986.  
The Evangelist, Jimmy Swaggart Ministries, Baton Rouge, Louisiana, issue of November, 1984.  
The Rising Sun, Christian Media Services, Westford, Massachusetts, issue of May, 1981.  
The Rising Sun, Christian Media Services, Westford, Massachusetts, issue of October, 1981.  
Voice, Full Gospel Business Men's Magazine, Costa Mesa, California, issue of September, 1981.  
White Wing Messenger, White Wing Publishing House, Cleveland, Tennessee, issue of May 18, 1985.  
World Pentecost, Emmetten, Switzerland, issue of March, 1986.  
World Pentecost, Emmetten, Switzerland, issue of December, 1985.

#### PAMPHLETS

General Council of The Assemblies of God, Statement of Fundamental Truths, Article V - Constitution, Gospel Publishing House, Springfield, Missouri, 1969.  
Swaggart, Jimmy, What is the Doctrine off Unconditional Eternal Security?, Jimmy Swaggart Ministries, Baton Rouge, Louisiana, 1982.  
The Assemblies of God, The Security of the Believer, Gospel Publishing House, Springfield, Missouri, 1978.

## 부록 1

# 입신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한다’는 표현은 성령 은사 운동 집회 시 사람들이 뒤로 쓰러지는 현상을 묘사한 것이다. 오순절주의와 은사주의 부흥 운동 안에서 이 현상은 ‘능력 하에서 넘어지는 것’(falling under the power), ‘성령에 의해 압도당하는 것’(overcome by the Spirit), ‘성령 안에서 쉬는 것’(resting in the Spirit) 등 여러 가지 다른 이름으로 묘사되었다.

종교 사회학의 원리에서 보면,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은 ‘어떤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지는 것’이다. 또한 이 경험의 원천은 자기 최면이나 그 현상에 참여하는 동료들 간의 압력 혹은 단지 그 현상을 경험해 보려는 욕망 등에 따른 순전히 인간적인 반응일 수도 있다.

비록 이 표현 자체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지만 은사주의자들은 이 현상 자체가 교회 역사를 통해 존재해 왔다고 인정한다. 반면에 사회학자들은 이 현상이 많은 종교에 공통적으로 있으며 특히 마귀의 영에 사로잡혀 황홀경에 빠지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천주교 사제인 프랜시스 맥너트처럼 이런 현상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14세기 카톨릭 도미니칸파의 수도승에 관한 기록에 이런 것이 있다고 주장한다. 현대 오순절 은사 운동은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캐트린 쿨먼, 케네스 하긴, 찰스와 프랜시스 헌터 등의 사역과 연관시키고 있다. 특히 캐트린 쿨먼은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퍼뜨린 장본인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그녀의 집회에서는 이런 현상이 많이 나타났다.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축복’의 특징에는 감정이나 자제력을 잃는 것 등이 포함된다. 뒤로 넘어지는 사람을 잡아주는 ‘캐치’(포수)가 제대로 잡지 못해 머리를 마루에 부딪치는 사람의 경우도 종종 생기는데, 그때에도 그 사람은 권능에 힘입어 아무런 아픔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도되었다. 또한 이 현상에는 방언을 하는 것 등이 수반되며 웃는 것, 우는 것 혹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종종 생긴다. 이렇게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시간’은 사람마다 다르다. 대개는 몇 초에서 몇 분 정도이나 어떤 경우에는 몇 시간 동안 지속되기도 한다.

---

이 글은 미국에서 출간된 「오순절 은사 운동 백과사전」에 기록된 입신, 즉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Slain in the Spirit)에 관한 기사이다. 역자는 그 사전 789-791쪽에 있는 기사를 발췌하여 옮겨 적었다.

다음은 이 현상을 반박하는 유인 목사님(Pastor Wilson Ewin)의 글이다.

### 성경은 입신을 허락하지 않는다

1982년 6월 26일 미국 뉴햄프셔주의 내슈아에서 열린 미국 내 순복음 실업인 모임에서 복음주의자 조 휴즈는 이렇게 말했다.

이 세상이 오늘 밤 필오로 하는 것은 표적과 기적과 더 많은 이적이다.

그 모임에 참석한 군중들은 소위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표적들을 받게 되었다. 이 현상을 체험하기 위해 앞으로 나간 많은 사람들은 그의 손이 자신들을 향해 움직이자 수초 후에 자신들이 무의식 상태로 빠지는 것을 보았다. 이처럼 뒤로 넘어지는 체험은 신조나 피부색이나 인종에 관계없이 온 세계의 모든 은사주의자들에게 공통된 것이다.

표적과 기적을 보여 달라는 외침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다. 그래서 구원자께서는 표적을 보여 달라는 요구에 대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대답하셨다. 소위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을 주장하는 은사 운동의 전체 과정은 주님께서 승인한 것이 아니라 저 사악한 자 마귀가 승인한 것이다. 우선 그런 욕망은 사탄이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둘째, 악한 마귀의 손은 사람들이 뒤로 넘어지는 현상 그 자체 내에서 잘 드러났다. 이 현상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 털퍼덕 주저앉지 않는다. 대신에 그들은 ‘의식적으로 넘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상태에서 뻗뻗하게 뒤로 나가떨어진다. 이런 현상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모두 이와 같은 형태를 따른다. 또한 그들은 다 같이 황홀감이나 의식의 상실을 체험한다.

성경은 ‘사람들이 넘어지는 것을 사탄이 매우 즐겨워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 준다. 마귀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도 “네가 만일 엎드려 [즉 넘어져서] 내게 경배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네게 주리라…”(마4:9)고 말했다. 한번은 구원자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아이에 관한 증언을 들으셨다.

그들이 무리에게 오니 어떤 사람이 그분께 와서 그분께 무릎을 꿇으며 이르되, 주여, 내 아들에게 긍휼을 베푸소서. 그가 미친 증세로 심히 시달리고 자주 불 속에 쓰러지며 종종 물속에 빠지므로(마17:14-15).

마귀에 걸린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께 오자 또 넘어졌다.

그들이 그를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를 볼 때에 즉시 그 영이 그를 쥐어뜯으므로 그가 땅바닥에 쓰러져 뒹굴며 거품을 흘리더라(막9:20).

그런데 바로 이 장면에서 마귀에 의해 넘어지는 것과 대조적으로 다음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목소리가 들린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요5:8)

오순절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인해 자신을 제어할 수 없게 된다. 또한 이 현상에 빠진 사람들은 황홀경이나 정신적인 기능의 상실을

체험한다. 넘어질 때 생기는 수치스러운 노출에 관한 이야기들을 막아 보려고 여자들은 담요로 하체를 가리곤 한다. 그런데 이제는 사례 깊은 것으로 보이는 참석자들도 그와 똑같은 일을 행한다. 성경은 다음과 같이 경고한다.

대언자들의 영은 대언자들에게 통제를 받나니 성도들의 모든 교회에서 *드러난 바와* 같이 하나님은 혼란의 창시자가 아니요, 화평의 창시자시니라(고전14:32-33).

오순절 체험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그것은 마귀들, 즉 마음을 지배하고 감각을 어지럽히는 자들의 산물이다. 그러나 이와는 반대로, 마귀의 통치로부터 자유를 얻은 사람은 옷을 입고 정신이 온전한 채로 앉아 있었다(막5:15).

마귀학 분야에서 유명한 사람들도 위의 체험이 사탄의 도구 중 하나라고 기록했다. 쿠르트 코흐는 이렇게 말한다.

나는 성령 안에서 죽는 이 현상(즉 입신)을 성령의 선물로 받아들일 수 없다.

메릴 잉거는 다음과 같이 기록한다.

유명한 병 고치는 자들과 카리스마 지도자들은 이런 능력들을 성령의 참된 선물로 오인함으로써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고 있다. 사실 그들은 그런 것들을 부인해야만 한다. 오늘날 교회 내에서 계속 팽창하고 있는 카리스마 혼돈은 하나님의 백성을 분열시키고 있다. 그런 현상들은 사람들을 매우 미묘하게 실제적인 형태의 신비주의로 데려가려는 사탄의 가장 큰 계략이다.

우리의 구원자께서는 오순절 은사 운동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신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22-23).

## 방언과 표적

이 책자에서 나는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크게 논쟁이 되고 있는 주제에 대해 이야기를 하려 하는데 사실 이 주제 안에는 별별 이야기가 다 있다. 나는 단지 한 가지 관점에서만 이것들을 다루려 하지 않으며 이것들의 기원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이 방언에 대해 - 소위 은사 운동이라고 불리는 것에 대해 - 무어라고 이야기하는가를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려 한다.

‘은사가 있는, 재능이 있는’(charismatic)이라는 말은 그리스 말이다.<sup>1)</sup> 우리는 어떤 이들이 그리스 말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려 할 때 실상 그들이 그것 때문에 큰 혼동을 빚는 경우를 종종 보아 왔다. ‘은사가 있는’(charismatic)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선물을 받은, 타고난 천부적 소질을 갖고 있는’(gifted)을 나타낸다. 다시 말해 자신이 은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당신이 갖고 있지 않은 특별한 선물들을 자신들만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 참으로 흥미 있는 일이다.

잠언 25장 14절을 읽어 보자.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들은 갖고 있지 않은 선물(천부적 재능)을 자신만이 갖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는 정말로 엄청난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만일 당신이 오순절 은사 운동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이미 당신이 천부적 재능을 타고났다고 주장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 당신이 그렇게 주장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위선자가 되고 만다. 비록 당신이 그럴 리가 없다고 생각할지는 모르나 그것은 사실이다. 왜냐하면 ‘은사가 있는’(charismatic)이라는 단어는 항상 당신이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유능한 정치가가 나타나면 그를 ‘카리스마적인 인물’이라고 말한다. 다시 말해 그들은 그가 천부적 재능을 지니고 있으므로 유능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따라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처럼 - 그것은 곧 자신이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다고 공언하는 것이다. 천부적 재능을 갖는 것은 결코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런데 만일 당신이 소유하지도 않은 재능에 대해 자랑한다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가? 잠언 25장 14절을 펴고 읽어 보라. 성경을 읽는 것보다 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고등학교 교육 이상을 받은 많은 사람들이 성경책을 두려워하는 나라에 우리는 살고 있다.

---

이 글은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의 성경침례교회 목사인 릭크맨(Peter Ruckman)의 소책자를 허락을 받아 번역한 것이다.

1) 은사는 영어로 단순히 ‘gift’, 즉 선물을 뜻한다.

성경은 그들을 두렵게 만드는데 나는 그 이유를 잘 안다. 당신이 구원받지 못한 상태에서 성경을 대하면 성경은 당신을 두렵게 만든다. 그러나 만일 당신이 구원받았으면 당신은 성경과 친숙해져야만 한다. 잠언 25장 14절은 만일 당신이 거짓 재능에 대해 자랑하면 당신은 마치 비가 없는 구름이나 바람과 같다고 말한다.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 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당신은 가뭄이 온 지역을 뒤덮어서 사람들이 비가 오도록 간구하며 작물들은 피약벌 밑에서 말라 죽어 가는 것을 본 일이 있는가? 하루는 큰 구름이 나타나고 농부들은 하나님께서 소나기를 주신다고 감사해 한다. 천둥도 치고 번개도 번쩍번쩍했고 드디어 구름이 왔으나 한 방울의 비도 내리지 않는다! 이것이 바로 자신이 갖지도 않은 천부적 재능에 대해 자랑하는 사람들의 모습이다. 만일 이들이 자신들이 소유하지도 못한 재능에 대해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거짓말하는 것이다.

미국을 비롯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오순절 은사 운동의 두드러진 특징은 그것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경 교리들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사실이다. 디모데전후서는 15번 이상이나 교리 혹은 ‘건전한 교리’(sound doctrine)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교리 안에 거하라’, ‘건전한 교리’, ‘교리 안에서 확고하게 되어’ 등등.

은사 운동에 빠진 사람들은 조용히 앉아서 15분 정도도 성경을 펴고 스스로 교리를 공부하지 못한다. 믿는다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무엇을 믿는지(교리) 모른다면 이것이야말로 큰 문제가 아닌가? 만일 당신이 탁자에 앉아서 성경을 펴고 말씀들을 읽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크리스천이라면 사실 당신의 삶에 큰 문제가 있는 것이다.

옛날 격언 중에 “내 죄는 성경책을 보지 못하게 하고 성경책은 내가 죄를 짓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성경책을 두려워하는 크리스천들을 발견한다면 그들의 삶에는 분명히 무언가가 잘못되어 있다. 만일 당신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게 된다. 그러나 만일 그렇지 않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가 없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느냐, 못 받았느냐를 이야기하지 않는다. 나는 지금 구원받은 이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

성경이 타 언어(방언)에 대해 무어라고 이야기하는지 살펴보기 위해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을 읽어 보자. 오순절 은사 운동을 하는 목사들 중 어느 누구도 이 구절을 신도들에게 가르쳐 주지 않는다. 왜냐하면 이 구절은 방언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보여 주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이지만 (Wherefore tongues are for a sign…)

분명히 성경은 방언이 표적이라고 말한다. 그러므로 방언은 은사(선물)뿐만 아니고 표적도 된다.

성경을 펴고 고린도전서 1장 22절을 찾아서 표적이 누구를 위한 것인지 살펴보자. 당신은 위에서 방언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되었다. 고린도전서 14장 22절은 방언이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한 표적(sign)이라고 말한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1장 22절은 그리스 사람들(이방인들)은 지혜를 찾고 유대인들은 표적(sign)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

다시 한 번 눈을 크게 뜨고 자세히 살펴보자. 이것은 내 말이 아니다. 성경은 분명히 ‘방언은 표적이다’라고 말하며 또 동시에 성경은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한다.’고 말한다. 만일 당신이 이 구절들의 상관관계를 모른다면 당신 머리에 어떤 이상이 있음이 분명하다.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 둘의 상관관계를 이해할 것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며 방언은 표적이다.”

만일 표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우리는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 공부해야만 한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일어나셨을 때 자신의 열두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막16:16-17)

여기에도 표적이 나온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 이유는 그들이 모두 할례받은, 돼지고기를 삼가는, 안식일을 지키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다.

### 표적들의 기원

자, 출애굽기 4장을 살펴보자. 먼저 우리는 방언의 기원에 대해 이야기하려 한다. 방언의 기원을 확실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방언에 대해 아무리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다. 그러므로 어떻게 방언이 생겼는가를 살펴보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데 방언의 기원을 살펴보기려면 먼저 표적(sign)이 무엇인가를 이해해야만 한다. 그리고 표적을 이해하려면 먼저 유대인들에 대해 공부해야만 하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표적을 구하기 때문이다.

출애굽기 4장 8-9절에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을(유대인들을) 구출한 사람, 즉 유대인들의 신성 정치의 아버지인 모세가 나온다. 모세는 구원자로서 이집트에 보내어 졌으며 그의 임무는 이집트로부터 이스라엘 자손을 해방하는 것이었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모세로부터 시작이 된다.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등으로부터 시작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들 당시에 이스라엘은 단지 떠돌아다니는 유목민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와 처음으로 국가를 형성했고 그들을 광야로 이끌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그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이 그 일을 할 수 없다고 변명했다. 주님께서서는 4장 2-3절에서 그에게 지팡이를 들어서 땅에 던지라고 했고 그는 그대로 했다. 그리고 6-7절에서 주님께서서는 그의 손을 가슴에 넣으라고 하셨다. 그가 그의 손을 가슴에 넣자 주님께서서는 다시 그것을 꺼내라고 하셨고, 그가 손을 꺼내자 그것은 나병에 걸려 있었다. 다시 말해 모세는 병에 걸리게 되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병에 걸린 사람은 모세이다. 성경은 모세 이전에 어느 누구도 질병으로 인해 아팠다고 기록하고 있지 않다. 그가 다시 자기의 손을 가슴에 넣고 빼었더니 그의 병이 나왔다. 다시 말해 그는 성경에서 처음으로 병 고침을 받았다.

성경에서 병 고치는 표적은 모세로부터 처음 시작되었다. 성경에서 처음으로 병을 앓았던 사람은 유대인이었고 처음으로 병 고침을 받은 사람도 유대인이었다. 이 같은 것은 무엇을 뜻할까? 출애굽기 4장 30절을 읽어 보자. 모세와 아론은 유대인들에게 갔고 그들에게 ‘표적들’(signs)을 행했다. 여기에 분명히 ‘표적들’이라고 기록된 것을 보았는가? 그러자 유대인들은 그들의 말을 믿게 되었고 머리를 숙여서 경배했다. 분명히 보았는가? 성경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표적은 병 고침의 표적이며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었다.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함으로써 이 같은 표적들은 유대인들의 신정 정치와 더불어 시작되었다. 또한 유대인들은 자기들 국가의 역사가 표적들과 함께 시작되었기에 그 뒤에도 계속해서 표적들을 요구할 권리가 있었다. 이러한 표적들 중 하나가 바로 병 고치는 표적이며 그것은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은사를 병 고침의 은사, 즉 천부적 재능이라고 부른다.

나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심을 확실히 믿으며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시지 않는다고 믿는 목사를 내 평생에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다. 그러나 성경을 믿는 성경 신자들(Bible believers)은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던 것 같은 병 고침의 천부적 재능(은사, gift)을 믿지 않는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우리가 유대인들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는, 우리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지 않기 때문이다.

셋째는, 우리가 표적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오직 악하고 음란한 세대만이 표적을 구한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심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병 고친다고 주장하는 많은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면 많은 분들이 화를 내며 “당신이 무어라 하든지 상관없어. 나는 여전히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신다고 생각해!”라고 말한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무엇인가를 오해한 것 같은데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병을 고치지 못하신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내 집의 개들도 고쳐 주심을 보았다. 나는 두 마리의 독일산 개들을 키우는데 그것들이 다쳤을 때 나는 그것들을 위해 기도했고 그것들이 차에 치어 다 죽어가게 되었을 때도 그것들을 위해 기도하자 그것들이 나음을 보았다.

내 가족 중 내가 기도했는데 병이 낫지 않은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나는 하나님께서 병을 고쳐 주심을 확실히 믿는다. 그러나 나는 내 가족들을 병 고치는 텐트로 데려가서 줄을 세운 뒤 카드를 받아 들고 안수받는 일 따위는 하지 않는다. 왜 어렵게 사는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라.

표적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되었고 모세는 병 고치는 표적을 소유했다. 만일 표적들이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되었다면 그전까지는 어느 누구도 병에 의해 아프지

않았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도록 하자. 제발 내 말을 믿지 말고 성경을 믿기 바란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뒤에 그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해 나왔다.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그들이 주님의 명령에 귀를 기울이며 주님의 규례를 지키면 주님께서는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리셨던 악한 질병들 중 어느 하나도 그들에게 내리지 않으시리라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그분은 그들의 병을 고쳐주는 **주(LORD)** 곧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다시 한 번 15장 26절을 자세히 읽어 보라.

이르시되, 네가 **주** 네 하나님의 음성에 부지런히 귀를 기울이고 그가 보기에 옳은 것을 행하며 그의 명령들을 귀담아듣고 그의 모든 법규들을 지키면 내가 이집트 사람들에게 내린 이 질병들 중 하나도 네 위에 두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를 치유하는 **주**니라, 하시니라.

그 안에 믿음이 있는가? 그 안에 안수하는 것이 있는가? 그 안에 기도가 있는가? 제발 다시 한 번 살펴보라. 주님의 약속은 행위에 대한 보답으로 유대인들에게 주어졌다.

너희가 이것, 이것을 행하면 내가 너희를 고쳐 주리니 나는 너희의 병을 고쳐 주는 **주**니라.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므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국가를 위한 표적을 주셨을 때 그 표적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즉 행위)과 상관이 있었다.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이곳저곳 은사 집회에 다니면서 병 고치는 줄에 서서는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고쳐 주실 것을 간구하거나 혹은 믿기만 하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진다고 그저 믿으려고만 애쓰는 것을 바라보는 것보다 슬픈 일이 세상에 어디에 있던 말인가? 그리고 병 고치는 사람이 나와서는 “너, 부정한 영아, 내가 너를 병 마귀로부터 지금 해방한다. 내가 너를 가난 마귀로부터 지금 해방한다!”라고 떠들어 댈다.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이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

만일 당신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자녀라면 어떻게 그런 일들을 요구할 수 있겠는가? 그들은 복음을 증언하지 않는다. 그들이 하는 일들이란 단지 방언 이야기뿐이며 그들은 전도하지 않는다. 그들은 누구누구가 왔는데 그들이 아주 용하다고 하거나 병을 잘 고치니 가보자고 하지 결코 예수님을 전파하지 않는다.

당신에게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다. 어떤 사람이 손으로 당신을 가리키며 만일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지옥에 간다고 말한 적이 언제인가? 이런 전도를 받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되는가?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전도하지 않으며 당신을 구원하려 하지 않고 단지 ‘탈라라라’ 하고 쓸데없이 허공에 대고 이야기만 하고 있다.

다시 말하지만 이런 표적들은 이스라엘과 함께 시작했다. 크리스천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하며 그분께서 하라고 명령하신 것은 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면 병 고침을 받을 수 있을까 하고 은사 집회에만 쫓아다니는 것보다 더 어리석은 일이 이 세상에 어디 있던 말인가? 나는 모든 질병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라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 않다. 나는 또한 모든 질병이 당신의 불순종 때문에 생겼다고 믿을 정도로 어리석지도

않으며 그보다는 훨씬 더 지혜롭다.

나는 그리스도 안의 한 형제를 알고 있는데 그는 수년 전에 심하게 화상을 입었다. 그는 그것을 치료하기 위해 말도 못할 정도로 고생을 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일하셔서 그를 놀랍게 기적적으로 고쳐 주셨다. 그 사고 이후 그를 처음 한두 번 보았을 때 나는 그가 3개월 이상 더 살지 못하리라고 생각했었다. 그에게는 그를 위해 기도하는 소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만이 있었고 주님께서는 그를 위해 기적을 행하셨다. 그는 이곳저곳 돈을 싸들고 은사 집회라는 곳에 다니면서 병 고침을 받지 않았다. 그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께 의지함으로써 병 고침을 받았다.

### 표적들의 역사

자, 지금까지 우리는 표적들의 기원(Origin)에 대해서 살펴보고 지금까지는 표적들의 역사(History)에 대해서 살펴보자. 신명기 18장 18절을 펴고 읽어 보라. 이제 당신은 유대인들의 국가인 이스라엘이 표적과 함께 시작되었기에 그들이 항상 표적을 요구함을 알게 되었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신명기 18장 18절은 주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신 부분이다. 여기서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 자신과 같은 대언자 한 명을 세우실 터인데,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말씀하실 그 대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실 것임을 말하고 있다.

내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서 너와 같은 대언자 하나를 그들을 위해 일으키고 내 말들을 그의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할 모든 것을 그가 그들에게 말하리라. 그가 내 이름으로 말할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려 하지 아니하는 자가 누구든지 내가 그 일에 대해 그에게 책임을 물으리라(신18:18-19).

I will raise them up a Prophet from among their brethren, like unto thee, and will put my words in his mouth; and he shall speak unto them all that I shall command him.

다시 한 번 신명기 18장 18절에서 모세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대언자를 주목해 보라.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분명히 그 단어를 대문자인 ‘Prophet’으로 적고 있다.<sup>2)</sup> 그 이유는 다름 아니고 그 ‘대언자’(Prophet)가 바로 신약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이다. 침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했을 때 유대인들은 그에게 “당신이 엘리야입니까? 혹은 당신이 그리스도입니까? 아니면 당신이 그 대언자(that Prophet)입니까?”라고 물었다(요1:21). 이에 대해 침례자 요한은 나는 그들 중 어느 누구도 아니라고 대답했다.

그 뒤 예수님께서 등장하셨는데 그분은 바로 신명기에서 예언된 ‘모세와 같은 대언자’이셨다. 만일 그분께서 모세와 같은 대언자라면 그분은 모세가 베풀었던 것 같은 표적들을 갖고 있어야만 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분은 모세에게

2) 영어 성경에서 인격체를 나타내는 단어의 첫째 글자가 대문자인 경우에 그것은 대개 삼위일체 하나님의 세 인격체 중 한 분을 나타낸다.

주어졌던 표적들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의미에서 그분은 둘째 모세였으며 모세의 후계자였다. 그분은 유대인들을 속박으로부터 구출하시기 위해 부름을 받으셨다.

예표로 볼 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집트의 파라오(바로)에 항거하여 유대인들을 구출한 모세와 같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스라엘 국가를 구출하셔서 자유롭게 하실 소명을 받았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분께서 무슨 표적을 가지고 계셨던가? 마가복음 6장 4-6절을 보라. 특히 5절 말씀을 자세히 보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대언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족들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고 거기서는 어떤 강력한 일도 행하실 수 없어서 다만 몇몇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여 그들을 고치실 뿐이었으며 그들이 믿지 아니하므로 이상히 여기시고 그 주변 마을들을 다니시며 가르치시더라.

여기에 나오는 불신앙의 사람들이란 다름 아닌 병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었다. 당신은 사람들이 얼마나 성경 말씀을 왜곡해서 자기들 마음대로 해석하는 줄 아는가? 그들은 “당신은 병 고침을 받기 위한 믿음이 있는가?”라고 묻는다. 그러나 위의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단지 그들의 병을 고치신 것이었다. 그분은 그곳에서 몇몇 병든 이들에게 손을 얹으셨고 그들의 불신 때문에 더 큰 일을 할 수 없으셨다. 그러면 이 구절이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

이 구절은 만일 당신이 참으로 병 고치는 은사, 즉 천부적 재능을 갖고 있다면 어떤 이에게 손을 얹어서 그가 믿음이 있든지 없든지 그의 병을 낫게 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손을 얹으시는 대로 병을 고치실 수 있으셨다. 사도행전 5장 15-16절을 보자.

그러므로 심지어 저들이 병든 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가 침상과 자리에 누웠으니 이것은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최소한 그림자라도 그들 중 몇 사람에게 덮이게 하려 함이더라. 주변 도시들에서 나온 무리도 병든 사람들과 부정한 영들에게 괴로움을 당하는 자들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왔는데 그들이 각각 고침을 받으니라.

만일 당신이 병 고치는 은사(천부적 재능)를 갖고 있다면 사람들이 그들의 믿음과 감정에 의지하든지 안 하든지, 그들의 믿음을 해방하든지 아니하든지, 성령님의 흘러넘침이 있든지 없든지 혹은 그들이 여러 가지 이교도들의 신성모독과 비슷한 방법에 의지하든지 아니 하든지 당신은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만일 당신이 병 고치는 은사가 있다면 어떤 이에게 손을 얹기만 하면 그의 병이 나을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5장 15-16절에서 베드로는 단지 자신의 그림자가 병든 이들 위로 지나가게 함으로써 그들의 병을 고쳐 주었다. 성경은 분명히 “그들이 각각 병 고침을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여기에서 ‘각각’(every one, 하나하나마다)이라는 말은 그들 모두를 말한다.

마태복음 4장 23-24절을 보라.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시며 그들의 회당들에서 가르치시고 왕국의 복음을 선포하시며 백성 가운데서 온갖 종류의 질환과 온갖 종류의 질병을 고치시니 그분의

명성이 온 시리아에 두루 퍼지므로 그들이 갖가지 질병과 고통에 사로잡혀 앓는 모든 사람들, 마귀 들린 자들, 미친 증세가 있는 자들, 마비 병 환자들을 그분께 데려오매 그분께서 그들을 고치시더라.

예수님께서 병을 고치실 때는 병 고침이 완전했다. 또한 못 고친 병이 없으셨다. 다시 말해 누군가가 일단 병 고침을 받았으면 그는 그것으로 완전해졌다. 마태복음 4장 23-24절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을 고치셨다.” 다시 말해 그들 모두 고침을 받았다. 예수님께는 힘든 병이라는 것이 없었다.

만일 당신이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다면 - 오순절 은사 운동을 하는 많은 이들은 자신들이 이런 은사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데 - 당신이 손을 얹는 대로 100% 병 고침의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은사(천부적 재능)가 아니다. 많은 오순절 은사 운동가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언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한결같이시다.”라고 주장하거나 “내가 아버지께로 가므로 너희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고 말한다.

당신은 셋째마네 동산에서 일어났던 일을 기억하는가? 한밤중에 군인들이 예수님께로 오자 베드로는 화가 나서 칼을 집어 들고 한 사람의 귀를 잘라서 땅에 떨어뜨렸다. 그러자 주님께서는 그것을 땅에서 주운 뒤 그 귀를 만지시고 제자리에 붙여 주셨다. 이것이 바로 병 고치는 은사이다. 당신은 이와 같은 것을 은사 운동 집회에서 본 적이 있는가?

“나는 이 여인이 갑상선 이상으로 인한 혹을 갖고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녀가 기도하자 그 혹이 가라앉는 것을 보았다.”라고 어떤 이는 말한다. 물론 그는 그것을 분명히 보았다. 그런데 당신은 얼마 후에 병 고침에 관한 스캔들 뉴스에서 그녀가 가짜로 된 플라스틱 살과 풍선 그리고 옷 밑으로 공기 호스를 차고 있었다는 기사를 읽은 적이 있는가? 당신은 꾸준히 신문을 보아야만 한다. 그녀는 목 근처에 풍선을 대고 있었고 그것을 가짜 살로 가리고 있었다. 그리고 기도하면서 옷 밑의 공기 호스를 통해 바람을 빼고 있었다. 그러자 그 혹은 점점 작아지게 되었다. 어떤 이는 “나는 분명히 내 눈으로 그것을 직접 보았다.”라고 말한다. TV라는 것은 정말 놀라운 것이다. 눈 깜짝할 사이에 수많은 사람들을 감쪽같이 속이니 말이다. 그래서 그것은 바보상자라고 불린다.

어떤 이는 “나는 기도를 통해서 나 자신의 혹을 고쳤고 따라서 나는 당신의 주장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정말 어떤 이들은 마귀로 가득 차 있고 내가 무엇을 말할 때면 “나는……”라고 생각한다.”라고 주장한다. 그런데 사실 당신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다. 사실 당신은 “만일 성경책이 나를 거스르면 나는 그 책을 믿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다. 당신이 자꾸 그런 주장을 하는 이유는 성경책 때문에 당신이 곤경에 빠진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당신은 바로 그것을 모르고 있다.

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고치시지 않는다고 말한 적이 없다. 또한 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고치시지 않았다고 말하지도 않았다. 나는 단지 당신에게 오순절 은사 운동을 통해 병을 고친다고 주장하는 넌(David Nunn), 브랜햄(Branham), 로버츠(Oral Roberts) 등의 거짓말쟁이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말했을 뿐이다. 약 25년 전에 로버츠

는 앨라배마주의 모빌에서 집회를 가졌다. 그때 조그만 돌풍이 불어서 집회하는 곳을 강타했고 17명이 부상을 당했다. 그때 그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그들은 응급차를 불렀다. 이 얼마나 웃기는 일인가? 만일 그가 병 고치는 은사를 갖고 있었다면 왜 스스로 다친 이들을 고치지 못하고 구급차를 불렀겠는가? 그들은 심지어 집회 장소를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다. 만일 성경 말씀 안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당신은 마치 사격장에서 누군가가 총으로 쏘아 떨어뜨리려는 오리와 같은 신세가 되고 만다.

한번은 내가 살고 있는 펜사콜라에 가짜 병 고치는 이들이 집회를 하러 왔다. 마침 그때 앨라배마주의 미네트에 살고 있던 내 친구가 나를 방문했고 그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그가 안수받는 곳을 쳐다보았더니 그곳에는 그의 먼 친척 되는 여인이 서 있었고 그녀는 여기저기 절룩거리며 다니다가는 목발을 집어서 던져 버렸다. 집회가 끝난 뒤 그는 그녀에게 “도대체 당신은 여기서 무엇하고 있는 거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녀는 “그들이 내게 10달러를 주었는데 나는 이렇게 쉽게 10달러를 벌어난 적이 없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가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사람들을 속일 수 있소?” 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나는 단지 그들이 믿음을 갖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이 얼마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인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더구나 돈을 받다니! 이것은 다름 아닌 뇌물 수수와 사기 행각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지상에 계셨을 때 병 고치는 능력을 갖고 계셨다. 그분께서 누군가를 만지셨을 때 그 사람은 곧장 병 고침을 받았다. 그들이 병 고침을 받은 것에는 전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뒤 땅에 묻혔다가 부활하셨다. 그분께서 부활하신 후에 열한 제자들을 부르셨고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가 선택되었다. 자, 이제 마가복음 16장을 펴고 그 제자들이 부름을 받았을 때 무엇을 했는가를 살펴보자.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소유하셨던 능력을 갖고 있었다면 사람들 위에 손을 얹어서 그들의 병을 고쳐야만 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을 보라. 어리석음을 치료하는 데는 킹제임스 성경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 막16:17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these signs)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new tongues) 말하리라.”라고 기록한다. 은사주의자들에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다. 그러나 18절은 [그들이]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오리라.”라고 기록한다. 자세히 보라.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이 병든 자들에게 안수하면, 즉 손을 얹으면 그들은 회복될 것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어느 누구도 기도하지 않았다. 그들은 단순히 손을 얹었다. 이것이 바로 은사이다!

그러면 당신은 “그러나 야고보서에서는…….”라고 말한다. 우리는 지금 야고보서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는다. 당신은 성경을 전혀 공부하지 않기 때문에 성경을 혼잡하게 하며, 당신과 다른 사람들마저 혼란에 빠지게 만든다. “우리는 교회의 장로들을 부르고 서로서로 잘못을 고백하며 기쁨을 붓고 서로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당신은 말한다.

그런데 마가복음 16장 17-18절은 그 이야기를 하지 않고 유대인 사도들에게 주어진 선물들 중 하나가 ‘병 고침의 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그 같은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은 병든 자가 누구든지 손을 얹어서 그를 일어나게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당신이 그 같은 선물을 갖고 있다면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당신은 “그 같은 선물을 갖고 있는 사람을 당신이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내게 물을 것이다. “아닙니다. 나는 절대로 그 같은 사람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렇다면 그 같은 선물을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만난 적이 있습니까?”라고 내게 묻는다. “물론이지요. 많이 보았습니다.” 이 같은 사람들은 “나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기 원합니다. 병 고침을 행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나를 통한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이 같은 능력이 내 오른팔을 타고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는 어렸을 때 소아마비를 앓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께서 기도하셨고 나는 그 같은 능력이 내게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오! 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여, 제발 조용히 있으라.

만일 하나님께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면 나는 일요일에 교회에서 설교나 하고 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각종 병원을 찾아다닐 것이다. 왜 그 같은 선물을 갖고 있는데 교회에서 시간을 허비하겠는가? 이 같은 은사를 사용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끌어올 수 있지 않겠는가? 큰 병원마다 암 병동이 있지 않은가? 왜 당신의 은사(선물)를 그런 곳에 가서 사용하지 않고 땅에 묻어 두는가? 당신이 그 같은 재능을 갖고 있다면 왜 그런 곳에 가서 사용하지 않는가? 내가 사람들의 병을 고칠 수 있다면 왜 이런 책들을 출판하기 위한 돈 때문에 걱정해야만 하는가? 내가 그런 능력이 있으면 전국을 순회하며 죽어 가는 이들을 살려 주지 않겠는가? 나는 하루도 채 못 되어 내가 사용할 수 없을 만큼의 많은 돈을 긁어모으지 않겠는가?

당신은 이 같은 은사 집회에서 무지한 성도들이 바치는 헌금을 보았는가? 그들은 믿음이 없음에 틀림없다. 이런 은사 집회를 인도하는 자들은 돈을 긁어모으기 위해 당신의 믿음을 부추긴다. 사실상 그들이 믿음이 있다면 조용히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자원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어야만 한다.

나는 한번 알렌(Allen, 유명한 은사 운동가)이 인도하는 집회에 갔었다. 그는 술 취한 채로 죽었다. 그의 부검 결과는 그가 만성 음주가였음을 보여 주었고 그의 심장은 알코올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진정제와 약으로 살아갔다. 참으로 비극이다. 그는 약 55세에 술 때문에 죽었는데 죽기 전에 그는 미국 곳곳을 다니며 “죄로부터 자유를 얻으라!”라고 외쳤다. 그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도록 만드는가, 그들의 기도가 응답되도록 하는가’를 가르쳤다.

내가 그의 집회에 참석했을 때 그는 설교 시간 중 첫 한 시간 반을 설교는 전혀 하지 않고 헌금과 기부 등을 받는 데 사용했다. 그는 먼저 찬양 모음집에 대한 헌금을 거두었고 그 뒤에는 찬양 인도자를 위해서, 차량을 위해서 차례로 헌금을 거두었다. 그리고 나서 그는 “만일 여러분이 가난 마귀에 사로잡혀 있다면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 내가 기도해 주겠습니다.”라고 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가난 마귀로부터 해방되기 위하여 나아갔다. 그는 또 한 번 이들에게 그들이 갖고 있던 마지막 한 푼까지 다 헌금하게 하더니 “당신들은 가난합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들은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부자가 되고 싶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당신들은 하나님께서 당신들



을 부자로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까?”, “네.”, “하나님께 이것이 진심임을 보이고 당신의 믿음을 해방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께 영광을!”, “하나님께 헌금함으로써 이것이 진심임을 보이십시오.”

수많은 라디오 성경 교사들이 “믿음을 갖고 당신의 믿음을 해방하십시오!”라고 외쳐댄다. 당신은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이 말은 자신들의 프로그램을 위해 돈을 보내라는 것이다. 나는 펜사콜라에서 지난 25년 동안 라디오 설교를 했지만 단 한 번도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돈을 내라고 해 본 적이 없다. 왜냐하면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이 방송이 그대로 유지될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가 그만두어야 할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많은 이들이 “믿음, 믿음, 믿음!”을 강조하지만 사실상 그들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방송을 그대로 유지하실 것이라는 믿음조차 없는 사람들이다. 얼마나 우스운 일인가? 마가복음의 하나님의 말씀은 그들이 손을 얹는 대로 사람들이 병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했지만 이런 현대 은사 운동가들은 아무리 손을 얹어도 병자들이 일어나지 않는다.

내게는 에버린이라는 흑인 가정부가 있다. 그녀는 지난 20년 동안 나를 위해 일해왔다. 그녀는 구원받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성경 말씀을 믿는다. 한번은 그녀가 브랜햄(Branham, 역시 유명한 은사 운동가)의 집회에 갔다 와서는 “릭크맨 박사님, 그 사람은 아무도 못 고치더군요. 그는 단지 그들에게 최면을 걸었어요.”라고 말했다. 나는 고등 교육을 받았다고 자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이 가정부 여자보다도 더 현명하지 못함을 보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계속해서 “릭크맨 형제님, 글썄 수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연금, 수표, 봉급 그리고 자신들의 사업 등을 바치더군요. 내 이웃 중 하나는 팔이 구부러져 있었는데 그녀도 거기 갔다 와서는 자신의 팔이 고쳐졌다고 말하더군요. 그런데 아무리 봐도 그녀의 팔은 옛날과 똑같아요.”라고 말했다. 사실상 그들은 그녀로 하여금 팔이 펴진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유명한 은사주의자인 캐트린 쿨먼은 병이 걸렸는데 당신은 그녀가 병을 고치려고 어떻게 했는지 아는가? 그녀는 오클라호마주의 털사로 갔다. 당신은 털사에 누가 살고 있는지 아는가? 오랄 로버츠와 오스본 같은 당대의 유명한 자칭 은사 운동가들이 털사에 살고 있었다. 그러면 당신은 그녀가 그들로부터 병 고침을 받기 위해 털사에 갔다고 생각하는가? 천만의 말씀이다. 그녀는 침례교 병원에 입원했다. 얼마나 역설적인 이야기인가! 이 세 명의 유명한 신유 부흥사들이 자기 자신들은 전혀 고치지 못하다니 이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인가?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녀는 병원에서 죽었다. 아마도 그녀는 병원이 아니고 오랄 로버츠나 오스본에게 갔어야만 한 것 같다.

약 2년 전에 유잉(Ewing, 역시 신유 부흥사임)이 이곳 펜사콜라에 내려왔고 나는 그의 집회에 참석했다. 당신은 내가 왜 그곳에 참석했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나는 그곳에 가서 실컷 웃고 재미를 보려고 갔다. 그런데 당신이 그런 곳에 갈 때는 아주 조심해야 한다. 왜냐하면 보통 그런 곳에는 경비원들이 서 있는데 그들은 웃을 깨끗하게 입고 성경책을 낀 사람을 요주의 인물로 본다. 그러므로 당신이 그런 곳에 갈 때는 남루한 복장을 하고 성경책을 갖고 가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성경을 믿으려 하지 않고 단지 그것을 사용하여 돈을 벌려고만 한다. 나는 그런 곳에 가서 실컷 웃는다.

그들은 내가 자신들과 함께 웃는 줄 알지만 사실 나는 그들을 비웃는다. 그들은 그것을 ‘거룩한 웃음’이라고 부른다. 나는 특히 여자 목사가 나와서 고함을 뿜뿜 지르고 설교단을 주먹으로 내려치는 모습을 보는 것을 좋아한다. 그것보다 더 우스운 것이 세상에 어디에 있던 말인가? 성경에 따르면 분명히 여자 집사, 장로(목사) 등이 있을 수 없고 교회 안에서 여자들은 설교할 수 없게 되어 있다.<sup>3)</sup>

어느 날 저녁에는 여자 설교자가 나와서 “아, 예수님께 축복을, 하나님께 영광을!” 하면서 해군 병사와 같은 목소리로 외쳤다. 그리고 얼마 뒤 그들은 “자, 여기 마귀 들린 남자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에게서 마귀를 쫓아낼 터이니 보기를 원하는 사람은 모두 앞으로 나오십시오.”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나아가 그들과 함께 줄을 맞추어 섰다. 그 마귀 들린 형제 옆에는 두 명의 건장한 체구의 남자들이 서 있었다. 그들은 모두 기도하기 시작했고 나도 기도했다. 그런데 그곳에서 나는 내 가족과 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며 성경이 “경계심을 갖고 기도하라.”라고 한대로 했다.

그때 병 고치는 자가 나오더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으라. 너 부정한(더러운) 영아 그에게서 나오라!”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그는 마룻바닥에 넘어져서 뒹굴며 입에서 거품을 내고 자기 발로 마루를 찼다. 그런데 실제로 그는 성령님에 의해서 넘어지지 않았고 그 옆의 두 명의 남자들이 그를 강제로 넘어지게 했다. 나는 눈을 뜨고 있었으므로(왜냐하면 성경이 경계심을 가지고 있으라고 했으므로) 그것을 자세히 볼 수 있었다. 그런데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 안에 있던 마귀들이 그를 마루에 넘어뜨린 줄로 착각하고 있었다. 그런데 사실상 두 명의 건장한 남자들이 그를 마룻바닥에 납작하게 넘어뜨렸다.

또 한 번 나는 다른 은사 집회에 참석했다. 설교자가 “자, 이제 병을 고칠 터이니 보기 원하는 사람은 나오세요.”라고 말했다. 그래서 나도 앞으로 나아갔다. 그런데 그 병자는 사팔뜨기 눈을 하고 있었다. 그 설교자가 그에게 “병 고침을 받으라!”라고 외치자 그는 눈을 똑바로 떴다. 자! 이게 무슨 병 고침인가?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다.

이 모든 일들이 정말로 웃기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 그러나 당신이 병자라면 그것은 전혀 웃기는 일만은 아닐 것이다. 내가 이런 일들을 수십 년간 내 눈으로 직접 보아 오면서 내린 결론이 있다. 나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천박하며 부패한 마귀는 당신의 질병(약점)을 이용하여 돈을 긁어모으는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당신에게 소망을 집어넣어 준다고 하며 돈을 챙겨 가는 것, 이것이야말로 가장 천박한 마귀의 소행이다.

내 친구 중에 홀(John Hall)이라는 사람이 있다. 그는 휠체어를 타고 다닌다. 그는 한국 전쟁에 참가했다가 부상을 당해서 약 이틀 동안이나 들판에 누워 있었다. 총탄이 그의 둔부를 꿰고 지나가서는 등뼈를 잘랐다. 그러나 다행히도 그는 감염이 되지 않았고 이틀 후에 다른 군인들에 의해서 구조되었다. 그는 지금도 살아 있고 휠체어를 타고 있다. 그는 내가 사는 이곳에 와서 강의를 들었고 북부 지방으로 되돌아갔다.

3) 디모데전서 3장을 있는 그대로 자세히 보라. 목사(감독)와 집사는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한다(딤후3:2, 11).

하루는 그 친구가 내게 와서는 울면서 “여보게, 나는 어찌할 바를 모르겠어. 나는 이 약들을 계속 먹고 싶지 않아. 나는 아파서 서 있을 수도 없어. 또 약들을 먹지 않으면 밤에 잠도 잘 수가 없지. 나는 약물 중독자가 되고 있어. 나는 주님께 죄를 짓고 싶지 않아. 왜냐하면 내 몸이 성령님의 전임을 내가 잘 알기 때문이지. 그런데 나는 잠을 잘 수 없고 항상 아프기만 하니 이를 어찌지. 제발 내게 무어라고 이야기 좀 해 주게나.”라고 말했다. 이런 사람들이 당신에게 접근할 때 당신은 아주 조심스럽게 그들을 대해야만 한다. 당신은 이들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이야기해야 하는지 이미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성급히 굴지 말고 신중하게 그들을 대해야 한다.

나는 그에게 어떤 성경 구절을 주어야만 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런데 그 앞에서 있는 나는 축구도 하고 테니스도 하고 골프도 치는 건강한 사람이 아닌가? 내 앞에서 있는 그는 지난 10년 동안 휠체어를 타고 다녔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것을 탈 사람이 아닌가? 그러므로 여러분은 조심해야만 한다. 정말로 목사가 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나는 그와 얼마 동안 이야기했고 그에게 별로 큰 도움이 되는 말을 해 주지 못했다. 단지 그와 함께 울었다. 이 같은 친구를 위해 함께 울어 주는 것보다 더 큰 치료법이 없다고 생각한다.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올라(롬12:15).

결박되어 있는 자들을 기억하되 그들과 함께 결박된 **심정으로 기억하고** 너희 자신도 몸 안에 있으므로 역경 당하는 자들을 기억하라(히13:3).

사실상 흡은 병 고치는 집회에 종종 가곤 했다. 그곳에 앉아 있기는 하지만 사실 그는 그들이 모두 사기를 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한번은 나도 그와 함께 그러한 집회에 갔었는데 그는 그곳에서 병 고치는 줄에 가서 앉고는 심하게 떨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그가 내게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려는 것이 있음을 알았다. 그는 내게 “여보게, 나는 이제 더 이상 그런 집회에 가지 않으려 하네. 이게 모두 가짜야. 그리고 그들은 모두 거짓말을 하고 있어. 그런데 그들이 ‘오직 믿음, 오직 믿음!’하고 노래를 부르며, 병 고치기를 시작하면 내 안의 근육들은 이 휠체어로부터 빠져 나오려고 안간힘을 쓰지.”라고 말했다. 사실 그 강대상에는 속임수의 마귀가 있는데 바로 그 마귀가 그에게 그렇게 느끼도록 만들고 있었다.

네이탄 베미스(Nathan Bemis)라는 친구도 이곳에 와서 학교를 다녔다. 그는 초등학교 2학년을 유급하고 6학년도 마치지 못한 채 해군에 갔다. 그러나 구원받았을 때 그는 크게 변화되어서 참으로 겸손한 영혼 구원자가 되었다. 그는 주님을 사랑했고 우리학교 졸업생 가운데 가장 우수한 학생 중 하나였다. 그는 항상 조용히 공부했고 지금은 미국 북서부의 한 교회를 담당하고 있다. 그는 그리스어 과목을 두 번이나 떨어졌고 결국 세 번째 가서야 그 과목을 통과했을 정도로 책을 읽는 데는 밝지 못했지만 사람들을 다루는 데는 아주 지혜가 있었다.

한번은 내가 시내에 있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에게 다가가서는 지옥이 실제의 불이 타는 장소가 아니라고 반박하고 있었다. 그러자 네이탄은 “예, 그곳은 참으로 진짜 불이 타는 곳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아닙니다, 그곳은 상징적인

곳이지요.”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네이탄은 “혹시 라이터를 갖고 계신가요?”라고 물었다. 그러자 그 친구는 주머니에서 라이터를 끄집어내서 그에게 주었다. 네이탄은 그의 손을 끌어 잡아당기고는 라이터를 그곳에 대었다. 그러면서 네이탄은 “지옥은 바로 이런 곳이지요.”라고 말했다. 아마도 그 친구는 그 교훈을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하루는 유잉(Ewing)이라는 자칭 신유 부흥사가 이곳에 와서는 가난한 흑인 동포들의 돈을 챙겨 갔다. 10년 전에 나는 캘리포니아주 헐리우드의 비벌리 힐즈(가장 부자들이 많이 사는 곳)에 갔었는데 그때 이미 유잉은 그곳에 굉장히 큰 저택을 소유하고 있었다. 가난한 사람들의 돈을 착복해서는 자신의 영화를 위해 쓰는 자들에는 저주가 있기를!

네이탄은 유잉을 만나러 갔다. 하룻밤 집회가 끝난 뒤 네이탄은 유잉을 붙잡고는 “사도 바울이 아픈 적이 있었던가요?” 하고 물었다. 그러자 유잉은 “네, 그는 아픈 적이 있었습니다.”라고 대답했다. 그러자 네이탄은 “그가 회복되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러자 유잉은 “물론입니다. 회복되었지요.”라고 대답했다. 네이탄은 “성경에서 그것을 보여 주시겠습니까?”라고 물었다. 유잉은 “내일 오십시오. 설교 시간에 그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라고 대답했다. 네이탄은 신약 성경을 꺼내 들고는 “당신이 오늘 보여 주시면 저는 참으로 감사하겠습니다.”라고 말했다. 유잉은 “내일 오십시오.”라고 대답했다. 이 거짓말쟁이요, 두 얼굴을 가진 자는 성경에 그것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다음 날 밤에 네이탄은 화가 잔뜩 나서 내게 “럭크맨 형제님, 그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아주 나쁜 사람이예요. 그는 돈만 챙기고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래도 그는 그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했고 그다음 날 다시 그의 집회에 참석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병 고치는 자리에서 한 흑인 자매가 심장병이 일어나서 곧 죽었다. 큰 소동이 일어났고 그들은 경찰을 불러서 결국 그를 쫓아냈다. 그는 이곳을 떠나며 펜사콜라 사람들이 자신을 박해했다고 주장하며 그들이 도대체 믿음에 없는 사람들이라고 떠들어댔다. 여하튼 그 여자는 바로 그가 안수하는 자리에서 죽었다.

“예수님께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같으시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서는 어느 누구도 죽지 않았다. 심지어 죽어 가는 강도도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죽지 않았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셨다면 그 여자는 죽지 않았을 것이다. “병 고침을 받아라!” 이 얼마나 우스운 말인가?

만일 어떤 사람이 자신이 그런 능력이 있어서 누구에게든 손만 갖다 대면 병자를 고칠 수 있다고 주장한다면 그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내가 단숨에 그가 거짓말하는 것을 보여 주겠다. 나는 단지 “자, 저기 암 병동으로 갑시다!”라고 말할 것이다. 그러면 그는 100% 안 갈 것이다.

이런 속임수에 빠진다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목사들이여, 이런 속임수에 빠져들지 말라. 그런데 만일 당신이 그렇게 하고 싶거든 내가 그 방법을 가르쳐 주겠다. 당신은 두루 다니다가 한 교회를 발견하고 그 교회 안의 일원 중 한 명이 아픈 것을 알게 된다. 당신은 병원에 가서 그를 위해 기도한다. 그리고 그가 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내가 그에게 손을 얹었습니다. 여기 바로 그 장본인이 있습니다!”라고 외치라.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하루는 어느 목사님이 이곳에 와서는 내게 손을 얹었는데 내가 지금 낫게 되었습니다!”라고 증언한다. “자, 이 방송을

듣는 동안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은 간증을 보내 주십시오!” 약 2,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방송을 듣게 되었고 그중 한 명이 병 고침을 받는다. 그리고 그는 “내가 당신의 방송을 듣고 있었는데 성령님께서 내게 오시는 것을 느꼈고 즉시 병이 나았습니다.”라고 편지를 보낸다. 당신이 성공하려면 이렇게 하면 된다. 단지 이런 편지들을 계속 모으고 여러 가지 기념품을 만들어서 우송하면 된다. 그리고 사업을 잘 조직하면 당신은 곧 유명한 신유 부흥사가 될 것이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상에 누워 있을 때 목사님들이 단순히 기도해 주고 병에서 고침을 받았던가? 만일 당신이 병 고치는 데 가서 병이 나았으면 그것이 그 사람 때문인지 어떻게 아는가? 당신의 아버지나 어머니의 기도 때문인지 어떻게 아는가? 자, 이제 사도행전 2장을 살펴보자.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성급하게 사도행전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문제들이 발생한다.

마가복음 16장은 분명히 “이 표적들이 믿는 자들을 따를 것이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사실 그 표적들이 사도들을 따랐고 주님께서는 사도들을 통해 이 같은 표적들을 행하셨다. 한번은 나는 뉴욕주의 로체스터에 갔고 구원받은 지 얼마 되지 않은 어떤 부부의 집에 초대를 받았다. 그 집주인 남자는 내게 “저는 사실 구원받은 지 몇 주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은사주의자가 오더니 제게 ‘하스타라 산다이 운티 아 바우티...’하며 방언을 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가 방언을 끝내자 그 주인 남자는 “도대체 무슨 권세로 이런 쓸데없는 일을 하는 겁니까?”라고 그에게 물었다. 그러자 그 은사주의자는 “마가복음 16장이지요.”라고 대답했다.

그 집주인은 마가복음 16장을 펴고는 “어디에 그렇게 쓰여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그는 “여기에 보니 ‘그들이 새 언어들로 말할 것이다.’라고 쓰여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그 집주인은 그 밑의 구절을 더 읽고는 곧장 부엌으로 가서 암모니아수를 가지고 나왔다. 그리고는 그에게 그것을 주며 “마시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그 집주인은 “그렇다면 당신이 도대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며 ‘탈라라라’ 한다면 그것은 주님을 시험하는 것이 아닙니까?”라고 말했다.



내가 사는 이곳 펜사콜라에는 수메탈이라고 하는 내 초등학교 동창생이 있다. 그는 처음에는 침례교 신자였으나 후에는 은사 운동에 빠져들어 갔다. 하루는 그의 옆집에 사는 우리 교회 성도가 뒤뜰에 나갔는데 수메탈의 부인이 뜰을 왔다 갔다 하면서 손에 종이를 들고는 소리를 내어 읽고 있었다. 그녀는 “하스타 라 산다이... 하스타 라 산다이 ...”라고 똑같은 말을 외치고 있었다. 우리 교회 성도가 “도대체 지금 무엇 하시는 겁니까?”라고 그녀에게 묻자 그녀는 “방언을 연습하고 있지요 은사라는 것도 사용하지 않으면 까먹게 되거든요.”

이런 어리석은 사람들 때문에 은사 집회가 성황을 이루게 되고 은사주의 지도자들이 돈을 벌며 백만장자가 된다. 그들은 사람들을 속이고는 그들이 방언 연습을 안 하면 그것을 잃어버린다고 가르친다. 그녀는 그 구절을 외우고 있었고 누군가가 그녀에게 “방언을 말해 보세요!”하면 외운 것을 계속 반복할 수 있을 뿐이었다. 이것은 바로 사기, 사기, 사기이다.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몇몇은 왜 그것을 사기 행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당신은 아는가? 그 이유는 그들도 그런 사람들처럼 똑같이 비뚤어져 있기 때문이다. 만일 당신이 똑바로 서 있다면 당신은 아주 쉽게 그들이 비뚤어진 것을 알아볼 수 있다. 그들은 대개 금방 크리스천이 된 형제자매들을 속인다.

사도행전 2장을 자세히 보라. 그들은 한군데 모여 있었다. 어디 그곳에 그들이 무릎을 꿇고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는가? 아니다. 어디 그곳에 그들이 기도하고 있었다고 되어 있는가? 절대로 아니다. 그렇다면 누가 그들이 그곳에 모여 무릎을 꿇고 성령님을 달라고 기도했다고 가르치는가? 바로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아닌가? 사도행전 2장에서는 어느 누구도 무릎을 꿇거나 기도하지 않았다.

“그리고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렬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났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의 침례는 방언이 아님을 보여 주는 첫째 증거이다. 어떤 이는 “그것이 바로 방언으로 이야기하려는 첫째 증거이다.”라고 주장하지만 절대로 아니다. 그것은 바람 소리 같은 소리였다.

5-10절을 계속 읽어 보자. 8절은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듣느냐?”라고 기록한다. 다시 말해 그곳에는 그들이 알지 못하는 타 언어 방언(unknown tongue)이란 존재하지 않았다. 그들이 들은 것은 모두가 분명한 외국 말들이었다. 그들은 대개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알지 못하는 타 언어(unknown tongue)를 취해서는 사도행전 2장의 외국 말에 대입한다. 그러나 사도행전 2장에는 거기 모인 유대인들 - 거기에는 100% 유대인들만 있었다 - 이 모르는 방언이란 하나도 없었다.

### 성령 훼방죄

하루는 길을 걸어가고 있었는데 어떤 의사가 나를 멈추어 세웠다. 그는 아주 경건한 사람이었다. 그는 내게 다가와서 “당신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는 성령님의 침례에 관한 초기 증거가 있습니까?”라고 물었다. 나는 “물론이지요, 나는 당신들보다 더 많이 방언을 말할 수 있음에 대해 늘 하나님께 감사합니다.”라고 말했다. 그리고는 그를 향해 독일어, 스페인어, 불어, 일본어 등을 했다. 그는 어안이 병병해하는 것 같았다.

내가 모두 끝마치자 그는 “당신은 성령님 안에 있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나는 그에게 “형제님, 제가 성령님 안에 있지 않다면 저는 구원받지 못할 사람입니다.”라고 말했다. 성경은 “만일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지 않으면 그는 결코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한다. 그러자 그는 “형제님은 성령님을 훼방하고 용서받지 못할 죄악을 저질렀습니다.”라고 말했다. “정말, 어쩔 수 없는 사람이로군!”

그들은 자신들이 곤경에 빠지게 되면 100% 모두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를 들먹인다. 지금 신약 시대, 즉 은혜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할 죄가 있단 말인가?

우리는 절대로 성경을 사사로이 해석해서는 안 된다.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가 나오는 구절을 보도록 하자. 마태복음 12장 22-34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사람을 고쳐 주시자 바리새인들은 그분께서 바알세불(사탄)을 의지하여 마귀를 내쫓는다고 비꼬았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것에 대해 설명을 해 주시고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리셨다.

또 누구든지 사람의 아들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그는 용서받지만 누구든지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면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나 그는 용서받지 못하리라(마12:32).

자, 그러면 앞뒤 문맥으로 보아 ‘성령님을 대적하여 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라. 그것은 다름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계시는 동안 마귀 들린 사람들을 고쳐 주신 것을 그분이 사탄을 의지하여 고쳤다고 말하는 것이다. 병행 구절인 마가복음 3장 30절이 이를 보여 준다.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그가 부정한 영에 사로잡혔다, 하였기 때문이더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성령님을 훼방하는 죄’라는 것이 없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지금 지상에 계시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성경을 왜곡하여 사사로이 풀며 자기의 보호 수단으로 삼는 것은 성경 신자들이 하는 일이 아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면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웃기는 일임을 금방 알 수 있다. 당신은 왜 그들이 지금 활개를 치고 다니는지 아는가? 그 이유는 크리스천들이 성경의 처음부터 끝까지 너무 모르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는가?

나는 이들이 다시 한 번 더 이런 것들로 내게 달려들면 한 번쯤 혼을 내 주리라 결심했다. 하루는 나와 내 아내가 텍사스주의 샌안토니오로부터 차를 타고 오고 있었다. 때는 약 새벽 3시경이었다. 우리가 루이지애나주에 도달해서 주유소에 들어갔을 때 많은 히피족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기타를 들고 있었는데 주차하자마자 나는 그들에게 전도지를 주었다. 내가 17세 된 소녀에게 전도지를 건네주자 그녀는 “아, 당신은 크리스천인가 보군요.”라고 말했다. “그렇습니다.”라고 대답했고 그녀는 “그러면 방언을 하시겠네요?”라고 물었다. 나는 “물론입니다.”라고 대답하고는 ‘탈라라라’ 하고 지껄여댔다. 그랬더니 그녀는 박수를 치며 좋아하면서 “이 사람도 받았어요.”라고 외쳐댔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고등학교까지 다닌 사람의 지각의 정도가 그 모양이랴니! 수많은 이들이 TV에서 중계되는 은사 집회를 보고는 그런 것에 현혹되어 있다.

어느 날 나는 시내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과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마침내 나는 “당신은 당신의 아버 마귀에게서 났군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는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을 보니 당신은 크리스천이 아니군요. 당신은 성경을 인용할 수 있지만 그 구절들이 당신에게는 사실이 아니지요.”라고 말했다. 당신은 그가 말한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가? 그의 말은 내가 말하는 것을 나 자신이 믿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내가 그에게 “아, 성경을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은 그분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았으므로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라고

바꾸어 말했다면 그 어리석은 사람은 내가 말하고 있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 시대에는 정말로 정신 착란증에 걸린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다. 그들은 당신이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당신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고, 당신이 농담으로 이야기하면 당신이 진실을 말한다고 생각한다. 참으로 뼈뿔어진 시대이다.

사도행전 10장을 살펴보자. 나는 지금 당신과 함께 성경에서 방언들이(분명한 외국 말) 기록된 모든 곳을 살펴보려 한다. 그곳들은 사도행전 2, 10, 19장뿐이다. 사도행전 2, 10, 19장을 제외하고는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누가 방언으로 이야기했다는 곳이 없다. 고린도전서 14장의 방언은 분명히 ‘알지 못하는 타 언어들’(unknown tongues)이라고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에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다. 아! 킹제임스 성경의 놀라움이어! 모든 알렉산드리아 계열의 성경들은 그것을 구분해 놓지 않으므로 성도들이 혼동을 일으키도록 만든다. 하나님은 혼동을 일으키는 분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이런 혼동을 일으키겠는가? 우리의 대적 사탄 마귀가 아닌가?

사도행전 2장에 있는 방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이심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sign)이었다. 그런데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방언들은 이방인들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sign)이었다. 사도행전 10장 44-47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다.

베드로가 아직 이 말들을 할 때에 성령님께서 말씀을 들은 모든 자들에게 내려오시매 할례자들에게 속한 자들로서 믿은 자들 곧 베드로와 함께 온 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 것으로 인해 다 놀라니 이는 이방인들이 타 언어들로 말하며 하나님을 크게 높이는 것을 그들이 들었기 때문이더라. 그때에 베드로가 응답하되, 이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님을 받았으니 누가 물을 금하여 이들이 침례를 받지 못하게 할 수 있느냐? 하고(다시 말해 물 침례를 안 줄 이유가 없다는 것임)

그들은(유대인들) 그곳에서 이방인들에게 성령님께서 부어지는 것을 보았다. 성령님께서 그곳에 주어졌고 그들은 방언으로 말했는데 그 이유는 그 유대인들이 이방인들도 유대교인들의 물 침례가 없이도 성령님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사도행전 10장에서 그 이방인들은 물 침례를 받기 전에 성령님을 먼저 받았다. 사도행전 10장의 마지막 부분에 있는 구절들을 잘 살펴보자. 그들은 먼저 구원받고 성령님을 받아들인 후에야 물 침례를 받았다.

사도행전 19장 1-8절을 보자.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아볼로의 제자들을 만나 그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지 물어보았다. 그러자 그들은 성령님에 대해 아는 바가 전혀 없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당신들은 어떤 침례를 받았는가?”라고 묻자 그들은 자신들이 침례자 요한의 침례를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에 바울은 “참으로 요한이 회개의 침례로 침례를 주며 백성에게 말하여 그들이 자기 뒤에 오실 분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고 하였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그는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침례를 받고 방언으로 말했다.

그러면 왜 이들이 방언으로 말했을까? 또 한 번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에 대한 표적(sign)이었다. 당신은 이들이 유대인들이었음을 어떻게 아느냐고 내게 물을



것이다. 사도행전 19장 8절은 분명하게 ‘회당’(synagogue)을 언급하고 있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의 회당에는 유대인들만 모였다. 또한 침례자 요한의 회개의 침례를 받았던 사람들은 오직 유대인들뿐이었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유대인들은 표적(sign)을 요구한다. 그리고 방언은 표적이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방언(분명한 외국 말)이 이방인들을 위해 주어진 적이 없다. 방언이 나타날 때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sign)이었다.

자, 이제 끝으로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을 보자. 여기에는 모조품 표적이 나온다.

진실로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인내와 표적들과 이적들과 강력한 행위들로 사도의 표적들을 행하였노라.

사도 바울이 행했던 것은 다름 아닌 사도의 표적들이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사도 교회를 모방하려면 - 다시 말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자주 사도 교회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자신들이 마치 사도인 체 하는 것 - 그는 표적들도 모방해야만 한다. 전 세계적으로 두 종류의 집단이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자신들을 최종 권위라고 말하며 당신이 그것을 믿도록 노력한다.

첫째 집단은 자신들이 사도의 표적들을 갖고 있으므로 사도적이라고 주장한다(오순절 은사 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 둘째 집단은 자신들의 교회가 사도 베드로 위에 세워져 있으므로 사도권을 계승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로마 카톨릭교회). 그래서 이 두 집단은 서로 손을 잡고 있다. 이 두 집단은 사도적 권위를 모방하려 한다. 또 당신이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하며 “우리가 사도권을 계승받았으니 우리 말을 들으라.”라고 말한다. 이 두 집단은 모두 모조품 방언들을 주장한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과 디모데후서 4장 20절을 보도록 하자. 지금 나는 당신의 삶을 통해 본 것들 중에서 가장 이상한 것 한 가지를 보여 주려 한다. 신약 성경이 기록되고 사도행전이 끝난 뒤에 그 같은 사도적 표적들은 사라지게 되었고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 같은 표적들이 사라졌을 때 가장 위대했던 사도였던 바울조차도 더 이상 그 같은 표적을 행하지 못했다.

더 이상 물만 마시지 말고 네 위장과 잦은 병을 위해 포도즙을 조금 쓰라(딤후5:23).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여기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위장병이 있어서 아플 때에 약을 조금 쓰라고 말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째서 그는 그를 고칠 수 없었을까? 당신은 한때 사도 바울이 손수건과 앞치마를 사용해서 사람들을 고칠 수 있었음을 기억하는가? 당신은 한때 사도 바울이 죽은 사람도 살린 것을 기억하는가? 당신은 한때 사도 바울이 단지 어떤 사람을 바라다보며 이야기함으로써 그 사람을 고친 것을 기억하는가? 그는 그 사람이 병 고칠 만한 믿음이 있음을 감지하고는 “일어나라, 네 발로 서라.”라고 말했다. 그런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이 끝날 때에는 자기가 아들같이 여겼던 디모데를 고칠 수 없었다.

디모데후서 4장 20절은 “드로비모는 병들어서 내가 밀레도에 남겨 두었다.”라고 기록한다. 도대체 사도 바울에게 어떤 문제가 생긴 것일까? 왜 그는 드로비모를 고칠

수 없었을까? 아니면 드로비모가 충분한 믿음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은 아닌가? 사도행전의 끝에서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벗어나지도 못한다. 사도행전 16장에서 그는 지진 가운데서도 기도했고 구출되었지만 사도행전 28장에서는 감옥에서 빠져 나오지 못했다.

만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병을 고쳐 주시려 하면 지금도 분명히 당신을 고칠 수 있다. 그러나 그분께서는 그리하지 않으실지도 모른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분과의 교제를 안 하지도 않으며 뒷걸음질치지도 않는다. 당신의 병이 낫지 않는 이유가 바로 당신의 믿음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들이야말로 사탄에게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들은 당신이 아플 때마다 영적으로 당신에게 문제가 있다고 믿게 만든다. 그런데 그것은 매번 맞지는 않는다. 아마도 받은 그럴 것이고 또 나머지 받은 그렇지 않을 것이다. 고린도후서 12장을 보자. 여기에는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 중 가장 위대했던 사도 바울이 나온다.

2절은 이렇게 기록한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알았는데 그 사람은 십사여 년 전에 셋째 하늘로 채여 올라갔느니라. (몸 안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고 몸 밖에 있었는지 내가 말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7-8절을 보자. 그는 자신의 육신 안에 가시가 주어졌다고 말한다.

계시들이 넘침으로 말미암아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시려고 주께서 내게 육체 안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사 나를 치게 하셨으니 이것은 내가 분량 이상으로 높여지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로 인해 그것이 내게서 떠나도록 내가 주께 세 번 간청하였더니

10절을 보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연약한 것들과 치욕과 궁핍과 핍박과 고통당하는 것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강하기 때문이라.

그 사람은 한때 죽은 자를 일으키고 병든 자를 고치고 기도함으로 감옥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여기서는 자신을 고칠 수 없었다. 그는 전 생애를 통해서 늘 아팠다. 그래서 그는 평생 동안 의사 - 사랑하는 의사 누가(골4:14) - 를 데리고 다녔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4장에서 목이 잘리게 되었을 때 “단지 누가만이 나와 함께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 힘들었던 전도 여행 기간 동안 항상 의사를 데리고 다녔다.

당신은 사도 바울보다 더 위대한 신유 부흥사를 아는가? 나는 사도 바울처럼 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을 본 적이 없다. 사도 바울은 단지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취해서 그것을 자기 몸에 닿게 한 뒤 그것을 아픈 이에게 보냈는데 그때 그가 그것을 만지면 즉각 병이 나았다. 나는 어떤 이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을 보았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는 것은 보지 못했다.

그렇다면 왜 사도 바울은 기적적으로 치료될 수 없었을까? 그 이유는 표적들(signs)은 항상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다루실 때만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에서 이스라엘을 다루고 계셨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고치실 수 없다고 말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병 고치는 은사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왜 그러느냐고? 그 이유는 그것이 표적이기 때문이다. 방언의 은사도 사라졌다. 그 이유는 방언이 표적이기 때문이다. 이제 알겠는가?

이것을 이해했다면 당신은 어떤 신학교 교수들보다 더 많이 알고 있다. 왜냐하면 그들은 방언이 없음을 주장하기 위해 고린도전서 13장을 인용하기 때문이다. 거기에 보면 완전한 것이 오면 방언과 대언이 사라진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완전한 것이 와서 방언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방언(외국 말)이 유대인들을 위한 표적이기 때문에 사라졌다고 나는 믿는다.

당신은 신앙의 모든 부분에서 모조품들을 발견한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을 보자. 이 구절은 적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1절부터 3절까지 읽어 보라. 그리고 9절로 오면 그것은 적그리스도가 오는 때에 대하여 말한다. 성경은 그가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기적들’과 함께 온다고 분명하게 말한다. 표적들, 표적들, 표적들!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는 사도의 표적들을 갖고 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자. 그래서 나는 항상 여러분에게 성경을 사용하라고 말한다. 그들은 도대체 성경을 믿지 않는다. 4절을 보자. 거기에는 ‘다른 예수’(another Jesus)와 ‘다른 영’(another spirit)이 나온다. 다시 한 번 읽어 보라. 다시 말해 예수가 한 명이 아니고 여럿이고 영도 여럿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신을 차려서 가짜들을 분별해야만 한다.

13-15절을 읽어 보자.

그러한 자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며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변형하는 자들이니라. 그것은 결코 놀랄 일이 아니니 사탄도 자기를 빛의 천사로 변형하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사역자들 또한 의의 사역자로 변형된다 해도 그것은 결코 큰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들의 행위대로 되리라.

마귀의 일꾼이라는 구절을 보았는가? 다시 말해 교회 목사들 가운데도 마귀의 일꾼들(모조품)이 있다. 요한계시록 2장을 보자. 2절은 “스스로 사도라고 말하나 사도가 아닌 자들을 네가 시험하여 그들이 거짓말쟁이들임을 알아냈다.”라고 말한다. 무슨 말인지 알겠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싫어한다. 한 사람이 불쑥 나타나서는 자신이 사도권을 받았고 사도적 권능이 있다고 주장한다. 주님께서서는 첫 사랑을 저버린 에베소 교회에게 그들이 에베소에서 자기가 사도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사도가 아닌 자들을 시험했음을 말하고 있다. 사실 그들은 거짓말쟁이들이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자신이 방언의 은사를 갖고 있다고 말하면 그에게 조금만 방언으로 이야기해 보라고 부탁해 보라. 그가 얼마 동안 이야기하거든 그가 말한 것을 해석해 보라고 하라. 만일 그가 그것을 해석할 수 없거든 그에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간구하라고 하라. 왜냐하면 성경은 분명히 어떤 이가 ‘알지 못하는 말’(unknown tongues)로 이야기할 때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 기도하라고 명령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고전14:27-28).

나는 지금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이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말들을 늘어놓을 수 있다. 그러나 어느 누구도 나를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은 당신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내가 금방 말한 것을 말할 수 있는 능력을 간구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4장을 보자. 이제 최종적으로 이 문제를 결정짓도록 하겠다. 이제 우리는 방언에 대해 최종적 판단을 내리도록 하겠다. 고린도전서 14장은 전체가 방언에 관한 것이며 이곳에는 절대로 성령님의 침례나 충만 등이 나오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이 구절들을 편견 없이 처음부터 읽어 볼 것을 권한다. 여기에서 단 한 번이라도 성령님의 침례가 나오는지 살펴보자. 한 번도 없지 않은가? 오직 오순절 은사주의자들만 사도행전 2장을 취해서는 고린도전서 14장에 대입하고는 이곳이 마치 성령님의 침례를 말하는 것처럼 사사로이 해석한다.

어떤 이는 “딕스맨 형제님, 나는 어젯밤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탈라라라’ 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정말로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느낌을 갖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한다. 나는 당신이 이런 사람들에게 성경에 대해 말할 수 없음을 알고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이미 성경은 옳지 않고 자기들이(자기들의 감정이) 옳다고 마음에 결심을 해 버렸기 때문이다. 나는 당신들의 경험을 부정하려 하지 않는다. 아마도 당신은 ‘탈라라라’ 했을 것이다. 나는 어떤 사람들이 구원받고는 ‘탈라라라’ 하지만 당신은 도저히 그것을 이해할 수 없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나는 당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 당신이 거짓말하고 있다고 말하지 않는다. 내가 말하려는 것은 당신이 당신의 경험의 견지에서 성경을 해석하려 하는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다. 사실 당신은 성경의 견지에서 당신의 경험을 해석해 야만 한다.

당신은 왜 이런 방언의 문제가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오가는지 그 이유를 아는가? 이런 젊은이들의 과반수 이상은 구원받기 전에 흥분제나 마약과 같은 것을 사용해 왔다(미국의 경우). 마약은 당신의 중추 신경계를 혼동시킨다. 당신의 혀는 중추 신경계에 의해 조절된다. 당신이 구원받았을 때 그것은 감정적으로 매우 깜짝 놀랄 만한 경험이어서 당신은 당신의 신경계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하게 된다. 나는 절대로 당신이 방언을 하고 있거나 했음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러나 제발 성경 말씀을 혼란시키는 일을 하지는 말라. 여러분 중 많은 사람들은 구원받기 전에 무엇인가 꼭 빠져 있어서 구원받은 후에도 그 같은 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자신이 구원받았는지조차도 알지 못한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다루는 주제와는 상관이 없다.

## 여자들과 방언 문제

고린도전서 14장 27-28절은 “만일 어떤 남자가(any man)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he)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라고 말한다. 당신 교회에서 여자들이 방언을 한다면 34절을 읽어 보라.

너희의 여자들은(your women)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to

speak)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다.

분명히 여인들은 ‘조용히 할 것’을 명령받고 있다. 그런데 사실상 우리의 교회 내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한다는 사람들의 90% 이상이 여자들이 아닌가? 무엇인가가 크게 잘못되어 있다. 고린도전서 14장은 방언 특히 알지 못하는 말에 관한 것이지만 어떤 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다. 34절은 절대로 여인들이 교회에 들어오면 아무 말도 하지 말라고 말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주께서 구속하신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이다, let the redeemed of the LORD say so.”라고 말한다. 당신은 ‘speak’와 ‘say’의 차이를 아는가? 성경은 여인들이 간증 이야기(say)를 하지 말라고 하지 않는다.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인들이 교회에서 잠잠히 있어야 한다고 하는 것(speak)은 앞뒤 문맥으로 살펴보면 방언에 관한 것임을 누구나 쉽게 알아낼 수 있다.

만일 그들(여자들)이 무엇을 배우려거든 집에서 자기 남편에게 물을지니 여자들이 교회에서 말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니라(고전14:35).

그런데도 수많은 여인들이 교회 내에서 알지 못하는 방언을 말하고 있지 않은가? 무엇인가 비성경적인 관행들이 교회 내에 편만해 있다. 성경은 분명히 “너희의 여인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을 하지 말고 조용히 하라!”라고 말하지 않는가? 이 같은 명령이 지켜지지 않을 때 누가 가장 기뻐하겠는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아닌가? 그래서 성경은 많은 사람들의 종교를 무너뜨려 버린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을 아주 싫어한다. 이 책은 그 정도로 위험한 책이다. 따라서 그들은 하나님의 오직 한 성경인 흠정역 성경을 자꾸 수정해서 자기들의 주장을 뒷받침하도록 노력하고 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나 많아야 세 ~~사람~~가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사람~~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고전14:27-28).

성경은 분명히 둘이나 셋이 모르는 방언으로 말하는 경우 한 번에 한 사람씩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과 함께 해야만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수많은 교회에서 통성 기도 등을 통해 한 번에 수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기도하고 있지 않은가?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한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는 사람이 어떻게 그분의 뜻을 따를 수 있는가? 37절은 “만일 어떤 남자가 자기를 대언자나 영적인 자로 생각하거든 그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이 주의 명령들이니 줄 인정할지니라.”라고 말한다. 이것들이 주님의 명령들이임을 기억하라.

그 뒤에는 “그러나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거든 알지 못하게 그를 돌지니라.”(38절)라고 또한 기록되어 있다. 당신이 그래도 성경대로 하지 않으려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단 하나님은 당신을 무지하다고 판단하실 것이다.

당신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그분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면서 다른 이들에게 당신이 영적이며 성령님으로 가득 차 있다고 말하고 다니지 말라. 사도 바울은 37절에서 분명히 자신이 그들에게 준 모든 것들이 ‘주님의 명령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자신이

영적이라고 주장하면서 하나님께 “제발 입 다물고 계시지요”라고 말하지 말라. 하나님은 당신보고 입 다물라고 하시지 않는가? 그것들은 그분의 명령들이다. 그리고 만일 당신이 영적이거든 그 명령들에 순종해야만 한다.

하루는 버스 승강장에 올라가는데 한 여인이 나를 잡더니 “오, 러크맨 형제님,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성령님의 침례를 주실 것과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영혼을 채워 주실 것과 그리스도의 달콤한 영께서 당신 위에 흘려넘칠 것을 기도합니다. 지금 형제님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형제님께서 개의하지 않는다면, ‘달라라라...’”라고 말했다. 그녀가 ‘달라라라...’ 하는 것을 마쳤을 때 나는 그녀가 도망치지 못하도록 그녀의 손을 꼭 잡고는 “자매님, 감사합니다. 저도 당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는 언젠가 당신이 성숙한 크리스천이 될 것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좋은 선물들을 자매님께도 주실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그러자 그녀는 내게 축복한 지 15초도 못되어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해졌다. 성경은 분명히 어떤 사람이 영적이라면 그는 이것들이 모두 하나님의 명령들임을 안다고 말한다.

자, 이제 고린도전서 14장 19-20절을 보자.

그러나 교회에서는 내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만 마디 말을 하느니 차라리 이해하면서 다섯 마디 말을 하여 내 목소리로 다른 사람들도 가르치리라.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약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

당신은 이 작은 책자 안에서 내가 다른 모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한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을 깨닫고 있는가? 나는 자랑하려고 이 말을 하지 않는다. 19-20절에 따라서 나는 내가 이 책자에 적어 놓은 것이 모든 은사주의자들이 행한 것을 합친 것보다 더 많다고 말한다. 이해하며 말하는 다섯 마디의 말이 은사 운동을 하는 이들의 만 마디 말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은사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이 말에 화를 낸다. 하지만 나는 성경을 믿지 사람들을 믿지 않는다. 내가 말한 다섯 마디 말이 당신이 이해할 수 없는 만 마디보다 훨씬 더 낫다.

방언으로 기도해야 더 효과가 있고 깊은 기도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마귀에 사로잡힌 크리스천들’이 많이 있다. 만일 당신이 성경을 진리로 받아들인다면 알아듣지 못하는 말로 밤새워 6시간(21,600초)동안 기도하는 것보다 깨어 있으면서 맑은 정신으로 11초 동안 [5:10,000 = 1:2,000]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유익함을 당신은 쉽게 깨닫게 될 것이다. 분명히 알겠는가?

고린도전서 14장 8절은 “만일 나팔이 분명하지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준비하겠느냐?”라고 말한다. 만일 어떤 사람이 말한 것을 당신이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도대체 무슨 유익이 있느냐고 바울은 말한다. 일어서서는 아무도 이해하지 못하는 말로 “오, 하나님께 영광을! 하스타라 산다이, 블라, 블라블라...” 하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한번은 유명한 은사 운동가가 설교단에 서서는 “살라살라...” 하더니 “아이참, 시원하다.” 하니가 그 밑에서 설교를 듣는 이들이 모두 “아멘, 아멘!” 했다. 어리석은 설교자에



소녀가 방언을 하고 심지어 입신하도록 인수하는 무지한 자들

그 청중들이 아닌가!

이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전도하는 성숙한 크리스천이 되자. 만일 방언하는 것이 당신을 구원한다거나 당신에게 어떤 유익을 가져온다면 나도 그것을 할 용의가 있다. 만일 당신이 알게 모르게 이 같은 혼동에 휘말려 있거든 빨리 그 속에서 빠져 나오라! 많은 사람들은 용기가 있어야만 성경을 믿을 수 있고 하나님과 친숙해질 수 있다. 하나님께서 그런 형제자매들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실 것이다.

밥 존스는 이런 말을 했다.

하나님께서서는 천사들의 반을 굶기고서라도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사람을 먹여 주실 것이다.

제발 그만 ‘달라라라...’ 하는 무리들과 어울리지 말고 성숙한 크리스천 어른들이 되기 바란다. 고린도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달라라라...’ 하는 그들이 영적으로 아기들(babes)이라고 말하지 않는가? 그래서 그는 그들에게 어른들의 음식을 줄 수 없고 젖을 준다고 하지 않는가? 고린도전후서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서신서에서 그는 어른들에게 주는 음식을 공급해 주고 있지 않은가? 왜냐하면 다른 교회들에서는 이런 어린 아이들의 문제가 전혀 없었기 때문이다.

당신의 감정적, 영적 경험들을 성경으로 판단해 보라. 성경은 한 번도 실패한 적이 없으며 당신의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지 않고도 매일같이 더 사랑하는 이들에게 넘치기를 기도한다.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너희가 그분을 보지 못하지만 그분을 믿고 있으며, 말할 수 없고 영광이 가득한 기쁨으로 기뻐하니(벧전1:8)

## 웰빙 목사의 혼동의 세계

또한 이것을 알라. 즉 마지막 날들에 위험한 때가 오리라.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탐욕을 부리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신성모독 하며 부모에게 불순종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본성의 애정이 없으며 협정을 어기며 거짓 고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자들을 멸시하며 배신하며 고집이 세며 높은 마음을 품으며 하나님을 사랑하기보다는 쾌락들을 더 사랑하며 하나님의 성품의 모양은 있으나 그것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딤후3:1-5).

### 서론

지난 20여 년간 전 세계적인 뉴에이지 운동의 발전을 보면서, 여러 곳에서 뉴에이지 운동의 실체에 관하여 강연을 하고 자료를 수집하면서 참으로 말세가 가까이 왔다고 느끼고 있다. 특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뉴에이지 운동의 종교 통합 움직임을 주시하면서 빌리 그래함, 로버트 솔러, 교황 바오로 2세, 마더 테레사, 달라이 라마 등의 발언과 회합 등으로 인해 놀라움을 금치 못하던 차에 이번에는 국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를 통한 종교 통합/일치 움직임을 보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할 필요를 느꼈다.

조용기 목사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의 목사이고 국내에서는 성도의 수에서 또 대중 매체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교회와 세상에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물이다. 물론 과거에도 그는 3박자 축복 구원, 4차원의 세계 같은 신비주의,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 예를 들어 “방언하지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것이다.”라는 등 - 로 인해 이미 외국의 근본주의 목사들에게는 비성경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국내에서는 어느 정도 자신의 정체를 감추고 잠복해 있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이미 종교인들의 타락을 예고하셨으므로(마24:11-2) 사실 우리 성도들은 이런 일로 인해 크게 놀랄 필요가 없으며 또 이런 일이 생기면서 성도들의 휴거가 있으므로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이르렀음을 더욱 확신할 뿐이다. 다만 우리 자녀들과 믿음이 약한 지체들 그리고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는 사람들을 위해 경고의 메시지를 전해야 한다고 믿는다. 본인은 이런 차원에서 간단하게 조용기 목사의 발언을 비판하고자 한다.

---

이 글은 2004년 5월 1일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 최고위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용기 목사의 다원주의 발언 이후 역자가 소책자로 쓴 글이다.



## 본 론

2004년 5월 1일 동국대학교 불교 대학원 최고위 과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조용기 목사는 자신의 종교관을 밝혔다. 이 모임에서는 2004년 4월 28일 김수환 추기경이 강연했으며 6월 2일에는 종교 통합을 주장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강원용 목사가 강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 이들과 하나가 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럽게 만든 조 목사의 발언을 살펴보자.

아버지께서 늘 저보고 하신 말씀은 이렇습니다. ‘심신불(마음과 정신이 부처)이다. 부처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마음속에 있는 것이니까 직지인심(마음을 지도하여 불과를 이루게 하는 일), 견성성불(자기 본성을 깨달으면 부처가 되는 것)하라. 그냥 깨닫고 나면 부처가 바로 여기 있는 것이다. 아버님께서는 늘 저보고 계유불성(중생이 부처로 될 성질)이기 때문에 벌레 한 마리 속에도 불성이 있다. 그러므로 살생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늘 듣고 교육을 받으면서 제가 자라났습니다.

힌두교, 불교, 뉴에이지는 모두 사람 안에 그리스도 혹은 부처가 있으며 영성 훈련, 즉 요가, 명상, 만트라(방언), 참선, 방언, 입신 등을 통해 영성을 개발하면 ‘신이 된다.’ 혹은 ‘부처가 된다.’ 혹은 ‘그리스도를 인식한다.’고 가르친다. 또 천주교회에서는 나중에 모두가 그리스도가 된다고 가르친다. 그런데 조 목사는 바로 그와 같은 배경 하에서 자라서 여전히 몇십 년간 예수 믿고도 이런 사상을 벗어나지 못한 인상을 준다. 목사가 불교 신자들 앞에서 그리스도와 부처의 차이를 가르치지 않고 그 둘이 서로 비슷함을 강조하려고 애를 써서 얻는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 복음의 핵심은 사람이 죄인임을 보여 주고 사망의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것이다. 물론 이 일로 인해 대부분 박해와 조롱과 멸시를 당하지만 진실을 바로 가르쳐 주는 것 없이 어떻게 사람을 지옥 불 속에서 끄집어낼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의 바른 목자라면 진실을 말해야 한다. 그런 자가 진정으로 사람을 사랑하는 목자이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일을 하다가 죽어 갔으며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이 세상과 짝을 하지 않고 사람의 수에 상관하지 않고 바른 것을 보여 주었으며 하늘의 본향에 목표를 두고 이 세상을 나그네와 순례자로 살아갔다.

그런데 제가 17살 될 때 1953년도 6.25 전쟁이 막 끝났을 때에 폐병 3기에 걸려서 피를 많이 토하고 쓰러졌습니다. 서울대학교 X-ray과 과장 선생님이 저를 보시더니만 너 많이 살면 6개월 밖에 못 살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17살 먹은 소년으로서 도저히 깨달음의 초월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었습니다. 하루는 부처님이든 예수님이든 마리아든 누구든지 날 살려만 주면 평생을 바쳐서 일하겠습니다. 날 살려 주십시오. 그때까지 교회에 나가 본 적도 없고 목사님의 설교도 들어 본 적이 없고 또 성경을 읽어 본 적도 없는데 그때 성경을 읽으니까 만약 그리스도가 오늘날 살아 계시다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가 혼자서 엎드려서 기도를 드렸습니다. 저를 살려 주시면 예수님을 위한 출가승이 되겠으니 나를 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아버님이 겁이 나니까 아버님 몰래 기도를 드렸는데 제가 예수님과 인연이 닿은 거 같아요. 저는 그때까지 찬송가 한마디 모르고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기 때문에 절망 상태에 있던 내가 노래가 부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일어나서 ‘아 신라의 달밤이여 불국사의 종소리 들려온다.’ 이 노래를 집안이 떠나가도록 크게 불렀는데 점점 열이 떨어지고 피를 토하던 것이 없어지고 그다음에 음식이 당기고 6개월 만에 숨 쉬는 것이 편안하게 되더니만 1년 만에 살아났습니다. 완전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조 목사는 부처, 예수, 마리아 등을 부르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하고 ‘신라의 달밤’을 부른 뒤 병상에서 일어났다고 한다.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믿음인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독자의 교회에 와서 혹은 독자에게 이런 간증을 하면 어떻게 생각할 것인가? 당장에 그 사람이 성경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다고 말하고 성경을 펴서 바른 그리스도를 보여 주지 않겠는가? 목사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하나님은 목사나 장로 혹은 집사라는 타이틀을 보지 않는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구원받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간증을 지닌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 그는 기독교의 복음을 크게 혼동하고 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롬10:17). 그런데 한 번도 복음을 접하지 않고 어떻게 기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던 말인가? 하나님은 찬양으로, 기도로 사람을 구원한 적이 없다. 사람은 반드시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성령님으로 인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롬1:16; 벰전1:23-25).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서기관이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게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의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고전1:20-21).

종교 타협 혹은 종교 통합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사람을 구원하는데 이 복음은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인다. 그러나 바로 이 복음 안에 사람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권능이 있다. 그러므로 불교도도, 무슬림도, 천주교도도 이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원자요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구원받는다.

다른 사람 안에는 구원이 없나니 하늘 아래에서 우리를 구원할 다른 어떤 이름도 주께서 사람들 가운데에 주지 아니하셨느니라, 하였더라(행4:12).

그 어마어마한 마음의 신념, 그것은 도저히 인간으로서 만들어 낼 수 없는 그런 확신이 저를 변화시킨 것입니다. 눈에 아무 증거 안 보이고 귀엔 아무 소리 안 들리고 손에 아무 잡히는 것 없고 내 앞길 칠흑같이 어두워도 내 마음속에 큰 평안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더욱이 그는 마음의 신념과 그리스도의 믿음을 완전히 혼동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노만 빈센트 필과 로버트 솔러가 주창하는 긍정적 사고이다. 복음도 듣지 못한 상태에서 병이 나아 어마어마한 신념을 갖게 되었다니 이것이 과연 기독교의 믿음인가? 성경은 병에서 나옴으로 구원받은 사례를 기록하지 않는다. 물론 돈 많이 벌게 되어 구원받는 일도 없다. 500만 원 현금하고 하나님이 5억으로 채워 주실 줄 확신하는 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요, 조 목사 스스로 주장하는 ‘엄청난 자기 확신’이다. 베니 힌 같은 자들이 “부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외치면서 자기 확신에 차서 많은 사람을 미혹에 빠뜨리지만 이것은 기독교의 믿음이 아니다. 성경의 사람들은 어느 누구도 이러한 자기 확신을 가지고 살지 않았다.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와 그분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요17:3). 죄인임을 철저히 자각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것 없이, 병이 나아 재산이 늘고 오복(五福)을 받아 구원받은 것은 헛된 구원이요 착각 구원이다.

종교는 불교나 기독교나 마호메트교나 평등합니다. 저는 불교 집안에서 태어나 기독교 목사로 있으니, 선불교랑 같은 것이 너무 많아요. 내 마음이 부처라는 것도 예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예수님은 네 마음에 있다 저 죽어서 서방 정도 세계가 아니라 지금 내 마음속에 천당이 이루어져야지 죽고 난 다음에 천당을 바라지 마라 또 계율과 율법을 가지고 하면 전부 죄밖에 드러나지 않는데 믿음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난 다음엔 그다음엔 자동적으로 믿음에 따라서 마음이 뜨거워지면 율법과 계율을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가 원호 사상을 좋아하는 것은 나무아미타불 이 여섯 글자를 외움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그다음에 계율을 지켰으니 계율도 지키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통하는 점이 많아요.

그는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고 한다. 과연 사도 바울이 아테네(아텐)에 가서 거기 모인 모든 이방인 숭배자들에게 모든 종교가 평등하다고 외쳤을까? 그 결과 많은 박수갈채를 받으면서 다른 곳으로 향했을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점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점에서 평등할 뿐이다.

대부분의 인본주의자들은 다음과 같은 구절을 악용하여 천국이 장소가 아니라 마음의 상태라고 주장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물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개역성경 눅17:20).

여기서 문맥을 보면 “너희 안에 있다.”의 ‘너희’는 예수님께서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저주하신 바리새인들이다. 예수님은 결코 바리새인들 안에 천국이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다. 기존 우리말 성경의 ‘나라’는 원래 왕국이다. 왕국이 성립하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왕이 있어야 하며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질문을 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왕으로 너희 가운데 와서 거하므로 하나님의 심판이 왔다.”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교회마다 이런 인본주의 사상을 가르치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바르게 들어갈 여지가 없다. 성경은 분명하게 천국과 지옥이 사람의 생각이나 상태가 아니라 장소라고 가르친다. 마귀와 그의 천사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거짓 대언자들은 펄펄 끓는 유황 불 호수에서 영원토록 밤낮으로 고통을 받는다고 성경은 기록한다(막9:43-48; 계 19:20; 20:10).

저는 불교 TV를 굉장히 좋아해요. 왜냐하면 불교를 내 친정집같이 생각하기 때문에 그 강의를 들으면 굉장히 마음속에 유익을 많이 얻어요. 저는 정병조 교수님의 전

시리즈를 다 들었습니다. 책으로, 텔레비전으로 다 들었는데 그분 강의를 내가 왜 좋아하냐면 쉽게 해요, 제가 왜 불교 강의를 열심히 듣냐 하면 불교 강의를 들음으로 비추어 볼 때 내가 믿는 기독교 신앙의 깊이를 더 깨달을 수 있어요. 그런 점에서 종교 간의 대화가 필요하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고맙습니다(박수).

그는 불교 강의를 통해 기독교 신앙을 깊이 깨닫는다고 한다. 사도 바울이 제우스, 다이이나 신을 섬기는 자들로부터 한 수 배운 적이 있는가? 모든 사람에게 영광을 받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가중한 것이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기 전에 자기에게 이득이던 모든 것을 뚱으로 여겼다고 간증한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것들,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dung)로 여기나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율법에서 난 나 자신의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을 통한 의 곧 믿음에 의해 하나님에게서 난 의를 소유한 채 그분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라(빌3:7-9).

세상의 철학과 이교도 사상이 모두 뚱이라고 간증해야 할 목사가 오히려 그들에게 아부하고 그들을 기쁘게 해서 무엇을 얻으려 하는가? 이 모든 것이 명예 때문인데 이에 대해 우리 주님은 이같이 경고하신다.

모든 사람들이 너희에 대해 좋게 말할 때에 너희에게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대언자들에게 그렇게 행하였느니라(눅6:26).

그렇습니다. 불교가 한국의 전통적인 종교로서 장자 종교입니다. 불교가 만약에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독선주의로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목사님들이 그 종교의 특수성과 그 차별성을 인정하지 않고 유아독존적으로 생각하므로 많은 분쟁이 생길 요인이 있기 때문에 제가 은퇴를 하고 나서는 더 많은 대화를 통해서 이해와 화해의 길을 모색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종교는 평등합니다[참석자들 박수].

그는 빌리 그래함, 로버트 솔러, 바오로 교황 등이 하는 것처럼 이제 종교 통합의 대사가 되려는 아무진 꿈을 피력했다. 도대체 종교 간의 대화가 왜 필요한가? 모든 사람이 죄인으로 지옥 불 속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과 함께 그리스도의 단번 속죄 희생을 통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선포해야 할 목사가 사람들의 영광을 구하며 인생을 마감하겠다고 하니 참으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이것이 기독교라면 로마의 콜로세움에서 사자들의 밥이 되면서 죽어 간 믿음의 선조들은 헛되이 죽은 것이다. 천주교는 기독교가 아님을 외친 마르틴 루터 역시 헛되이 죽은 것이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역시 모두 헛된 삶을 산 것이다.

아마도 그는 '종교계의 노벨상'이라고 하는 템플턴(Templeton)상을 받으려는 야심이 있는 것 같다. 국내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템플턴상은 훌륭한 목사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 종교 통합/영성 개발을 위해 애쓴 여러 종교의 지도자에게 주는

인본주의 상이며 그래서 무슬림, 무신론자, 마더 테레사, 빌 브라이트 등 종교에 관계없이 이 상의 정신에 맞는 사람이 받는 상이다. 따라서 미국의 크리스천들은 이것을 템테이션(Temptation)상 - 즉 유혹의 상 - 이라고 부른다. 이런 상 받으면 하나님 앞에 서서 무한히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 목사님의 말을 기독교 외에도 예수님, 하나님 외에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말로 생각해도 되겠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조 목사의 답변

저는 그 차별성이라고 말하는 것은 불교는 불교의 구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독교는 기독교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불교도 뛰어넘을 수 없고 기독교도 뛰어넘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차별성을 인정하고 대화를 하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불교가 주장하는 것을 비판할 수 없습니다. 그런 권한이 없어요. 불교는 불교대로 존중을 하고, 인정을 하고, 기독교는 기독교대로의 구원의 방식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합니다. 종교라는 평등한 공동분모에서 차별성을 인정하고 함께 살아 가자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도 우리 집안 식구들 중에도 아직도 불교를 믿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서로 아무런 저항감을 느끼지 않습니다. 서로 차별성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동생은 불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다고 확신을 믿기 때문에 존중하고 인정하고, 나는 기독교 목사니까 기독교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을 인정하고 내 것만 절대 진리라고 인정할 수 없습니다. 너는 죽이고 나는 살겠다. 그렇게 되면 상생의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것은 부처님도 예수님도 원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은 자비와 사랑의 원리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종교의 차별성을 인정하고 그대로 두는 것은 목사의 책임 회피요 직무 유기이다. 정말로 부처를 믿는 사람이 지옥 불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확실하다면 어떻게 인정하는 것으로 끝을 낼 수 있을까? 불교의 구원은 기독교의 지옥이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과격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너무나 확실한 진리이다.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참으로 하나님은 진실하시되 사람은 다 거짓말쟁이라 할지어다. 이것은 기록된 바, 이로써 주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들에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판단받으실 때에 이기시리이다, 함과 같으니라(롬3:4).

진리는 배타적이다. 만일 예수님과 사도 바울과 베드로가 조 목사처럼 다른 종교를 인정했다면 죽을 필요도 고난받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과연 하나님이 돌덩어리, 쇠덩어리, 나무 조각을 깎거나 다듬어서 만든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을 심판하지 않겠는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까지 계시되어 있으나 이것은 기록된 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여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어 썩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을 썩을 사람이나 새나 네발 달린 짐승들이나 기는 것들과 같은 형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도 그들을 그들 마음의 정욕을 통해 부정함에 내주사 *그들/ 자기* 몸을 서로 욱되게 하셨으니 그들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고 창조자보다 창조물을 더 경배하며 섬겼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히 찬송받으실 분이시니라. 아멘(롬1:17-25).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런 무리가 있을 것을 아시고 다음과 같은 경고를 주셨다.

거짓 대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오지만 속은 악탈하는 이리니라. 너희가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니 사람들이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거두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되 변질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변질된 나무가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 속에 던져지나니 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너희가 그들을 알리라. 내게, 주여, 주여, 하고 말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는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마7:15-23).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까이 와서 이런 일이 있음을 깨닫고 결코 놀라지 말아야 한다. 마귀는 유명한 인물을 통해 일한다. 사람을 보지 말고 그의 말이, 열매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인가 판단해야 한다. 또한 영을 판단하고 분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의 말씀이 얼마나 적절한가!

주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무엇인지 검증하라. 열매 없는 어둠의 일들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그것들을 책망하라. 그들이 은밀한 가운데 행하는 그것들은 말하는 것조차 수치니라(엡5:10-12).

끝으로 이런 기괴한 일을 보고도 입을 다물고 있는 목사들을 향해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신다.

들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이, 숲에 있는 너희 모든 짐승들이, 참으로 삼키러 올지이다. 그의 파수꾼들은 눈먼 자들이요, 그들은 다 무지한 자들이며 다 말 못 하는 개들이므로 짚을 수 없도다. 그들은 잠자고 눕고 졸기를 좋아하니 참으로 그들은 결코 만족할 수 없는 탐욕스러운 개들이요, 깨달을 수 없는 목자들이다. 그들이 다 자기 길을 바라보고 저마다 자기 구역에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니 우리가 독주로 우리 몸을 가득 채우자. 내일도 이날과 같고 더욱더 풍성하리라, 하느니라(사56:9-12).

## 결 론

온 세상이 혼동에 빠져 들고 있다. 참으로 위험한 때이다. 이제는 정치, 경제, 종교가 하나가 되어 기독교와 유대인을 말살하려 하고 있다. 그런데 성경은 온 세상이 추구하는 평화, 진리를 버리면서까지 추구하려는 이 평화를 빌미로 적그리스도가 자신의 뉴에이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해 수많은 사람이 죽을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적그리스도]가 또한 자기 정책을 통해 자기 손안에서 속임수가 성공하게 하고 자기 마음속에서 자기를 크게 높이며 평화를 빌미로 많은 사람을 멸할 것이요, 또한 통치자들의 통치자를 대적하여 일어설 것이나 그가 손으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무너지리라(단8:25).

주님 바라보며 휴거의 소망을 가진 크리스천들에게 하늘의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충만히 채워 주시길 원한다.

## 부가 설명

사람의 친구를 보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는 말이 있다. 2006년 2월 14일 조용기 목사의 70회 생일 축하 예배가 500여 명의 교계 인사 및 성도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울 흥은동 그랜드 힐튼 호텔에서 열렸다. 다음은 국민일보에 난 기사이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호선 부목사의 사회로 진행된 예배에서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는 <큰 구원 큰 은혜>라는 설교를 통해 '다윗의 삶은 눈물과 기쁨, 찬양으로 점철됐으며 삶의 길목마다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이 막아 주셨다.'면서 '이처럼 조 목사님의 인생에도 많은 고난이 있었으나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해 주셨다.'고 말했다. 또 김 목사는 '그동안 조 목사님이 국민일보, 기독교 TV, 기독교 교도소 등 한국 교회가 져야 할 짐을 많이 져 왔다.'면서 '이제 한국 교회는 서로 힘을 모아 그 모든 짐들을 함께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예배에는 오랄 로버츠 목사, 로버트 슐러 목사, 피터 와그너 박사, 팻 로버트슨 목사, 베니 힌 목사<sup>1)</sup> 등 해외 저명한 목회자들이 축하 메시지를 보내왔으며 조 목사 목회 48년을 회고하는 영상 스크린이 방영돼 참석자들에게 몽클한 감동을 안겨 주었다. 로버트 슐러 목사는 '어떤 기독교 지도자보다도 큰 존경과 애정으로 조 목사의 사역을 감탄하고 있으며 그를 위해 자주 기도하고 있다.'고 전했다. 오랄 로버츠 목사는 '내 삶에 큰 영향을 준 조 목사에게 감사하고 있으며 앞으로 조 목사 사역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넘치길 바란다.'고 축하했다...후략<sup>2)</sup>

조 목사의 목회와 가장 관련이 깊은 그의 외국 친구들은 한결같이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다. 이들의 사역이 어떠한 같이 조 목사의 사역도 그러하다. 참과 거짓이 공존하는 이 혼탁한 시대에 주님께서 성도들에게 진리의 영을 따를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시기를 기도한다.

1) 조용기 목사의 절친한 친구인 베니 힌 목사의 순복음 교회 집회는 다음에서 볼 수 있다.  
<http://blog.daum.net/song3294221/10444968>

2) 네이버에서 '조용기 목사 70회 생신 슐러'라고 치면 기사가 나온다.

## 사도행전 바로 이해하기

지금까지 우리는 성령님의 여러 사역, 즉 성령님이 오시는 것, 성령님이 내주하시는 것, 성령님이 채우시는 것, 성령님의 침례 등을 공부했다. 그런데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기만 하면 곧바로 성령 침례 문제가 나오고 성령 침례의 증거로 타 언어(방언)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사도행전 2장에서 일어난 일이 지금 그대로 다시 반복되어 일어나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글의 목적은 사도행전에서 정말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객관적으로 보여 주는 것이다.

### 교리 문제의 핵심: 사도행전 이해

입신과 방언이 있어야 성령 침례(세례)를 받은 것이라는 주장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방언 열풍이 이삼십 년 전부터 순복음 교회를 통해서 불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성숙하지 못한 그리스도인들과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방언을 하고 있다. 방언은 힌두교도도 하고 불교도도 하고 다른 이교도들도 한다. 입신 역시 이교도들의 종교에서는 흔한 일이며 이슬람교도들 가운데서도 빈번히 일어난다.

현재 마귀는 모든 이교도들의 종교에 거의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방언을 종교 통합의 도구로 사용하려 한다. “우리가 다 방언을 하니 같은 하나님을 믿는 것 아니냐?”는 말로 마귀는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어떻게 정당성을 갖느냐고 물으면 그들은 사도행전 2장을 가리킨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가져다 대면서 그들은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도 지금 그 일을 한다.”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잊지 않고 히브리서 13장 8절 말씀 즉,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말씀도 문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인용한다.

그래서 사도행전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바르게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도 이들의 꾀변에 넘어갈 수 있으므로 우리는 사도행전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래야 현재 산불처럼 번지고 있는 오순절 은사주의의 혼동에서 벗어날 수 있다.

교회 안에서의 교리 문제는 대부분 변천기를 다루는 책에서 생긴다. 신약 성경에서 변천기 혹은 과도기를 다루는 책은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이다. 마태복음은 구약에서 신약으로 변천되는 과정을 기술하고 사도행전은 유대인 중심의 기독교에서 이방인

---

이 글은 역자가 사랑침례교회에서 가르친 내용이다. 이에 대한 유튜브 동영상 <사도행전 바로 이해하기>를 보기 바란다. <https://youtu.be/jxRq-tn0hwk>



중심의 기독교로 변천되는 과정을 그린다. 그래서 변천기에 이루어지는 이 과정들을 잘 이해하지 못한 채 변천기에 이루어진 어떠한 절차나 일들을, 모든 것이 완전하게 확립된 이후에도 가져다가 적용하면 안 맞는 경우가 많다.

사도행전은 주후 30년부터 70년 사이의 일을 기록하고 있다. 사도행전의 골자는 오순절 날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신 뒤에 유대인들 가운데 교회가 형성되고 유대인 중심에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가 변천되며 확고히 교리적으로 정립되는 역사를 보여 주는 것이다.

사도행전의 내용을 분해해 보면 먼저 1장에서 7장에 성령님의 강림과 유대인들 가운데 기독교가 확고히 세워진 것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은 총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1장에서 7장에는 이방인 이야기가 단 한마디도 나오지 않는다.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한다. 그다음 8장부터 28장 사이에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복음이 선포된 것이 기록되어 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가서 보면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 말씀대로 사도행전의 1-7장은 100% 유대인들을 다루고 그다음에 8장은 반 유대인인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티오피아 내시를 다루며 9장 이후는 바울이 회심을 하면서 이방인들을 향한 교회 사역을 기술한다.

복음서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에서 드러난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고 사도행전에는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에서 일하시는 그분의 생명이 제시되어 있다.

## 사도행전 1장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가 기록한 역사서이다. 누가복음이 끝난 다음에 누가는 연이어서 사도행전이라는 둘째 보고서를 썼다. 성경을 읽을 때 주의할 것이 있다. 그것은 편견을 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사도행전을 펴고는 “아, 지금부터 이방인 교회가 시작되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큰 문제요 편견이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무어라 말하는지 거기에 집중해야 한다. 즉 성경에 기록된 대로 그 당시 주인공들이 처한 상황 속으로 들어가 객관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모든 편견을 버리고 성경 속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그 일들 속으로 직접 들어가 보면 그 시대에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그 일들을 바로 느낄 수 있다. 바로 그것을 느끼도록 지금 누가가 기록을 하고 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셨다. 열두 제자들이 그 사실을 눈으로 봤다. 그런데 그 열두 제자는 다 이방인인가, 유대인인가? 모두 유대인이다. 5절에서 예수님은 “요한은 물론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이제부터 많은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라고 말씀하신다. 이 말은 아직도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을 뜻한다. 더 이상 다른 해석은 필요하지 않다. 아직 성령님의 강림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교회가 형성되지 않았다.

6절이 중요하다. 이때에 유대인 제자들은 함께 모여서 “주여, 주께서 이때에 그 왕국을 이스라엘에 다시 회복시키려 하시나이까?”라고 그분께 물었다. 그들이 말한

‘그 왕국’은 무슨 왕국인가? 3절에 있는 대로 그것은 하나님의 왕국이다. 여기 이 유대인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 이후 40일 동안 여전히 하늘의 하나님이 이 땅에서 통치하시는 왕국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다. 즉 그들의 질문은 다음과 같다.

이제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 유대인들로 구성된 이스라엘에게 문자 그대로 그 메시아 왕국을 회복시켜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자, 여기에 교회가 나오는가? 그들은 예수님에게 교회를 세워 달라고 하지 않았다. 그들은 메시아 왕국, 즉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의 예루살렘에 세우시는 하나님의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유대인 제자들은 교회가 아니라 여전히 이스라엘을 향한 프로그램을 원하고 있었다. 그들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 즉 교회 프로그램은 알지도 못했고 따라서 전혀 관심이 없었다.

그 당시 땅에 있던 이 유대인 제자들은 아직 교회라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편견 없이 읽어야 한다. 그들은 이렇게 말하였다.

예수님이 삼 년 반 동안의 공생애에서 계속해서 세우고자 했던 그 왕국, 이제 주님이 부활했으니 이스라엘을 위해 그것을 세워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그때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왕국을 회복시켜 주는 때에는 너희가 알 바 아니고 그분께서는 자신의 권능 안에 그것을 두셨다.”라고 말씀하셨다. 예수님은 왕국을 이스라엘에 세우는 그 일을 결코 부인하지 않으셨고 다만 하나님께서 자신의 때에 그것을 이룰 것이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8절의 유명한 말씀을 주신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런데 제자들은 아직도 이 내용이 무엇인지 모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은 1장 9절부터 예수님이 기다리라고 하므로 마가의 다락방에 들어가서 가룟 유다 대신 맛디아를 뽑아 사도직을 계승하게 한다. 이런 상태에서 2장으로 넘어간다.

## 사도행전 2장

2장을 열자마자 오순절이 나온다. 오순절은 누구를 위한 명절인가? 지금뿐만 아니라 과거에 오순절을 지킨 이방인들이 있는가? 그것은 유대인들만의 명절이다. 그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가운데 충만한 때가 차자 드디어 그 오순절에 성령님께서 강림하셨다. 4절에 보면 그들은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나라 사람들의 타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

5절은 그때에 거기에 독실한 자들 곧 유대인들이 하늘 아래 모든 민족으로부터 나와 예루살렘에 거하고 있었다고 말한다. 이때에도 여전히 100% 유대인들과 유대인 개종자들만 나온다. 하나님은 세계 방방곡곡에서 여러 민족들 가운데 거하다가 자기를

의 3대 명절 중 하나인 오순절을 지키러 온 유대인들이 이 명절을 지키면서 거기서 보고 들은 일들을 자기 나라로 가지고 돌아가 증언하기를 원하였다.

유대인 제자들이 외국 말을 하자 거기 모인 유대인들은 놀라서 그들의 말을 경청하고 어떤 사람들은 그들을 비꼬기도 했다. 이때에 베드로가 열한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유대 사람들과 예루살렘에 거하는 모든 자들아, 내 말들에 귀를 기울이라.”라고 말한다. 그 당시 베드로의 선포 대상은 본토에 사는 유대인들과 명절을 맞이해서 전 세계 사방 각지에서 모인 유대인들과 유대교 개종자들이었다.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 형제들이 외국 말로 말하는 것을 보고는 구약 성경의 기록들을 처음부터 기억하다가 하나님의 영이 오셔서 이와 같은 엄청난 일들이 일어날 것을 기록한 요엘서를 생각해 내었다. 그래서 그는 16절에서 “이것은 **주께서** 대언자 요엘을 통해 말씀하신 것이니라.”라고 말하며 요엘서를 낭독한다.

요엘서를 읽으면 알겠지만 그 안에는 교회에 대한 말씀이 단 하나도 없다. 놀라지 말라. 요엘서 안에는 교회가 나오지 않는다. 요엘서는 누구에게 주어진 말씀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말씀이다. 이스라엘의 대언자 요엘은 마지막 날들에 **주** 곧 여호와와 날이 오는 때, 즉 메시아 왕국이 오기 바로 전에(**주의** 날에) 심판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루어질 일들에 대해서 예언했다. 요엘서는 이방인들이 주축이 되는 교회와 전혀 상관이 없으며 교회 시대가 끝나고 이 땅에 이루어질 **주의** 날의 심판에 대해 말한다.

자, 이것을 확신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으므로 요엘서를 조금 살펴보자.

요엘서 2장은 크고 무서운 **주의** 날을 다룬다. 1-17절은 그때에 시온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선포하고 회개하는 일을 기록한다. 18-27절은 **주께서** 뜻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며 친히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보여 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때에는 천년 왕국이 이루어질 터이므로 자연계에 변화가 생겨서 들짐승들도 무서워하지 않고 광야의 초장이 짝을 내며 나무가 열매를 맺고 무화과나무와 포도나무가 힘을 내게 된다(22절; 사11, 40장 참조).

또한 **주께서** 그들에게 실제로 이른 비와 첫째 달의 늦은 비를 내려 주셔서 그들의 타작마당에는 밀이 가득하고 독에는 포도즙과 기름이 넘쳐 나게 된다(23-24절). 그때에 다음과 같은 일이 생긴다.

이로써 내가 이스라엘의 한가운데 있다는 것과 내가 **주** 너희 하나님이며 다른 자가 없다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내 백성이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27절).

27절은 역시 **주의** 날을 다룬 스바냐서 3장 14-20절 말씀과 동일하다. 이 말씀 다음에 유명한 28-32절이 나온다.

그 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또한 **산**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줄 것이요, 또 내가 하늘들과 땅에서 이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들이니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출을 받으리니

**주가** 말한 대로 시온 산과 예루살렘에 구출이 있으며 **주가** 부를 남은 자들에게도 **구출이 있으리라**.

이제 28절의 첫 두 단어를 살펴보아야 한다. 그것은 ‘그 뒤에’이다. 즉 2장 1절부터 27절이 이루어진 뒤에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의 영이 모든 육체 위에 부어지는 일이 생긴다고 성경은 말한다. 이것을 베드로는 사도행전 2장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하나님이 말하노라. 마지막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 주리니 너희의 아들딸들은 대언하며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 날들에 내가 내 영을 내 **♂**종들과 여종들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대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이적들을 보이며 아래로 땅에서는 표적들을 보이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니라. 저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나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행2:17-21).

베드로는 요엘서의 ‘그 뒤에’를 ‘마지막 날들에’라고 기록한다. 문맥에서 벗어나지 않고 요엘서를 읽으면 누구라도 그것이 교회를 향한 말씀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요엘서에서 요엘이 말하는 대상인 ‘너희’는 누구인가? 100% 유대인이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아들딸, 젊은이, 늙은이, 남중, 여중은 다 누구인가? 100% 유대인이다. 요엘서에서 대언하고 환상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은 다 마지막 때, 즉 **주의 날**이 올 때, 다시 말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유대 땅에 살게 될 유대인들이다. 바로 그때에 유대인들이 자기 땅에서 외국 말을 할 것이며 대언을 할 것이다.

베드로는 자기 동료들이 방언과 대언을 하는 것을 보고는 이제 요엘서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으로 생각해서 요엘서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낭독하였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약 성경의 예언에 따르면 **주의 날**이 온 뒤 그다음에 메시아 왕국이 온다. 메시아 왕국, 즉 하나님의 왕국이 온다. 이것은 요엘서 3장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다. 그때에는 여호사밧 골짜기에서 민족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양과 염소 민족들의 비유로 설명해 주신 것과 같은 내용이다.

이렇게 그분께서 민족들을 심판해서 마귀와 함께 지옥 불에 들어갈 자들을 다 구분하여 소멸시키신 뒤에(마25:41) 드디어 믿음으로 구원받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천년 왕국에 육신을 입은 채 들어간다(마25:34). 이들은 거기에 들어가서 자손을 낳으며 마귀의 유혹이 없는 가운데 문자 그대로 1,000년 동안 살게 된다(계20장). 이것이 구약 성경이 말하는 천년 왕국의 핵심 내용이다.

여기서 베드로는 요엘서의 내용을 많이 인용했지만 사실 19-20절의 ‘위로 하늘에서의 이적들과 아래로 땅에서의 표적들 곧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일’은 그 오순절에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실 베드로는 유대인들에게 21절 말씀, 즉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는 말씀을 유대인들에게 전달해 주려고 요엘의 글을 인용했다.

그러나 17-18절뿐만 아니라 19-20절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때가 온다. 그때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의 때다. 말세에 7년 환난기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와 같이 크고 주목할 만한 **주의** 날의 심판이 닥쳐서 유대인들은 이적들과 표적들, 피와 불과 연기와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는 것을 보고 젊은이들은 환상들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고 남종과 여종은 영으로 충만하게 된다.

자, 그래서 22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 모든 일의 요점을 이야기한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들을 들으라. 너희도 스스로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그분을 통하여 너희 한가운데서 행하신 기적들과 이적들과 표적들에 의해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서 확증하신 사람이시니라.

지금 베드로는 누구에게 말하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한다. 그는 “이제 너희가 **주의** 이름을 불러야 구원을 얻는데 **주가** 누구냐,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주겠다.”라고 말한다. 그리고 나서 그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나사렛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기적들과 이적들을 일으켜서 메시아 표적들을 보여 주시고 이분이 너희의 주님이라는 것을 다 보여 주셨는데 너희가 본디오 빌라도와 합작해서 이 영광의 메시아를 잡아서 죽이고 십자가 처형을 받도록 했다.”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의 죄를 지적한다.

그 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이분을 부활시켜서 산 자들과 죽은 자들의 **주가** 되게 하셨다.”라고 그는 말한다. 연이어서 36절에서 그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은 이것을 확실히 알지니 곧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느니라.”라고 설교의 쐬기를 박는다.

그는 분명히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라.”라고 말한다. 교회가 아니다. 이스라엘의 온 집은 유대인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알라고 하는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동일한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로 삼으셨다.”는 사실을 알라고 한다.

그러니까 요엘서에 나와 있는 말씀에 따라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고 했으므로 유대인들은 누구를 불러야 할까? 예수님을 불러야 한다. 즉 예수님을 배반하고 처형시킨 그 유대인들은 이제 “그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시요, 주님이십니다.”라고 외쳐야 했다. 왜 그런가? 마태복음 23장에서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대언자들을 죽이고 네게 보낸 자들을 돌로 치는 자야, 암탉이 자기 병아리들을 자기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얼마나 자주 네 자녀들을 함께 모으려 하였느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버림받아 너희에게 황폐하게 되었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가 말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마23:37-39).

여기서 주님께서서는 유대인들의 불순종으로 인해 자신의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들이 황폐하게 될 것을 예언하시고 39절에서 분명히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고 자기를 부를 때에 그들이 구원을 받고 메시아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보여 주셨다.

그래서 베드로는 유대인 백성들에게 “너희가 회개해야 구원받는다.”라고 설교하고

있다. 지금 사도행전 2장은 분명히 초대 교회의 일을 기록한다. 그러나 여기의 초대 교회는 100% 유대인 교회이다. 이방인은 하나도 없다. 아직 이방인들에 대한 교회의 프로그램은 시작되지 않았다. 지금 사도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이방인에 대한 생각이 추호도 없다. 그는 이방인들의 교회 프로그램에 대해 전혀 모른다.

하나님은 친히 자신의 계획에 따라 착착 일을 진척시켜서 나중에 사도 바울을 회심시키는 일까지 끌고 나가시는데 이 땅에서 지금 사도 베드로를 포함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이런 계획이 전혀 마음에 없다. 그들은 지금 온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주님이요 구원자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주의 날이 오고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서 37절로 넘어가니 이 사람들이 드디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좋을까?” 라고 이야기한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라고 말하며 그러면 성령님의 선물을 받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래서 41절을 보면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에 삼천 혼가량이 그들 즉 유대인 제자들에게 더해졌다. 교회가 아니라 백이십 명의 그 유대인 제자들에게 더해졌다.

그렇게 더해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그들이 흔들리지 아니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안에 머물면서 빵을 떼고 기도하는 가운데 백성들 중에서 믿는 자들이 생겨났다. 그렇게 생겨난 사람들이 47절에서 보듯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온 백성에게서 호감을 얻으므로 주님께서 구원받아야 될 자들을 교회에 더해셨다. 드디어 교회가 형성되었다. 이게 초대 교회이다. 그런데 이렇게 형성된 초대 교회는 100% 유대인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은 교회를 시작하셨지만 당시 땅에 있는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그들은 여전히 **주의 날**을 기다리고 있다.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교회 프로그램에 관심이 없고 왕국을 빨리 받아들여서 **주의 날**이 오면 메시아가 임하고 그러면 모든 것이 끝난다고 생각하고 있다. 이것은 내 해석이 아니다. 이제 3장으로 가면 모든 것이 명확하게 드러난다.

### 사도행전 3장

3장이 시작되니 베드로와 요한이 앓은뱅이를 고친다. 이렇게 해서 11절에 건지 못하던 자가 고침을 받고 베드로와 요한을 붙드니 백성이 놀랐다. 이에 12절에서 베드로가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어찌하여 이 일에 놀라느냐?” 라고 말한다. 그는 “교회야!”라고 말하지 않는다. 아직도 이스라엘이다. 그리고 그는 2장의 방언과 3장의 병 고침의 표적이 생긴 이유를 설명한다.

13절에서 그는 동일한 주제를 설명한다. 즉 “너희가 예수님을 거부하고 죽였으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 유대인들의 하나님 - 께서 자신의 아들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시고 그분을 주님으로 삼으셨다.”는 것이 그의 설교의 핵심 주제이다.

그렇게 이야기한 다음에 18절에 가서 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자신의 모든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미리 보여 주신 그 일들 곧 그리스도께서 고난당하실 일들을 이같이

성취하셨다.”라고 말한다.

자, 이제부터 매우 중요한 구절이 나온다. 19-21절을 보라.

그러므로 너희는 회개하고 회심하라. 그러면 새롭게 하는 때가 주의 앞으로부터 올 때에 너희 죄들이 말소될 것이요, 또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 곧 너희에게 미리 선포된 분을 보내실 터인데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해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느니라.

19절의 ‘너희는’ 누구인가? 이스라엘 백성, 즉 유대인이다. 문맥에 맞게 이 구절들을 읽어 보면 다른 해석이 나올 수 없다. 지금 베드로와 사도들 그리고 회심한 유대인들은 유대 백성이 회개하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회개해야만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다시 오시게 되고 그러면 온 민족이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면서 그분을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초점은 “우리 온 민족이 회개하고 회심만 하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예수님을 다시 보내실 것이고 그러면 주의 날이 오고 메시아 왕국이 오며 하나님의 모든 프로그램이 끝난다.”라는 것이다.<sup>1)</sup>

그 이유는 21절에 있는 것과 같다.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된 이래로 자신의 모든 거룩한 대언자들의 입을 통하여 말씀하신 때 곧 모든 것을 회복하시는 때까지는 하늘이 반드시 그분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이다. 베드로의 말은 다음과 같다.

그러니까 주의 날이 오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 그때까지는 예수님이 하늘에 계셔야 된다. 지금 너희가 그분을 받아들이면 회복하는 때가 오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다.

그래서 베드로는 22절부터 구약 신명기 말씀, 즉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나 같은 대언자 하나를 너희를 위해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라고 한 것을 상기시킨다. 그 대언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면서 그는 25절에서 “너희가 바로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 즉 대언자들의 자손이요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맺으신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말한다. 그리 말한 뒤 그는 26절에서 온 유대 민족이 회개할 것을 촉구한다.

자, 지금 열심히 설교하고 있는 베드로의 마음속에 교회가 있는가? 이방인이 있는가? 전혀 없다! 하나님은 그들이 예수님의 복음과 교회를 선포하기를 원하시는데 당시 땅에 있는 사도 베드로와 유대인 제자들은 아직 교회에 대해 알지 못하고 있다. 베드로는 이때로부터 약 10년이 흐른 뒤에, 즉 사도행전 10장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하나님은 교회 시대를 열어서 사람들을 교회 프로그램으로

---

1) 19절은 매우 중요한 절이다. 그러나 개역성경은 여기서 또 오역을 해서 독자들이 제대로 말씀을 보지 못하게 한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유쾌하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히 ‘새롭게 하는 때’가 임한다고 되어 있으나 개역성경은 이를 ‘유쾌하게 되는 날’로 번역해서 회개하면 사람이 유쾌하게 되는 것으로 설교하고 그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다.

끌고 가시는데 땅에 있는 이 제자들은 그것을 모른 채 메시아 왕국의 도래만을 생각하고 있다. 한편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 때와 같이 여전히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않는다.

#### 사도행전 4-5장

자, 이런 상황에서 4장에 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체포되고 공회 앞에 서는 장면이 나온다. 그렇게 돼서 초창기 유대인 성도들은 엄청난 핍박을 받는다. 사도들은 풀려나서 다시 기도하며 “병을 낫게 하시고 표적들과 이적들이 주의 거룩한 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허락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간구한다(30절). 2장부터 여기까지 계속해서 표적과 이적이 나오는 것은 유대인들이 표적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추구하나(고전1:22)

유대인들은 이집트 탈출 사건 이후 국가를 형성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표적을 요구했다. 그들은 대언자가 오면 반드시 표적을 요구했다. 그래서 모세에게도 같은 것을 요구했다(출4:1-17). 예수님에게도 표적을 요구했다(마12:38). 따라서 그들은 사도들에게서도 표적을 요구했다. 이것은 그들에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으며 하나님은 이들의 요구를 들어주셨다.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히2:3-4).

히브리서는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낸 사도 바울의 서신이다. 바울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표적들과 기적들을 보여 주셔서 사도들이 말한 것을 확증해 주셨다고 기록한다.

사도행전 4장 32-37절에 보면 유대인 성도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전부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가져다 놓은 것을 알 수 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 그때에 그들은 예수님이 언제라도 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온 민족이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님이 언제라도 오실 수 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의 것에 신경을 쓰지 않았다.

또한 그들은 성전을 떠날 수도 없었다. 왜냐하면, 말라기 3장 1절에 따라 예수님께서 성전에 갑자기 오실 줄로 믿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을 무시한 채 초대 교회처럼 모든 재산을 교회에 바쳐야 한다고 주장하거나 공산주의자들처럼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것은 그 당시 유대인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일이다.

이렇게 해서 5장으로 넘어가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성령님을 속이는 일이 발생한다. 이것을 그대로 두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두 사람을 죽인다. 그러나 여전히 문맥은 예루살렘에 모여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 대한 것이다.



## 사도행전 6-7장

6장에 들어가면 본토 유대인들과 외국에서 태어나 그리스 말만 쓰는 유대인들 사이에 양식 배급 문제로 다툼이 일어난다. 이것도 여전히 히브리 사람들 이야기이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교회가 시작되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교회가 다 100% 유대인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하늘에서는 교회 프로그램이 돌아가고 있는데 땅에 있는 이 유대인 성도들은 아직도 왕국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아직도 이방인들이 구원받아 교회를 이루는 것 등을 전혀 알지 못한다.

히브리 사람들 간의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일곱 사람을 뽑았는데 그중에 한 명이 스테반이었다. 스테반이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님, 바로 그분이 메시아라고 설명해도 그들은 듣지 않는다. 그러고는 오히려 거짓 증인을 세우고 그를 공회 앞에 데려다가 법정 심판을 받게 한다.

이에 사도행전 7장에서 스테반은 공회 앞에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대제사장 앞에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를 설명해 준다. 그는 유대인들의 조상인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유대인들의 반역과 불신앙의 역사를 하나하나 설명한다. 그 일이 끝나고 맨 마지막에 가서 그는 과거에 모세 시대로부터 약 1,500년 동안, 아브라함 때로부터는 약 2,000년 동안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고 대언자들을 보내시고 경고를 주셨는데 너희가 그들 중 한 사람에게라도 귀를 기울인 적이 있느냐고 묻는다.

그렇게 그가 유대 민족의 자존심을 구기는 발언을 하며 회개를 촉구하니 이 사람들은 마음이 강퍅해져서 귀를 딱 틀어막고는 스테반에게 달려들었다(57절). 바로 이 사건을 통해 대제사장을 비롯한 온 유대 백성은 조직적으로 예수님을 거부하였다.

이것은 마치 예수님 당시에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에 처형시킨 것과 비슷하다. 그때에도 예수님은 참다 참다 못해 십자가 사건 전에 모든 것을 마무리하면서 마태복음 23장에서 유대인들의 치리자들에게 정죄의 말씀을 퍼부었다.

여기까지의 것을 정리하면 이렇다.

하나님께서서는 예수님의 승천 이후에도 계속해서 은혜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고 회심할 기회를 여러 차례 주셨다. 여기까지 오면 무려 약 7년을 참아 주신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표적들과 이적들을 동원하여 유대인 사도들의 말씀 선포가 하나님 자신에게서 왔음을 증명해 주셨다. 이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데도 그들은 듣지 않았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더 이상 유대인들과 상관하지 않으시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것을 시행하셨다. 즉 유대인 제자들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교회 계획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채 계속해서 예루살렘에만 머물러 있으려 했다. 그들은 오직 이스라엘 중심의 메시아 왕국에만 관심이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스테반을 통해 또 한 번 기회를 주셨으나 그들은 대제사장의 주도하에 민족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고 그를 돌로 쳐서 죽였다. 이로써 유대인

들을 향한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은 한계에 이르게 되었고 그들은 교회 시대 동안 잠시 옆으로 치워진 상태로 지내게 되었다. 그래서 드디어 8장에 가서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실행하는 일이 생긴다.

### 사도행전 8장

8장 1절은 스테반의 죽음에 동의하는 사울에 대해 간략히 언급한 뒤 곧바로 그 당시 예루살렘에 있던 교회에 큰 핍박이 있어서 사도들 외에는 그들이 다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들로 흩어졌음을 보여 준다. 유대인 제자들은 모두 흩어지고 사도들만 예루살렘에 남았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성전에 나타나시면 안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유대인 성도들은 사도들만 남겨 둔 채 다 유대와 사마리아의 지역들로 널리 흩어졌다. 이렇게 되면서 메시아 왕국의 도래, 즉 주의 날의 도래는 점점 더 그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 아니라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 되고 말았다.

5-25절은 유대인들의 피를 반쯤만 가지고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복음이 선포된 것을 기록한다. 그리고 26-40절은 역시 유대인들의 피를 반쯤 받은 에티오피아의 유대인 내시가 회심한 것을 기록한다. 이로써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 중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에까지 이르러 그들이 증언하는 것이 성취되었다.

### 사도행전 9-11장

자, 이제 남은 것은 그들, 즉 유대인 성도들이 땅의 맨 끝 지역까지 가서 증언하는 것이다. 즉 이방인들에게 가야 하는 일이 남았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 9장에 사도 바울의 회심이 기록되어 있다. 15절에 이 내용이 정확히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주께서 그[아나니아]에게 이르시되, 네 길로 가라. 그는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내 이름을 전하기 위해 내가 택한 그릇이니라.

이제 드디어 하나님께서는 이방인 사역으로 길을 여신다. 그런데 아직도 문제가 남아 있다. 유대인들이 문제이다. 유대인들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자기들 외에는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는 생각이 남아 있었다. 이것을 해결하지 않으면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일이 진행될 수 없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아니라 사도 베드로를 택해서 이 일을 이루셨다. 하나님은 그에게 환상 계시를 통해서 속된 것과 부정한 것을 먹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가 거부하자 자신이 친히 그것을 깨끗하게 하셨다고 말씀하신다(10장 14-15절). 베드로가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자 그분은 이 일을 자그마치 세 번이나 보여 주셨다.

그 뒤에 베드로는 이방인인 고넬료의 집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였다. 그 일을 통해서 그때 그는 난생 처음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0장 34-35절).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성령 강림 이후 그가 이것을 깨닫기까지는 무려 1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다.

그런데 여전히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은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을 거부하려 했지만 결국에는 그것을 용인하는 내용이 11장에 기록되어 있다. 자기들이 개처럼

취급하던 이방인들이 성령님의 선물을 받아 교회의 중심이 된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 유대인들은 베드로를 불러 그가 고넬료에게 간 경위를 따져 물었다. 이에 베드로는 그들에게 처음부터 끝까지 그 사건의 경위를 설명하니 할 수 없이 그들은 굴복하고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그들이 이것들을 듣고 잠잠히 있으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행11:18).

다시 한 번 말하지만 이렇게 되기까지 약 1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이 사건 이후로 드디어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야 비로소 이방인 제자들이 그리스도인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 말은 결코 교회가 그때부터 시작되었다는 뜻이 아니다. 교회는 분명히 사도행전 2장에서 시작되었지만 교회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의 역할에 대한 역학 관계가 완성되는 데 약 10년의 세월이 필요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이방인 중심의 교회가 형성된 이후로 12장에서는 유대인 제자들에 대한 핍박이 한 번 기록되었고 13장 이후로 베드로의 이름은 사도행전에서 전혀 나오지 않게 되었다. 바울과 바나바만 나오는데 그나마 바나바도 15장까지만 나오고 16장부터 28장에는 이방인들의 사도인 사도 바울의 사역만 100% 나온다.

사도행전 7장에서 모든 유대인들은 대제사장과 공회와 더불어 예수님을 거부한 뒤에도 계속해서 주님을 거부하다가 결국 주후 70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훼파됨으로 온 세상으로 디아스포라가 되어 흩어지게 되었다.

그리고 1948년 5월에 다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이들은 결국 세상의 창건 이후로 없었던 극심한 환난기를 겪으면서(마24:21; 단12:1)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회개하고 회심하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분을 찬송할지어다!” 하며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일 것이다(롬11:25-26). 바로 이때에 요엘서 2장의 모든 말씀이 성취되며 그들이 방언을 하고 대언을 하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지게 될 것이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거주민들 위에 은혜의 영과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나 곧 자기들이 찌른 나를 바라보고 사람이 자기 외아들로 인해 애곡하듯 그로 인해 애곡하며 사람이 자기의 처음 난 자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듯 그로 인해 쓰라리게 슬퍼하리라(슥12:10).

## 결 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특히 우리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위에서 살펴본 대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부터 8장까지의 기록은 그 당시의 모든 표적과 기적이 유대인들에게만 해당됨을 보여 준다. 특별히 방언과 대언 등의 은사는 때가 되어 역할을 다하면 사라질 것이라고 바울은 기록한다.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나 대언들은 있다 해도 없어질 것이요, 타 언어들도 있다 해도 그칠 것이며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우리가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대언하나 완전한 것이 오면 그때에는 부분적인 것이 없어지리라(고전13:8-10).

그래서 병 고치는 자, 능력을 보이는 자, 사도, 대언자 등은 모두 성경기록의 계시가 완성된 주후 90년경 이후에는 완전히 사라졌다. 이것은 교회 역사가 증명한다. 그러므로 누가 초대 교회로 돌아가자고 할 때 우리는 그가 말하는 초대 교회가 어떤 초대 교회인지 물어야 한다.

하나님의 계시는 점진적으로 주어졌다. 교회에 관한 계시 역시 예수님 승천 이후에 이런 과정을 겪으면서 점진적으로 주어져서 주후 70년경에 사도 바울에 의해 완성되었고 그 뒤 주후 90년경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과 그 이후에 드러난 모든 것을 정리한 것과 또 앞날에 대한 계시를 요한복음과 요한 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기록하였다. 이로써 하나님의 모든 계시는 완성되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는 교회에 관한 계시가 확고히 정립된 때의 초대 교회들에게 주어진 서신들에 있는 규범들을 따라서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변천기에는 여러 가지가 변한다. 예를 들어 구원받는 모습도 여러 군데서 다르다. 2장에서는 유대인들이 구원받으며 방언을 한다. 8장에서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만 방언은 하지 않는다. 또 에티오피아 내시가 구원을 받지만 역시 방언을 하지 않는다. 9장에서는 바울이 구원을 받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다. 10장에서는 고넬료와 가족들이 구원을 받고 방언을 한다. 11장 이후로 28장까지는 19장의 아볼로의 제자들을 빼고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만 방언을 하지 않는다.

사도행전 시대에는 예수님 이전에 살던 사람들, 즉 구약 시대 사람들 중에 이미 구약식으로 구원받은 사람들 - 아브라함, 다윗, 침례자 요한 등과 같은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의 말씀을 믿어서 - 도 있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과 19장에 나오는 아볼로와 그의 제자들이 그런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은 이미 구원받았지만 유대인이므로 침례자 요한의 침례만 알았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알고 나서 다시 물 침례를 받았고 또 19장의 제자들은 성령 침례와 함께 방언도 했다.

그러므로 이렇게 여러 가지가 뒤섞여 있는 변천기의 상황 중에서 어느 것 하나를 취해 교회의 근본적 교리로 삼으면 꼭 문제가 생긴다.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은 성령 침례를 받으면 반드시 방언을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사도행전 2장과 10장 그리고 19장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 그런데 이 세 사례 외에는 어느 누구도 방언을 하지 않았다. 즉 성령 침례를 받으면서 방언을 하지 않은 사례와 사람이 대다수였다.

어느 누구라도 자기가 믿는 바를 성경으로 입증하고자 하면 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성경의 문맥이 그것을 지지하느냐가 중요하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교리를 찾아야 할까? 성령 침례 교리를 포함한 신약 성경의 교회와 관련된 교리는 교회에 관한 모든 것이 완전히 확립돼서 더 이상 변하지 않는 데서 찾아야 한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서 구원받은 사람이 다 성령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온다고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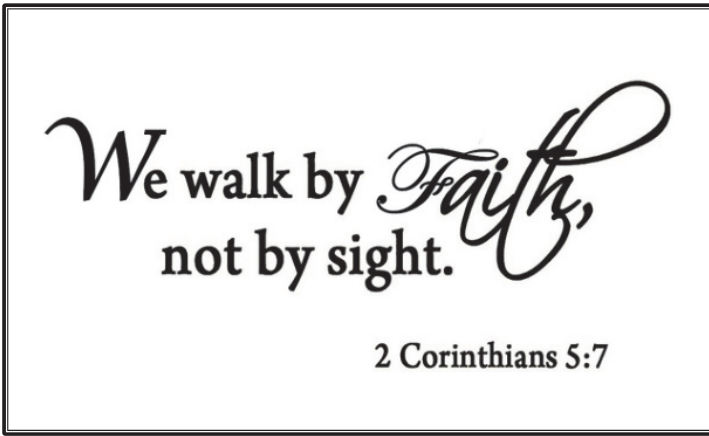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매인 자든 자유로운 자든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한 몸 안으로 들어왔고 모두가 마시게 되어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왔느니라.

그러므로 변천기 이후에 구원받은 사람은 누구나 다 이미 성령 침례를 받았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성령 침례를 받으라는 명령이 없다. 다만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그분의 지배하에 살라는 명령이 있을 뿐이다(엡 5:18).

다시 한 번 이야기하지만 대부분의 이단 교리는 변천기를 다루는 책들에 근거를 둔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가 확립된 상태에서 주어진 기록에서 교리를 찾아야 한다. 사도행전 2장의 표적들은 유대인들을 회심시키기 위해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주신 표적들이다. 방언을 하는 사람도 유대인이고 그것을 보고 돌이킨 사람도 유대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가 완전히 주어진 이 시점에 이런 것들을 구하고 찾는 것은 불신앙의 행위이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걸지 아니하노라)(고후5:7).



우리 주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을 구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라고 분명한 답을 주셨다(마12:39).

## 마가의 다락방에 없었던 것들

### 안 읽었거나 파악이 안 되거나

가끔 멀쩡한(?) 목사로부터 듣는 설교에서 안타까움을 느낄 때가 있다. 솔직히 말하면 화가 난다. 누구나 모르는 게 있으므로 완벽함을 바라는 것은 아니다.

신학적 이해가 부족하거나 각 시대와 말씀의 수신자를 몰라서 벌어지는 이야기들, 또 구약을 오해하는 데서 벌어지는 일들은 그렇다 칠 수 있는데, 전혀 국어를 이해하지 못 하거나 성경을 읽지 않아서 잘못 말하는 것은 매우 참기 어려운 일이다. 물론 잘 모를 수도 있고 실수를 할 수도 있지만 아주 간단한 문제를 전혀 확인하지 않고 늘 들은 대로 말하는 것은 말씀에 대한 무관심이므로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그중 한 가지는 사도행전 2장의 불과 바람, 다른 언어에 관한 것이다. 마가의 다락방에 불이 임했고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다. 또 사람이 알 수 없는 방언이 있었다고도 한다. 이 문제는 잘못 알고 있는 이들도 많지만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도 많다. 심지어 모 교단의 성경 학교 교재를 만들다 보니 어린이용 교재에도 ‘불과 바람’이 없었다고 바르게 적고 있다. 왜냐하면 그 부분은 글자를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이다.

다행히 이 대목은 개역개정도 킹제임스 흠정역과 거의 비슷하다.

오순절 날이 충만히 찼을 때에 그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 한곳에 있었는데 갑자기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력한 바람 소리 같은 소리가 나더니 그들이 앉아 있던 온 집안을 가득 채우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그것이 그들 각 사람 위에 앉으매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상형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행2:1-4, 흠정역).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행2:1-4, 개역개정).

그런데도 이처럼 명백한 구절들을 보면서도 선택적으로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골라

---

이 글은 우리나라에서 유행하는 오순절/은사주의의 문제점을 보여 주기 위해 김재욱 형제님이 적은 글이다. 이 글을 읽으면 이러한 신비주의의 문제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불’, ‘바람’, ‘방언’이라고 전하는 이들이 아직도 많다는 것이 문제다. 은사주의에서는 불을 받아야 성령을 체험하는 것처럼 말하고 자꾸 “뜨겁게, 뜨겁게, 불로, 불로…”를 강조한다. 또 장풍을 쏘며 바람을 일으켜 사람들을 넘어뜨리기도 한다.

그러나 (그들이 개역성경을 보았다 해도) ‘바람 같은 소리’는 바람이 아니라 ‘바람 소리 같은 소리’이며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은 불이나 불의 혀가 아니라 그것과 비슷하게 생긴 어떤 것, 즉 어떤 모양이다.

은사주의자들은 자기가 아는 불, 바람, 방언 등에 목숨을 걸고 다른 것은 생각하지도 않는다. 심지어 어떤 목사가 만든 어린이용 성가를 보면 바로 이 사도행전 2장이 가사로 되어 있는데, 맞춤법도 허술한 이 노래의 가사는 이렇다.

홀연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 있었어  
마가의 다락방에 백이십 명에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임하였어  
저희가 성령 총만 방언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보는 우리에게  
홀연히 임하소서 불로 불로 불로

바람 같은 소리, 불의 혀 같이 갈라진 것이라고 분명히 써 놓고도 끝에 가서는 “불로 불로…” 이렇게 끝이 난다. 이것은 한국말을 모르거나 주의력 결핍 때문이 아니라면, 자기가 알던 것 외에는 도무지 알고 싶지도, 알고고도 하지 않는 태도의 산물일 것이다.

확실히 종교심에는 뜨거운 불이 어울리긴 한다. 냉철한 이성이나 차분한 판단으로 믿는 것은 웬지 싱겁고 성에 안 차는 모양이다. 모든 목사들이 방언을 강조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그들의 희망 사항일지는 몰라도 모두가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러니 성도들에게 방언 받으라고 하면 “목사님도 못 하면서…”라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래저래 만만한 게 불이다.

불 하면 떨기나무를 태우지 않는 불이나 광야의 길잡이가 된 불기둥을 떠올려 좋은 것으로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떨기나무의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고 광야의 불기둥은 캄캄한 밤에 빛을 주기 위한 것이다. 불로 금을 연단한다는 이야기로 성도의 연단을 말하는 것도 비유로 사용할 수 있지만 실제 불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엘리야의 불이나 제단의 불은 모두 태우고 심판하기 위한 것이다. 지옥의 불은 말할 것도 없다. 모든 불 중에 성도가 받아야 할 불은 어떤 것도 없으며 그나마 사람에게 임하는 불이라곤 심판의 불 밖에는 없다.

### 한 번 받은 성령님을 받고 또 받고?

또한 그날 사도들이 구사한 ‘다른 언어들’은 다른 지방 사람들의 언어이며 결코 아무도 알 수 없는 반복적 입눌림이 아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말한 ‘천사들의 언어(천사의 말)’도 반복적 입눌림의 그런 말이 있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 아니며, 엄청난 것을 행한다 해도, 다시 말해 ‘방언이 아니라 방언 할아버지를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것, 즉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쓴 말로 보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천사의 언어가 있다 해도 몇 개의 단어를 반복하는 학습 방언과 같은 형태는 결코 아닐 것이다.

오래전 많이 불리던 ‘사랑의 송가’라는 복음 성가는 아예 “천사의 말을 하는 사람도 사랑 없으면 소용이 없고 …” 이렇게 나가기 때문에 천사의 말(방언)을 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게 만들지만, 방언은 명백히 타 지방 사람들이 사용하는 말이며 사용할 목적이 있는 다른 나라 언어이다. 또한 방언, 즉 타 언어는 해당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도 없는 데서 뜻 없이 중얼대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소리’이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가서 타 언어들로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대언하는 것이나 교리로 너희에게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슨 유익을 끼치겠느냐?(고전14:6)

방언 운동의 새 물결(?)을 주도하고 있는 김OO씨의 집회 간증을 본의 아니게 몇 번 들은 적이 있다. 그는 집회의 목적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내가 뭘 체험했다든지 무슨 놀라운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든지 하는 식의 자기 감상으로 시간을 다 채운다.

이런 사람들은 늘 성령님을 체험해야 한다고 강조하는데 알다시피 성령님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즉시 그 사람 안에 거하시므로 이후로는 성령님이 충만하거나 근심하실 수는 있지만 결코 떠나시지는 않는다. 성령님은 그를 성전으로 삼고 영원토록 그 안에 사신다. 그런데 한 번은 김OO씨가 성령 체험에 대해 이야기를 하다가 이런 말을 했다.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아... 물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으면 받는 것이죠...

의외로 그는 구원받으면 성령님을 받는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 그런데 왜 다니면서 성령님을 받으라고 하는 걸까? 사실 그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다가 스스로 모순에 빠진 것이다. 그는 이렇게 말을 이어갔다.

이미 받은 것이지만... 받고 또 받고...

성령님을 받고 또 받는다는? 그렇게 ‘받고 또 받고’가 성령 충만에 대한 것이라면 이야기가 다르지만, 그가 늘 주장하는 것은 방언을 통해 성령님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는 늘 스스로 모순에 빠진다. 그와 같이 광화문의 N교회 청년부를 다녔던 한 지인은, 도무지 그의 행동이나 발언이 이해가 안 가고 그간 교회에서 배운 것과 어찌면 그리 다른 행보를 그가 걷는지 알 수 없다고 했다.

방언에 관한 그의 베스트셀러에는 수백 개의 서평이 있는데 대개 찬사와 공감이지만 열몇 개에 하나씩은 비난이나 비성경적인 것이라는 지적이 올라온다. 그들의 이야기만 들어도 제대로 된 이해력과 실수를 인정하는 용기만 있다면 그는 계속 실수를 하지 않을 텐데 비성경적인 일에 여전히 애를 쓰는 그를 보면 참으로 답답하다.



## 교만과 열등감을 부르는 그들만의 상품

신비적 체험과 보통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하는 기적은 종교라는 틀에서 권력이 되고 만다. 1%만이 살아남고 대우받는 '세상의 1등 선호 사상'이 종교라는 형식을 타고 기독교에까지 들어와 권력화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체험을 했다는 사람들은 겸손해지기보다 교만해지고 그런 체험도 못해 본 사람을 영적 하수로 내려다본다. 그래서 다수의 순진하고 무지한 성도들은 열등감을 안은 채 불을 받고 방언을 받기 위해, 그리고 장풍에 한 번 쓰러져 보기 위해 여기저기 헤매며 다닌다. 그들은 말씀을 통해, 믿음을 통해 성령님을 받는 것이 아니라 불과 바람과 방언과 치유와 기적을 통해 성령을 받으려고 애쓴다.

지금도 필요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은사를 주실 수 있지만 아무 때나 그것을 받을 수 있다고 믿고 그것을 신앙 수준의 척도로 삼는 것은 미신적인 행동이며 더욱이 그것을 구원의 기준이나 표적으로 삼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구원을 받으면 은사나 치유가 따라와야 진짜배기라고 속이는 무리가 많은데 이는 마태복음과 사도행전을 크게 오해하고 지금 이 시대에 적용하려 하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이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들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고 새 언어들로 말하며 뱀들을 집어 올리고 어떤 치명적인 것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들에게 안수하면 그 사람들이 나으리라, 하시더라(막16:17-18).

뱀은 어떻게 집어 올린다 치고... 과연 이 시대에 어떤 치명적인 것(즉 독)을 마셔도 괜찮은 사람이 있는가? 그런 사람이 없다면 이 시대에 '믿는 자란 전혀 없다는 의미인가? 개역개정에는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라고 되어 있다. 불 받으라고 남의 머리를 때리고 장풍을 쏘아 넘어뜨리는 사람은 봤어도 독을 마시는 은사(?)를 보여 주는 사람은 본 적이 없다.

시대를 구분해야 한다. 사도 바울은 죽은 사람도 살렸던 사람이지만 시대가 바뀌자 자기 몸의 질병이나 자기를 따르는 제자들의 질병도 고치지 못했다. 그러면 그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신 건가? 하나님의 선물(은사)은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며 하나님의 프로그램은 아무 이유 없이 아무렇게나 남발되는 것이 아니다. 은사주의는 하나님의 선물을 상품으로 만들어 팔고 있지만 그 상품들은 마가의 다락방에는 없었던 것들이다.

그런데도 여전히 성경과 시대를 구분하고 나누고 분별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한 방에 속 시원히 뭔가 해결하려는 이들 때문에 은사주의는 오늘도 성업 중이다.

품위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어느 기도원의 원장이라는 목사의 설교 영상을 얼핏 보니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성령도 못 받았어? 아니, 성령도 못 받고 뭐하고 있어? 성령 못 받았다는 사람 있으면 나한테 데리고 와. 이 큰 손으로 뒤통수를 그냥...

음... 손발이 오그라들고 얼굴이 화끈거리는 것을 보니 이 양반들이 불을 내리긴 내리나 보다.

## 카톨릭 영성에 중독된 한국 교회



성 베드로 성당 시노드 미사에서 전통 의상을 입은 신도들에게 미사를 집전하는 교황

### 한국 교회에 침투한 ‘카톨릭 영성’의 문제와 위험

지성사적으로 볼 때 미국의 히피 그룹을 위시해 프랑스, 독일,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에서 기성의 이데올로기와 체제에 도전하는 젊은이들의 반(反)문화 운동이 잇달아 격렬하게 전개된 것은 지난 1960년대 중반이었다.

당시 세계적 수준에서 권위주의적 정치 체제를 대표한 거대 관료 조직으로서 카톨릭교회는 자연스럽게 안팎의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세계의 보편적 교회를 표방하는 카톨릭 교회로서는 그 같은 비판적인 저항의 시대 조류에 어쩔 수 없이 부응해 모종의 신학적 대타협을 시도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로부터 카톨릭교회는 1962년부터 1965년까지 무려 3년간에 걸쳐 제2차 바티칸

---

이 글은 서원대 교수이시고 미션뉴스(www.newsmission.com)의 논설위원이신 김성건 교수님께서 실어도 좋다고 허락해 주신 글이다. 이것은 「기독교와 사회학의 접점」(프리칭아카데미, 2009)의 제10장(95-103쪽)에 ‘카톨릭의 신비적 영성에 중독된 한국 교회’란 제목으로 실려 있다. 게재를 허락해 주신 김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공의회를 개최해 타 종교에 대한 종전의 권위주의적, 배타적 태도를 바꾸어 종교 간에 대화를 앞장서서 추구하는 에큐메니즘(Ecumenism, 초교파주의)의 선봉에 서는 등 이른바 종교 다원주의 쪽으로 일대 신학적 전환을 이루어 오늘에 이르게 된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로마 카톨릭교회의 가르침(교리)과 개신교회의 가르침 양자 사이에 종래 존재했던 뚜렷한 간격이 시간이 흐르며 점차 흐려지게 됐다.

한국 카톨릭교회의 경우는 지난 18세기 말 조선에서 포교가 처음 시작된 이래 수많은 종교적 희생자 곧 순교자를 내는 등 줄곧 강하게 이단시하고 금지했던 유교적 조상 제사가 제2차 바티칸 공의회를 계기로 이제는 한국의 전통 문화의 한 부분으로 돌연 인정되는 일이 벌어졌다.

역사적으로 보아, 지난 1세기에 오순절 성령 운동의 결과로 초대 교회가 출현한 이후 기독교가 핍박을 받던 중 3세기에 들어와서 로마 제국의 정치 권력을 장악한 콘스탄티누스 대제에 의해서 국교로 공인됐다. 그렇지만 그 당시 카톨릭교회는 초대 교회의 전통보다는 오히려 그 주위에 있었던 이방 종교들의 주술적 요소를 상당 부분 수용한 전통이 오늘까지도 면면히 계속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한편, 1960년대의 히피 문화로 대표되는 반문화 운동을 배경으로 지난 1980년대에 출현한 ‘탈근대’, ‘다원주의’, ‘개인주의’, ‘감성’ 등으로 표상되는 포스트모던의 시대적 흐름과 비교적 최근인 1990년대에 나타난 세계화와 정보화의 영향 아래 세계 종교들 중에서도 기독교 전반 특히 한국 개신교 내에서 약 10년 전부터 ‘제도 종교’와 구별되는 주관적 ‘경험’에 바탕을 둔 이른바 ‘영성’(Spirituality)에 대한 관심이 갑작스럽게 크게 고조됐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특별히 끄는 측면은 바로 2006년 말 오늘에 이르러서는 본질적으로 다분히 주술적 요소를 많이 갖고 있는 ‘카톨릭 영성’이 16세기 말 당시 카톨릭교회의 면죄부 등 각종 주술 타파를 목표로 이루어진 종교 개혁의 전통을 이어받았다고 자처하는 보수적인 한국 개신교회에마저도 조금씩 미묘하게 침투해 이제는 사실상 거의 지배하게 된 새롭고도 자못 흥미 있는 현상이다.

필자는 종교를 사회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종교 사회학자로서뿐만 아니라 개인적으로 평소에 종교 개혁의 유산을 이어받은 복음주의 신앙은 마땅히 카톨릭과는 본질적으로 구별돼야 한다고 믿는 한 사람의 개신교 신자로서 최근에 한국 교회에 침투한 ‘카톨릭 영성’의 문제와 이것의 위험을 제대로 밝히는 일이야말로 현재 침체 상태에 빠져 있는 한국 교회의 이노베이션을 위해 여러모로 매우 중요하면서도 시급한 과제라고 본다.

오늘날 수많은 복음주의자들이 ‘로마 카톨릭 스타일의 영성’ 혹은 달리 말해서 ‘종교 개혁 이전의 영성’으로 돌아오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런 영성은 많은 경우 이방 종교들로부터 차용된 것으로서, 예를 들자면 의례적인 기도 혹은 지루한 되풀이 기도, 영창, 곧 시편 따위의 글귀를 단조롭게 읊는 일, (선불교에서 강조하는) 명상(meditation), 집중(향심) 기도(centering prayer) 곧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하나님의 존재를 느끼며 단순히 안식을 취하는 명상적 행위 등이다.

그래서 약 120년 전 미국의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이래 현재까지도 미국의 문화적 영향권 아래 놓여 있다고 볼 수 있는 한국 복음주의 개신교 진영에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북미의 주요 신학교 중 거의 가장 대표적 기관인 초교파적 풀러 신학교의 '영성' 코스 관련 주요 필독 도서 목록에는 물론 한국의 대표적 신학교들의 각종 '영성' 과목의 경우도 저자의 상당수가 「그리스도를 본받아」를 쓴 토마스 아 켐피스(Thomas A. Kempis) 등 로마 카톨릭 신자인 것을 새삼 주목할 수 있다.

한편, 금년 여름 한국을 잠시 방문해 연일 개최한 집회를 통해 국내의 수많은 성도들에게 대단한 감동을 불러일으킨 바 있는 미국 남가주 소재 새들백교회의 릭 워렌 목사는 베스트셀러 「목적이 이끄는 삶」으로도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이 릭 워렌 목사 역시 명상, 집중 기도 및 여타 카톨릭의 이교도적 영성 형태를 증진시키기 위해서 로마 카톨릭 저자들의 주장을 자신의 저작이나 설교에서 빈번하게 인용하고 있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구체적 예로서, 「목적이 이끄는 교회」와 「목적이 이끄는 삶」에서 워렌 목사는 존 메인(John Main)을 인용하고 있는데, 메인은 베네딕트 수도사로서 그리스도가 나사렛 예수에게만 제한되는 것이 아니라 수도원의 지도자들, 병든 자들, 가난한 자들 같은 우리들 속에 남아 있다고 믿는 사람이다.

또한 릭 워렌 목사는 북미 기독교계에서 현재 상당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사람으로서 최근 한국을 방문해 당시 국내 기독교계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기보다는 오히려 커다란 주목을 받은 바도 있는 「영적 훈련과 성장」과 「기도」의 저자인 케이커 출신의 신비주의자 리처드 포스터(Richard Foster)가 강조하는 「명상」을 실천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한국에서 이 시대의 영성 신학자를 대표하는 목사로 이미 잘 알려진 포스터가 창시한 이른바 '레노바레'(Renovare) 운동은 오늘날 미국의 유명한 윌로우크릭교회를 위시해 한국 기독교계에서도 잘 알려져 있다. 명상의 각종 테크닉에 바탕을 둔 레노바레 운동은 본래 평화주의를 지향하는 케이커 전통으로부터 나온 것으로서 진보적인 세계 교회 협의회(WCC)의 초교파주의(ecumenism)의 배경에 자리 잡고 있는 운동이다. 주지하듯이 교파 간 일치와 연합을 추구하는 에큐메니즘은 기본적으로 교리(doctrine)에 대해서는 크게 상관하지 않는 전략을 갖고 있다.

이로써, 필자는 오늘날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가운데 적지 않은 수가 '종교적(카톨릭) 신비주의'와 '성서적 영성' 양자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제대로 이해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고 본다.

그런데 여기서 제기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는 교회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 내의 '신비주의의 발전'과 '성령 운동의 번성' 양자 사이에 매우 흥미 있는 관련이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오순절 성령 운동(Pentecostalism)과 카리스마 운동은 놀랍게도 많은 측면에서 로마 카톨릭교회 속에서 발전한 신비주의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다. 이는 빈야드 운동의 창시자인 존 워버(John Wimber) 같은 이가 그의 책 「파워 이반젤리즘」(Power Evangelism)에서 아빌라의 테레사(Teresa of Avila)와 이그나티우스 로올라(Ignatius Loyola)를 아무런 문제없이 추천하고 있는 데서도 잘 나타난다.

이런 측면에서 오늘날 로마 카톨릭 진영 속에서 수용되고 있는 관점은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가 카리스마적 부흥을 위한 예언자적 충동(자극)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성령 세례’ 경험, 비전(환상), 내적 목소리, 황홀감과 엑스터시, 진위가 의심스러운 예언하기, 모종의 힘 아래로 떨어지는 것, 각종 방언 따위 같은 카리스마 운동과 오순절 성령 운동의 주요한 표현들은 전적으로 로마 카톨릭 신비주의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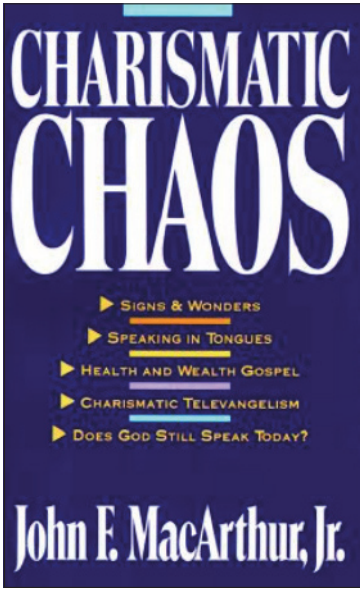
오늘날 자신을 복음주의자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오순절 성령 운동 및 카리스마 운동 추종자들에 의해서 구성되고 있기 때문에, 일부에서는 카톨릭 신앙과 새로운 복음주의가 기묘하게도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까지 주장한다.

왜 수많은 개신교인들이 카톨릭 신비주의에 매력을 느끼게 될까? ‘교리’(doctrine, 신조)와 ‘헌신/신앙심’(devotion) 사이에는 종종 긴장이 있기 마련이지만, 중요한 것은 올바른 교리는 자연적으로 올바른 헌신/신앙심을 갖다 준다는 점이다. 결론적으로, 한국 개신교회는 차체에 ‘개인주의’를 강조하는 포스트모던 문화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 ‘종교적 감정주의’(religious emotionalism)를 ‘기독교 영성’과 잘못 동일시하는 오류를 더 이상 저질러서는 안 될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최근 한국 교회 내에서 유명한 간증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자신의 드라마틱한 중생 체험과는 뚜렷이 모순되는 치명적인 문제를 개인 차원에서 일으킴으로써 기독교의 공신력이 크게 추락하는 일이 종종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구굿닷컴 이영주 기자의 2006년 12월 25일자 글 ‘드라마틱한 간증의 함정’ 참조). 이는 한국 교회의 평신도들에 대한 강단의 가르침(설교)과 기독교계 언론의 수준 양자 모두가 아직 매우 낮은 데 머물러 있다는 것을 잘 방증한다.

끝으로, 필자는 신비적 경험에 대한 우리 개신교 크리스천들의 사고의 기본적 틀을 세우는 데 중심이 될 수 있는 두 개의 성경 구절을 제시하고자 한다. 그것들은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신뢰가 나타나 있는 시편 131편과 천사 숭배와 금욕주의의 위험에 대한 경고가 나타나 있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이다.

18 아무도 꾸며 낸 겸손과 천사 숭배로 너희를 속여 너희 보상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그런 일을 하는* 자는 자기가 보지 아니한 그것들 속으로 들어가 자기의 육신적 생각으로 말미암아 헛되이 우쭐대며 19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지만 온몸은 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에 의해 영양을 공급받고 서로 결합되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시는 대로 자라느니라. 20 그러므로 너희가 세상의 초보 원리들로부터 떠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살고 있는 것같이 규례들에 복종하느냐? 21 (*그것들은 곧, 만지지 말라, 맛보지 말라, 손을 대지 말라, 하는 규례들인데*) 22 이것들은 다 사용함에 따라 없어질 것들이며) 사람들의 명령들과 교리들에 따른 것들이니라. 23 이런 것들은 의지대로 경배하고 *자기를* 낮추며 몸을 경시하는 데는 참으로 지혜가 있는 것같이 보이니 아무 가치가 없으며 육체를 만족시킬 뿐이니라(골2:18-23).



현대 은사주의 문제점을 성경적으로 가장 잘 분석한 책은 맥아더 목사의 <Charismatic Chaos>이다.

은사주의 운동은 지난 이십여 년 사이에 교회에 역사상 유례가 없을 만큼 큰 영향을 끼쳤다. 그러나 이 운동이 남긴 한 가지 유산은 혼란과 불분명한 사고다. 『무질서한 은사주의』에서 존 맥아더는 성경적 평가를 촉구하며 성경에 비추어 은사주의자와 비은사주의의 교리적 차이를 분석한다. 맥아더는 이렇게 말한다. "나의 주된 관심사는 교회에 성경의 순수성과 권위에 대한 굳건한 헌신을 촉구하고 그럼으로써 참된 교회의 연합을 강화하는 일이다." 분열을 일으키는 듯한 어려운 질문에 대하여 책은 연합을 위해 노력하는 지혜로운 답변을 제공할 것이다.

# 추천 참고도서

##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티디, 큰글자, 박사, 신약 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번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종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9.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0.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1.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3.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데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닛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데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희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3. 뉴에이지 운동 평가 박영호 저, 기독교문서선교회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스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사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1.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 존 맥아더 저, 생명의 말씀사
12. 칼빈주의 비평 데이빗 클라우드 외 저, 그리스도예수안에



#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IV·NASB 등 포함〉

##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짐승의 혼 **전도서3:21** 짐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그리스도  
예수안에

#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의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징조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저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도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더라.)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저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 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팔로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정



무료 설교  
강해 노트



9 788995 158784

ISBN 978-89-951587-8-4



03230

값 8,000원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성경지킴이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 킹제임스 흠정역

##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춘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http://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꼽히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www.KeepBible.com](http://www.KeepBible.com)

NAVER

사랑침례교회

검색

#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튼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라잡이 역할, 흥정역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섭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한지 알려주는 책.

##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천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피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짝슨 외/ 고정민 역

모든 것을 끝내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 성경의 역사: 어둠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섭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환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책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려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욱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배리칩 등 종말론 총정리.

##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빠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 킹제임스 흥정역

###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